

柳 浚 景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朝鮮後期 女性人物傳 研究

2007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李 珠 美

朝鮮後期 女性人物傳 研究

柳 浚 景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李 珠 美

認 准 書

李珠美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本 研究는 時代와 作家 그리고 女性人物간의 緊密한 關係를 바탕으로 朝鮮後期에 이르러서야 獨自的인 文學으로 거듭난 女性人物傳의 考察을 통해 그 文學史的 意義를 究明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筆者는 그동안 여성인물로써 烈女만의 주목에서 進一步하여 朝鮮후기에 이르기까지 發展的 變貌의 과정을 通過하여 女性人物傳이 誕生하였을 것이란 假說에서 출발하였으며 나아가 朝鮮후기의 時代相과 女性像까지도 眺望하였다.

朝鮮후기 女性人物傳이란 朝鮮후기의 새롭고 다양한 여성인물을 立傳하여 작품화한 女性人物의 傳記이다. 男性作家的 女性人物傳을 主연구대상으로 하고 朝鮮후기 가운데서도 17세기 후반(1650년대 이후)~18세기 전반(1750년)까지를 연구대상의 시대범위로 한정하여, 假傳 작품과 淸傳 작품의 남성인물은 除外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총 49名 작가의 70篇의 작품을 選定하였다. 연구대상 작품은 여성인물 形象을 중심으로 당시 여성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었던 理念과 現實을 기준으로 類型化하여 考察하였으며, 연구대상 작가는 여성인물의 立傳을 중심으로 당시 여성을 어떠한 視角으로 照明하고 意識하고 있었는지 論贊을 기준으로 類型化하여 考察하였다.

우선 女性人物傳의 概念과 形成, 그리고 展開 및 發展에 대해서 살펴본 바, 女性人物傳은 傳 →人物傳 →女性人物傳의 순서로 派生되어 形成되었고, 人物傳의 史的 脈絡 안에서 烈女傳을 始初로 하여 展開되다가 朝鮮후기를 맞이하여 發展할 수 있었던 文學이었다.

다음으로 女性人物傳의 作品世界에 대해서 살펴본 바, ① 烈女傳에서는 烈行의 典型을 만들며 夫死를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從死 烈女와, 烈行의 典型에서 離脫하여 새로운 烈行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烈을 실천하는 守節 烈女로 크게 兩分된 가운데, 他者의 視角에 의해 理念化되고 의미 있게

形象化된 香娘이라는 여성인물을 보았다. ② 忠孝傳에서는 男性의 영역에 머물던 忠이념을 강인한 意志와 召命意識으로서 실천한 여성인물과, 남성의 孝行과 여성 烈行의 바탕에 비중을 두었던 孝이념을 獨立的이며 積極的으로 실천한 여성인물을 보았다. ③ 이 외의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서는 이념적 사고에서 獨特한 행동을 보인 여성인물과 이념적 사고와 無關하게 非凡한 행동을 보인 여성인물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女性人物傳의 立傳意識에 대해서 살펴본 바, ① 여성의 烈行을 讚美함으로서 內面에서부터 烈이 發現되어야 하고, 比較 對象을 거론함으로서 日常에서의 행위가 規範에 맞을 것을 言表하여 傳統理念을 鼓吹하였다. ② 이러한 이념의 강조로 빚어지던 문제점들을 目睹하고 典型的인 烈女傳의 內容과 形式을 빌려와, 烈行의 典型이 된 從死의 현실과 家父長에게 拘束된 여성의 현실에 대해 批判意識을 內在하였다. ③ 이와는 달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獨特한 모습에서 勇氣와 積極性을 포착하고, 이념적 시각망에 포획되지 않았던 非凡한 모습에서 能力과 主體性을 포착하여 새로운 人物形象으로 意味賦與를 하였다.

지금까지 女性人物傳의 形性 및 展開를 考察하며 傳史的 脈絡을 알 수 있었고, 女性人物傳의 作品世界를 考察하며 여성인물의 형상을 볼 수 있었으며, 女性人物傳의 立傳意識을 考察하며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歴史的·文學的 諸般 條件의 變化로 성립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은 다양한 視角에서 各가지 色彩를 가미하여 創出된 새롭고 獨自的인 문학이라는 傳史的 意義와 더불어, 公認性과 歷史性을 具有하는 傳의 양식적 특성에 緣由하여 朝鮮後期的 面貌를 보이는 女性을 주목한 餘他的 漢文學과 다른 女性人物傳만의 意味가 있었다.

이상으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文學史的 意義가 究明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女性人物傳 全般의 세밀한 검토와 女性人物傳에 입전된 여성인물과 관련하여 實存 與否 및 關聯 資料와의 검토,

그리고 女性人物傳을 창작한 작가와 관련하여 生涯 및 思想, 政治的·學問的 性向의 고찰, 이와 더불어 필자가 선정한 시대범위 外에서 產出된 女性人物傳과의 比較·考察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女性人物傳의 獨自性和 意義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目 次

論 文 概 要

I. 序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史 檢討	3
3. 研究對象 및 研究方法	8
II. 女性人物傳의 形成과 展開	15
1. 女性人物傳의 概念과 形成	15
2. 女性人物傳의 展開와 發展	24
III. 女性人物傳의 作品世界	32
1. 烈女傳의 持續과 變貌	32
1) 從死의 典型化	34
2) 새로운 烈行의 擡頭	41
2. 忠孝傳의 變貌와 女性	53
1) 召命意識으로서 忠의 實現	55
2) 孝行의 注目과 積極的 女性像	64
3. 새로운 女性形象에의 注目	79
1) 理念에 따른 獨特한 行爲	80
2) 脫理念의 非凡한 行爲	89

IV. 女性人物傳의 立傳意識	96
1. 傳統理念의 鼓吹	96
1) 烈의 內面化	101
2) 理念의 日常化	106
2. 批判意識의 內在	111
1) 從死에 대한 批判	115
2) 女性 拘束의 批判	118
3. 새로운 人物形象과 意味賦與	123
1) 勇氣있고 積極的인 俠女像	128
2) 能力있고 主體的인 義女像	133
V. 朝鮮後期 女性人物傳의 文學史的 意義	139
1. 女性人物傳의 傳史的 意義	139
2. 女性 漢文學에서의 位相	144
VI. 結論	152

參 考 文 獻

ABSTRACT

I. 序 論

1. 研究目的

本稿는 朝鮮後期 女性人物傳을 考察하여 여성인물의 形象化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인물을 立傳한 작가의 意識이 무엇인지를 밝혀 女性人物傳이 갖는 文學史的 意義를 究明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이란 조선후기라는 激變의 사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인간상이 創出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인물에 주목하고 입전하여 작품화한 여성인물의 傳記를 의미한다. 여성인물의 生涯를 기록한 글로는 行狀¹⁾, 祭文²⁾, 墓碑銘³⁾ 등이 있으나 이는 모두 조선시대 이후 兩班家 여성에 한하여 그녀들의 死後에 親分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千篇一律의인 追慕와 誇張的인 羅列이 占有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規範的인 人物을 동일한 表現방식과 목적의식 하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文學作品으로서의 意義가 半減된다. 반면에 女性人物傳은 各樣各色的인 人物을 조명하며 새로운 表現방식과 작가의식 하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문학 작품성을 具有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 점을 바탕으로 하여 女性人物傳이 한 순간에 突出된 문학이 아니라 시대와 입전대상인 여성, 그리고 여성인물을 입전하고 있는 작가라는 이 三重奏가 和音을 이루는 순간마다 變貌하고 發展하며 誕生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假說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停滯的 持續이 아니라 發展的 變貌의 과정을 通過하였을 것이란 뜻이

- 1) 行狀은 傳狀類에 속하며 죽은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글로서 모두 평생의 嘉言, 懿行만 서술하고 遺意가 있다면 諱避하고 쓰지 않았다. 行狀은 親朋, 子弟의 손에서 기록되었는데 대체로 家系와 姓名, 生年月日, 벼슬한 경력과 行蹟, 子女關係를 소상하게 기술하였다.(김미란, 「<女性傳記>의 서술의도 연구: 16, 17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집, 월인, 2001, 73쪽, 註 3번 참조)
- 2) 祭文은 弔, 遷柩, 發靱할 때 쓰며 경우에 따라서는 小祥과 大祥에서 쓰기도 하였는데 죽은 사람을 추도·추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미란, 앞의 논문, 73쪽, 註 3번 참조)
- 3) 墓碑銘·墓誌銘·墓碣銘·墓表 등은 碑誌類라 하여 세상을 떠난 이의 功德을 돌에 새긴 것을 말하는데 무덤 밖에 세우는 것은 碑(墓碣은 墓碑보다 작은 것이다), 壙中에 넣은 것은 誌라 하였다. 이러한 제문과 묘비명 등은 장례절차에 따라 지어진 것이다.(김미란, 앞의 논문, 73쪽, 註 3번 참조)

다.

지금까지 女性人物傳에 있어서 다양한 여성인물의 類型 중 烈女를 입전한 烈女傳이 그 核心에 놓여 가장 많은 注目과 關心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烈女傳이 浮上하는 가운데서 背後에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여성인물 유형을 前面에 배치한다. 이는 烈女傳의 排除가 아닌 視角의 轉換이었으나 여전히 烈女傳이 先占하고 있던 形勢와 影響圈이 縮小될 幾微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서 女性人物傳의 劣勢는 豫見되었다. 이로 보면 이들의 관계가 한쪽의 消滅로 인해 다른 한쪽이 上昇하는 相互 排他的인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성장시키는 바탕이 되어 준다는 점에서 相互 共存이 필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烈女傳에 의해 나타나는 弊端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女性人物傳에 대한 주목이었고 이는 자연스레 女性人物傳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 烈女傳이 빛고 있던 弊害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人間이 변화하고 그들의 터전인 社會 또한 동요함에도 불구하고, 理念만은 인간에게는 고정관념화 되고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화 되어 實體도 없이 虛像으로서 全般을 지배하고 있었던 데 있다고 하겠다. 그렇더라도 烈女傳은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이 창출될 수 있었던 基盤이자 原動力이었음을看過해서는 안된다. 烈女傳에 입전된 여성인물들과 諸시기의 女性人物傳에 입전된 여성인물들은 數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同時代를 똑같이 살아 숨쉬며 존재했던 女性이기에 앞서, 한 人間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作品世界와 立傳意識을 조명하려는 본고의 試圖는 조선후기 時代相과 女性像의 眺望은 물론이고 당시 여성에 대한 他者의 視線과 認識, 여성 자신에 대한 自我의 意識과 覺醒에 대해서도 考究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를 살아가던 여성의 세계를 보다 多角的으로 파악하려는 데 중요한 示唆點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女性主義的 視角으로 당시의 여성을 憐憫하고 同情하며 당시 여성들의 현실을 批判하고 改革을 促求할 것을 強調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女性人物傳에서 表出한 이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內在된 비판 의식을 찾아보며 形象化하여 의미부여를 받고 있는 여성인물을 살펴보면서 삶의 主體로 成長하는 여성상을 발견해 보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상은 肯定的·發展的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서 의미가 浮刻된다. 본고의 이러한 연구는 조선후기의 思想的·文藝的 特徵의 一面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研究史 檢討

傳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傳을 說話 → 傳 → 小說의 小說發達史的 觀點에서 소설의 前段階的 敘事樣式으로 이해한 연구⁴⁾와 傳을 歷史와 慣習에 의해 獨自的으로 발생한 實存樣式으로 이해한 연구⁵⁾이다. 後者의 연구는 隣接 서사양식과의 상호관계를 고찰함으로써 傳의 獨自性和 實存性을 밝히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傳에 대한 初期의 연구는 傳의 양식적 특성을 糾明하기 위한 연구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문학이 樣式이라는 틀을 통해 作品으로 誕生된다고 할 때, 그 틀의 형태와 용도에 대한 把握은 創作보다 先行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점에서 초기의 연구들이 가져다 준 성과는 자못 의미가 크다고 할

4) 朱明姬, 「「傳」의 樣式的 特徵과 小說로의 受容 樣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6
李廷珍, 「「傳」의 敘述樣式과 소설로의 變容에 관한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1993

5) 조태영, 「「傳」樣式的 展開樣相에 관한 研究 -烈女傳 유형과 發展된 逸士傳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
韓鉉洙, 「「傳」樣式的 展開樣相 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4
金容德, 『韓國傳記文學論』, 민족문화사, 1987
郭正植, 「韓國 傳文學의 展開樣相과 特性 研究」, 부산대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朴熙秉, 「한국한문학에 있어 傳과 <소설>의 關係양상」, 『韓國漢文學研究』 12,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수 있다. 더욱이 傳을 독자적이라고 규명한 後者의 연구 성과물이 많다는 것은 傳에 內包한 다양한 발전성을 긍정하며 의미를 부여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傳의 독자성을 밝히고 그친 것이 아니라 傳의 발전가능성에 기대어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각적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必然性을 示唆해준다.

이후 傳에 대한 연구는 樣式이라는 외면적 틀에서 作品이라는 내면적 세계로 나아간다.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時代, 作家, 人物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傳문학의 始初가 三國時代까지 소급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朝鮮後期라는 시대에 산출된 傳⁶⁾에 주목한 연구가 많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傳을 창작한 작가들에 대한 연구⁷⁾가 주목되고 있다. 조선후기라는 시대와 이 시기를 살았던 작가들, 그리고 그들의 傳에 대한 주목은 조선후기의 역사적 기반 위에서 사회는 물론 인간과 문학까지도 生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激變과 混亂의 상황이 不安과 消滅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安穩과 惰性에 젖어 있던 것들을 동요시키고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傳을 창작한 작가들에 대한 연구로 특징적인 것은 개별적 작가의 傳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작가들을 특정 階層이나 學派로 그룹화하고 공통적 속성과 작품 경향을 추출하는 연구⁸⁾가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 또한 조선후기 사회에 주목하여

6) 朴峻遠, 「朝鮮後期 傳의 事實受容樣相 -燕巖·文無子·潭庭의 경우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12,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李東根, 「朝鮮後期 實存人物의 <私傳>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金容男, 「朝鮮後期 「傳」 研究」,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1991

朴熙秉, 「朝鮮後期 傳의 小說의 性向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3

7) 朴箕錫, 「朴趾源의 文學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4

金相烈, 「李鈺의 傳文學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7

鄭炳浩, 「金鑣의 傳 研究」,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9

8) 尹在敏, 「中人 「傳」의 계층적 성격」, 『韓國漢文學研究』 12,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李鐘珠, 「北學派 散文 연구 : 燕巖 朴趾源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1

崔俊夏, 「韓國 實學派 私傳의 研究」,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1992

尹在敏, 「朝鮮後期 中人層 漢文學의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1999

金容男, 「朝鮮後期 中人 作家의 「傳」 研究」,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러한 현상을 당시대가 產生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時代相과 人間像까지도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가 바탕이 되어 傳에 입전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었다. 傳의 입전인물은 시대와 작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입전인물 또한 변모하며 작가의 의식에 따라 입전인물은 取舍選擇되기 때문이다. 傳의 입전인물에 대해서는 人物傳이라는 명칭으로 다각적인 연구⁹⁾가 이루어졌다. 입전인물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그들의 다양한 身分이나 職業, 性格이나 特徵, 그리고 行爲 樣相 등에 맞게 逸士傳·忠臣傳·孝子傳·烈士傳·烈女傳·神仙傳·藝人傳·遊俠傳·奇人傳·醫人傳·乞丐傳·中人傳 등등으로 命名하고 類型化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조선후기 人物傳이 새롭고 다양한 인간 유형들을 문학적으로 수용하여 형상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傳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보면 傳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연구, 조선후기에 산출된 傳문학에 대한 연구, 조선후기를 살면서 傳을 창작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 조선후기의 새롭고 다양한 인물 유형을 입전한 人物傳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巨視的이며 多角的이었던 傳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연구의 시각을 人物傳에 입전된 다양한 인간유형 가운데서도 烈女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 烈女

_____, 「中人 作家의 ‘傳’에 나타난 인물유형」, 『開新語文研究』 17, 개신어문학회, 2000

崔俊夏, 『韓國 實學派 私傳의 研究』, 이회문화사, 2001

- 9) 金均泰, 「朝鮮後期 人物傳의 野談趣向性 考察」, 『韓國漢文學研究』 12,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金權泰, 「朝鮮後期 人物傳과 敘述方式의 變異樣相 試論」, 『崇實語文』 7, 崇實大學校崇實語文研究會, 1990
 朴熙秉, 『韓國古典人物傳研究』, 한길사, 1992
 조태영, 「조선후기 「傳」에서 보는 사회와 자아의 형상-18세기 孝·列傳에 투영된 양상-」, 『韓國文化』 15,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94
 오히정, 「朝鮮後期 醫人傳 研究」,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최윤석, 「조선후기 기인전의 양상과 특성」, 동국대 교육대학원, 2003
 김정일, 「조선후기 여향인물전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03
 김미정, 「조선후기 자혜 인물전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04
 진재교, 『조선 후기 인물전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고전』, 현암사, 2005
 _____ 편역, 『알아주지 않은 삶 : 조선조 후기 傳과 記事 모음집』, 태학사, 2005

傳에 대한 연구였다.

烈女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烈女와 不可分の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理念(烈이념)과 現實(家父長制 社會의 현실) 때문에 이 분야의 대다수 연구는 이것이 여성을 억압하는 機制로서 작용하였음¹⁰⁾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旌表政策과 敎化書, 그리고 개인(男性)적 차원의 烈女傳을 비롯한 女訓書들이 여성들에게 이념을 절대화시키고 家父長制 현실에 종속시킨다고 보았다. 여성들이 이념적 사고로 종속적 삶에 순응토록 하기 위해 여성의 性까지도 사회와 국가가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음을 이들 연구에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념으로서의 烈과 이념의 실천자로서의 烈女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대상 또는 연구 분야로 삼은 것은 說話¹¹⁾, 傳說¹²⁾, 烈女圖¹³⁾, 漢詩¹⁴⁾, 중국의 列女傳¹⁵⁾, 우리나라 기록문헌의 烈女傳¹⁶⁾과 個人文集 所載의

-
- 10) 朴 珠, 『朝鮮時代의 旌表政策』, 일조각, 1990
김혜숙,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 : '禮治' 개념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9, 한국여성학회, 1993
朴 珠, 『朝鮮時代의 孝와 女性』, 國學資料院, 2000
김선경, 「조선 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역사연구』 8, 역사학연구소, 2000
김언순, 「조선 후기 사대부 女訓書에 나타난 여성상 형성에 대한 연구」, 『韓國教育史學』 제 28권 제1호, 韓國教育史學會, 2006
- 11)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화회, 월인, 2002
김대숙, 「구비 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화회, 월인, 2000
이인경, 「口碑 '烈설화'에 나타난 이념과 현실-획절형 '烈설화'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화회, 월인, 2002
- 12) 朴喆榮, 「嶺東地方 孝烈傳說의 研究 : 문헌전설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3) 고연희, 「조선시대 烈女圖 고찰」,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화회, 월인, 2002
- 14)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 서사한시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9, 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南恩暉, 「18, 19세기 漢詩·文에 나타난 女性形象 : 女性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11, 東洋古典學會, 1998
진재교, 「李朝後期 漢詩에 나타난 '烈의 時代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화회, 월인, 2002
- 15) 이혜순, 「『렬녀전』 연구」, 『梨花論文集』 8, 梨花女子大學校韓國語文學研究所, 1986
禹快濟, 「列女傳의 韓·日 傳來와 그 受容樣相 考察」, 『語文研究』 21, 語文研究會, 1991

烈女傳¹⁷⁾ 등과 같이 다양하다. 烈女 설화 및 孝烈 전설에 대한 연구에서는 설화 또는 전설이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烈女의 이야기가 될 때에는 口碑되고 傳承되기까지 하여 이후 烈女像의 模型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烈女圖에 대한 연구에서는 烈女圖가 조선초부터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국가사업으로 간행된 版畫였으며 烈을 이념화하는 수단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烈과 烈女를 다룬 漢詩에 대한 연구에서는 家父長制 사회를 살고 있던 여성을 남성 작가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남성작가의 의식세계와 심미적 표출 방식에 따라 동일한 소재이자 시적대상인 烈이념과 烈女가 異質的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烈女傳에 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傳來된 시기와 翻譯 양상을 살피고 중국 烈女傳의 전통이 후대 여성의 文學과 文化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기록문헌의 烈女傳에 대한 연구에서는 『三國史記』, 『高麗史』, 『東文選』에 실린 烈女傳을 대상으로 성립배경, 찬술자의 태도, 작품 분석 등을 통해 史的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개인문집에 소재한 烈女傳에 대한 연구에서는 烈女傳의 傳統과 變貌에 따라 通時的 또는 共時的으로 烈女の 형상과 烈行의 양상을 살피고 烈女를 입전한 작가의식을 알아보며 烈

최진아, 「견고한 원전과 그 계보들-동아시아 여성 쓰기의 역사-」,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 『列女傳』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禹快濟, 「『列女傳』의 傳統과 女性 文化」, 『우리文學研究』 제16집, 우리文學會, 2003

16) 安仁旭, 「烈女傳 研究」,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7) 이대형, 「조선전기 열녀전 연구」, 『연세어문학』 제26집, 연세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94

_____, 「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4

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 《삼강행실도》에서 조선 후기 <열녀전>까지」, 『震檀學報』 85, 震檀學會, 1998

홍인숙, 「17세기 烈女傳 연구」, 『韓國古典研究』 통권7집, 韓國古典研究學會, 2001

_____,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_____, 「봉건 가부장제의 여성 재현 : 조선 후기 열녀전」, 『여성문학연구』 통권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이혜순, 「열녀전의 立傳意識과 그 사상적 의의」,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2002

임유경, 「李鈺의 烈女傳 서술방식과 烈 관념」,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2002

이혜순·김경미 공저,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이념과 관련하여 烈女傳이 갖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이상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烈女라는 여성인물이 깊이 있게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烈女가 과연 여성인물을 代表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하게도 아닌 것이다. 烈女는 다양한 여성인물의 유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烈女 이외의 여성인물¹⁸⁾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烈女가 갖는 함축적 의미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烈女에게 부과되어 烈女の 象徴이 되었던 그 의미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烈女와 같은 空間에서 같은 時間을 보내며 生存한 다양한 여성인물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까지 考究해 봄으로써 여성인물로서 烈女만의 주목에서 進一步한 연구가 될 것이다. 烈女이념을 그녀들의 현실에서 理想的으로 실천한 여성인물들을 烈女라고 불렀다면, 이념 그리고 현실과 別個로 주체적 自我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여성인물들을 과연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 본고는 이에 대한 苦悶까지도 함께 하고자 한다.

3. 研究對象 및 研究方法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은 어느 특정 시기의 특정 작가에 의해 突出的으로 창작된 문학양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傳에 그 뿌리를 두고 傳문학사의 叢시

18) 정미숙, 「蔡濟恭과 李鈺의 女性傳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임유경, 「任敬周의 여성전에 나타난 작가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집, 한국고전여성문학
회, 월인, 2000
_____, 「『이향견문록』 소재 여성전의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월인, 2003
박성연, 「조선후기 '여성전'의 내용과 찬자분석」,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들의 논문에서 <女性傳>이라고 標題하여, '烈女'이외의 여성인물에 대해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작가적 관점에서, 傳의 창작자로서의 작가, 傳에 나타난 작가의식, 작가에 의해 결정
되는 작품의 성격 또는 내용에 대한 연구로, 烈女 이외의 여성인물에 대한 諸樣相과 이 여성인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에 대해서는 未洽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연구동기의 실마리를 제공해준 연구물들이라고 하겠다.

기에 걸쳐 성장하고 발전해온 餘他 문학에 못지않은 오랜 淵源을 지닌 문학 양식이다. 그래서 烈女를 포함하여 그 외의 여성인물을 입전대상으로 한 작품은 적지 않은 數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效率的인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限定하는 일이 우선적이다. 연구대상을 한정하기 위해 먼저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名稱 및 概念에 대한 規定부터 한다.

우선 烈女傳이란 명칭과 烈女の 개념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따른다. 烈女란 烈이념을 실현한 여성인물을 뜻하며 이러한 여성인물을 입전한 傳을 烈女傳이라고 부른다. 이 烈女를 포함하여 이외의 여성인물까지 입전하고 있는 傳에 대한 명칭은 다양할 수 있다. 입전대상인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女性傳·女人傳·女子傳이라 부를 수 있고 여기에 인물이라는 사실을 추가하여 女性人物傳·女人物傳·女子人物傳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명칭들을 살펴보면 女性傳¹⁹⁾이란 명칭은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이미 보이며, 女人傳의 女人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烈女傳에서 흔히 사용했으며, 女子傳의 女子라는 명칭은 ‘子’가 接尾辭의 쓰임에서 謙遜과 卑下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글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 가운데 가장 적절한 명칭은 女性傳의 女性이라 보인다. 여기서 女性이란 實在하는 여성이었을지라도 작가에게 포착되어 傳에 입전되어야만 의미 부여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의 한 요소로서의 人物과 문학양식인 傳을 합하여 人物傳이란 명칭을 덧붙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女性人物傳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女性人物傳이라고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이어서 규정되어야 할 것은 女性人物傳 유형의 선택이다. 즉, 본고에서는 여성인물을 입전하고 있는 傳을 女性人物傳이라고 하여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 女性人物傳에 여성인물을 입전시키는 작가의 性別이 어떠한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유형은 ① 여성작가의 女性人物傳, ② 남성작가의 女性人物傳이다. 女性

19) 註 18번 참조

人物傳의 작품세계와 입전의식을 살펴보려는 자리에서 여성작가가 여성인물에 대해 동질감을 갖고 형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이 연구대상으로서 가장 魅力的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여성의 문학 활동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傳 작가는 唯一無二했다. 이에 女性人物傳은 두 번째 유형인 남성작가가 여성인물을 입전하고 있는 傳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그렇더라도 첫 번째 유형을 배제하지 않으며 함께 고찰한다. 여성작가라고 해서 한결같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당시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인물을 연민하고 동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작가라고 해서 家父長的 權를 내세우며 이념적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것만도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女性人物傳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시대범위를 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발전되었는지를 考究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傳과 조선후기 人物傳은 물론 烈女傳의 史的 概觀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들을 先行하여 검토하는 가운데에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脈絡을 찾게 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조선후기로 通稱되는 17세기~19세기 가운데서 戰亂의 後遺症에서 벗어나, 改革의 바람이 불기 이전의 시기까지를 연구범위로 한다. 즉, 17세기 후반(1650년대 이후)~18세기 전반(1750년)까지로 한정한다. 이는 前代의 영향권에서 獨自的일 수 있고, 後代의 영향력에서 嚆矢的일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대 설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대체적으로 작가들의 창작활동이 靑·壯年에 旺盛할 것으로 가정하고, 女性人物傳 작가의 誕生年度를 기준으로 하여 抽出²⁰⁾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

20) 14쪽 <표1> 참조. 이와 같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女性人物傳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관점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본고에서는 假傳 작품(6번, 12번)은 일단 論外로 하며 여성인물과 남성인물을 合傳한 傳(3번, 17번, 42번의 ④, 26번, 46번의 ①)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여성인물만 고찰할 것이다. 假傳을 제외하는 이유는 假傳 작품에 형상화된 여성인물은 實存人物이 아니므로 당시의 이념과 현실의 제약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고의 문제의식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人物傳에 논의를 국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서였다. 合傳 작품에서 남성인물을 제외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연구자로서 이 목록의 작품들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고찰

상으로 삼은 기본 텍스트는 『文集所在傳資料集』(金均泰, 啓明文化社, 1986) 4~6권과 『韓國文集叢刊』(民族文化推進會) 163~261집이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입전대상인 다양한 여성인물을 주목하여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未盡하였다고 느끼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시키도록 한다.

II장에서는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豫備的 考察로서 女性人物傳의 概念, 形成時期, 展開樣相, 發展過程을 검토하기로 한다. 연구대상을 한정하는 가운데서 女性人物傳의 명칭과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정하였지만 이는 外面的이며 任意的인 검토에 불과하였다. 이에 女性人物傳이 傳 → 人物傳 → 女性人物傳의 순서로 파생되어 형성되고 성장한 문학으로 보면서 史的 展開를 검토해봄으로써 客觀的인 방식에 의한 妥當한 개념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女性人物傳이 어느 한 시기에 突出한 문학이 아니며 時代와 作家 그리고 類似 문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生成과 消滅을 거치면서 발전적 면모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다는 深度 있는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III장에서는 II장을 통해 糾明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작품세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작품 속에서 여성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여성의 현실과 이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작품세계를 考究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烈女傳에 대한 고찰이 된다. 烈女傳은 女性人物傳의 始初로서 烈女傳이 창작되는 그 순간 이미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誕生은 豫定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과 변모의 과정을 거쳐 오며 烈女傳 내부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諸

하는 것이 이상적인 자세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필자의 力量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어려운 일이며 至難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필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전체의 검토가 꼭 필요한 것도 또 적절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시초인 烈女傳의 검토를 통한 형성배경에 대한 고찰과 女性人物傳의 입전대상인 여성인물의 전반적인 형상, 그리고 이들을 입전한 작가의 대체적인 의식을 조선후기라는 큰 틀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작품들을 유형화하여 몇 작품을 통해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에 만족하며 완벽한 자료 분류에 의한 역사의 재구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問題點들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 다분히 문제제기적 성격을 갖는 烈女傳으로 인해 문제해결의 방향에서 다양한 시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이제 女性人物傳은 烈女傳의 背後에서 前面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시각에서 주목받고 입전되었던 다양한 여성인물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烈女傳의 持續과 變貌에서는 烈行으로 전형화되어 가던 從死와 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烈行이 된 守節, 그리고 사회와 작가에 의해 烈行으로 의미 부여를 받고 있던 여성인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忠孝傳의 變貌와 女性에서는 性別化된 이념을 無化시키고 적극 실천하는 남다른 면모를 보이는 여성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女性形象에의 注目에서는 이념의 실천 與否와 관련하여 獨特하고 非凡한 면모를 보이며 행동한 여성인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보았던 여성인물들을 작가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의도로 입전했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同時代를 살아가며 동일한 여성을 바라볼지라도 작가들의 의식과 의도에 따라 형상화되는 여성인물의 모습은 결코 동일할 수 없을 것이란 斷定 하에 출발한다. 작가의 시각에 의해 포착되고 입전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여성에 대한 關心 또는 肯定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성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手段으로 삼거나 의식을 담는 道具로 이용하는 것은 순수한 관심과 완전한 긍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점은 작가들의 女性認識과 立傳意識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女性人物傳의 입전의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傳統理念의 鼓吹에서는 여성의 烈을 전형적인 표현과 방식으로 찬미함으로서 烈이념을 고취시킨 論贊과 比較 對象을 거론함으로써 敎化의 必要性和 天性의 發現性 그리고 個人의 省察까지 言表하며 이념을 고취시킨 論贊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批判意識의 內在에서는 당시 從死하기가 차라리 편했던 不條理한 현실에의 비판의식을 내재한 論贊과 이와 동일선상에서 여성의 인간적 삶을 不認定하는 家父長制的 구속에의 비

판의식을 내재한 論贊을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人物形象과 意味賦與에서는 이념과 현실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積極的·主體的 自我로 성장하는 여성상과 그에 맞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論贊을 살펴보도록 한다.

V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II장의 女性人物傳의 형성 및 전개를 검토하면서 알 수 있었던 傳史的 脈絡과 III장의 女性人物傳의 작품세계를 살펴 보면서 나타난 여성인물의 형상, 그리고 IV장의 女性人物傳의 입전의식을 고찰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작가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이 갖는 文學史的 意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의 종합적인 반영과 아울러 조선후기의 사회상 및 당시의 여성상을 점검해봄으로써 女性人物傳이 傳文學史에서 어떠한 意義를 갖는지 究明할 것이다. 또한 餘他的 漢文學에서 朝鮮後期的 面貌를 보이는 여성인물을 문학적으로 수용하여 형상화한 양상을 점검해봄으로써 女性人物傳이 어떠한 位相을 갖는지 究明하도록 한다.

VI장에서는 이상의 論意를 요약하고 논의 과정에서 남은 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를 하도록 한다.

〈丑1〉 朝鮮後期 女性人物傳의 作家 및 作品

順番	作者	生沒年代	作品名	順番	作者	生沒年代	作品名
1	徐宗泰	1652~1719	環姥紀事	26	李獻慶	1719~1791	孝烈傳
2	李 栽	1657~1729	洪烈婦傳	27	李匡呂	1720~1783	① 林夫人傳 ② 記李孺人事
3	李萬敷	1664~1732	孝子烈婦忠奴列傳	28	蔡濟恭	1720~1799	① 清風義婦傳 ② 七分傳 ③ 萬德傳
4	李載亨	1665~1741	記戎戕鎮婢李娘事	29	金鍾厚	1721~1780	申氏傳
5	權以鎮	1668~1734	金氏傳	30	任允攀堂	1721~1793	① 宋氏(能相)婦傳 ② 崔洪二女傳
6	趙是光	1669~1740	金奴石婢傳	31	丁範祖	1723~1801	① 鄭氏傳 ② 睦氏婦傳
7	權 渠	1672~1749	① 林孝子 ② 清風義婦	32	趙載道	1725~1749	烈女桂月傳
8	李光庭	1674~1756	① 林烈婦蕪娘傳 ② 二勝傳	33	金相定	1727~1788	金氏義烈傳
9	朴泰茂	1677~1756	義妓傳	34	宋煥箕	1728~1807	① 烈婦尹氏傳 ② 烈婦恭人尹氏傳
10	金民澤	1678~1772	烈婦尙娘傳	35	黃胤錫	1729~1791	烈婦李氏傳
11	鄭來僑	1681~1757	① 吳孝婦傳 ② 翠梅傳	36	具 庠	1730~ ?	崔氏傳
12	林象德	1683~1719	淡婆姑傳	37	俞彥縞	1730~1796	① 百歲夫人傳 ② 濟州五節女傳
13	申 昉	1685~1736	趙節婦傳	38	李種徽	1731~ ?	李節婦金氏傳
14	柳宜健	1687~1760	烈婦孺人河氏傳	39	趙有善	1731~1809	烈女朴氏傳
15	慎守彝	1688~1768	烈婦孺山鄭氏傳	40	俞漢雋	1732~1811	善山二烈女
16	趙龜命	1693~1737	① 賣粉嫗玉娘傳 ② 外祖母贈貞敬夫人李氏傳	41	朴胤源	1734~1799	① 廉節婦傳 ② 劉烈婦傳
17	南有容	1698~1773	孝子朴氏傳	42	金養根	1734~1799	① 安中嫗傳 ② 杜今嫗傳 ③ 太文母傳 ④ 權孝子庶母傳
18	俞肅基	1696~ ?	金孺人傳	43	趙虎然	1736~1807	① 烈婦孫孺人傳 ② 孝烈李孺人傳
19	申 暲	1696~ ?	孝妓斗蓮傳	44	金相進	1736~1811	金孝婦傳
20	尹光紹	1708~1786	① 烈女香娘傳 ② 烈女李孺人傳	45	朴趾源	1737~1805	烈女咸陽朴氏傳
21	申光洙	1712~1775	鄭烈婦傳	46	李德懋	1741~1793	① 銀愛傳 ② 兩烈女傳 ③ 慧女傳
22	申景濬	1712~1781	江華崔氏傳	47	釋應允	1743~1804	朴烈婦傳
23	姜世晋	1717~1786	三孝娘傳	48	黃龍漢	1744~1818	烈婦咸陽朴氏傳
24	任敬周	1718~1745	① 屈氏傳 ② 何氏女傳 ③ 梅竹堂 李氏傳	49	徐澄修	1749~1824	玉英傳
25	安錫徽	1718~1774	朴孝娘傳	作家數：49名			作品數：70篇

Ⅱ. 女性人物傳의 形成과 展開

1. 女性人物傳의 概念과 形成

女性人物傳이란 무엇이고 언제 형성되었으며 전개·발전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人物傳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人物傳의 概念·形成時期·展開樣相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傳의 정의부터 알아야 한다. 즉 傳→人物傳→女性人物傳의 순서대로 파생된 장르로 본 것이다. 이에 傳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人物傳의 개념과 형성시기 및 전개양상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人物傳의 검토가 끝나가는 가운데 女性人物傳의 개념과 형성시기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傳이란 司馬遷의 『史記』 「列傳」 이래 한자문화권에서 고유하게 발전되어 온 문학장르로서 한 인물의 一代記를 서술하면서 그것을 일정한 관점에서褒貶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²¹⁾ 이 司馬遷의 『史記』에서 확립된 列傳體라는 인간 중심의 역사기술방식은 이후 私傳²²⁾은 물론 家傳²³⁾에 있어서도 그 典範이 되었다. 이 私傳 또는 家傳의 同一線上에서 人物傳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니 人物傳이란 實存했던 인물의 삶을 서술한 傳을 말한다. 곧, 인간의 역사적 삶을 일정한 가치태도 하에 집약적으로 再現하는 記述樣式이라고 할 수 있다. 人物傳의 주인공은 항상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인간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자기가 통과하는 시대의 역사에 대해 반응한다는 점에서 역사內 인간으로 파악하는 장르이다.²⁴⁾ 이

21) 朴熙秉, 『韓國古典人物傳研究』, 한길사, 1992, 9쪽

22) 私傳이란 列傳의 구속을 벗어나 傳 작성자가 자유로운 견지에서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과 문제의식을 발휘하기 위해서 쓴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私傳이 文士나 學者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후기에 이르러서였다. 이 무렵 逸士傳 유형이 확립되고 忠孝傳, 烈女傳 등도 잇달아 씌어졌다.(朴熙秉, 앞의 책, 339쪽, 349쪽)

23) 家傳이란 넓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 어떤 個人에 대한 私傳, 즉 文士의 傳이라는 뜻이 되며(徐師曾, 『文體明辯』 중의 '傳'참조),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 一家門의 傳이 된다.(朴熙秉, 앞의 책, 85쪽)

러한 傳의 개념과 그에서 파생된 人物傳의 개념을 바탕으로 人物傳의 형성 시기와 전개양상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13세기 초까지 傳의 성격은 高僧傳과 正史의 「列傳」으로 兩大別 될 수 있다.²⁵⁾ 이 시기의 立傳 대상은 오직 高僧大德의 僧侶에 국한되었고 작가는 敬虔한 태도로 傳을 撰述한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에서부터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하여 從來 傳의 公式性和 敬虔性에서 벗어나 순전히 私的·文藝的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작가들은 창작욕구라는 자기 내면의 문학적 동기에 의해 傳을 쓰게 되었고 高僧이나 政治家 등의 사람들보다는 역사 속에서 자기대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 사람들을 주목하였다. 이에 본격적인 人物傳은 高麗後期~朝鮮初期인 12세기 말~13세기에 성립하여 14세기 말~15세기 초에 이르도록 발전·확립되어간 새로운 성격의 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麗末鮮初의 人物傳의 전개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 시기는 新進士類가 성장하여 新興士大夫 계급을 형성해 가는 역사적 전환기로 이들에 의해 지어진 人物傳²⁶⁾ 중에는 자기성찰과 자신에 대해 정당화하는 면모가 발견된다. 이는 신흥사대부의 자기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正體性에 대한 점검, 자기의식의 정립을 위한 내면적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면적 모색이 끝나자 외면의 세계

24) 朴熙秉, 앞의 책, 99쪽, 127쪽

25) 문헌으로 확인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傳은 元曉(617~686)의 <慈藏傳>이며, 뒤이어 8세기 초경에는 金大問의 <高僧傳>이 나왔다. 元聖王(785~798)대에 緣會는 원효의 스승이었던 朗智의 傳記인 <朗智傳>을 지었으나 이들 傳은 모두 전하지 않는다. 新羅人으로 傳을 지었음이 확인되는 사람은 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崔致遠(857~?)으로 그는 <浮石尊者傳>, <釋利貞傳>, <釋順應傳>등 화엄승려들의 傳을 찬술하였다. 高麗時代에 들어와서는 朴寅亮(?~1096)의 <普德傳>과 均如大師 門徒의 부탁으로 撰한 <均如傳>이 각각 11세기에 씌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12세기 중엽에 王命에 의해 金富軾(1075~1151)에 의해 『三國史記』 「列傳」이 편찬되며 뒤이어 13세기 초에는 覺訓이 『海東高僧傳』을 撰集하였다. 이외에도 대체로 8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찬술된 것으로 판단되는 傳들로서 『三國遺事』에 제목만 전하는 것으로 <元曉師傳>, <釋寶壤傳>, <梵日傳>, <郁面傳>, <良志法師傳>, <眞表傳>등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9~10쪽)

26) 『東文選』에 수록된 傳으로 李奎報(1168~1241)의 <白雲居士傳>, 崔滄(1287~1340)의 <峴山隱者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18~29쪽)

에 관심을 쏟으면서 적극적으로 묘사하기에 이른다. 이들 작품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① 그 하나는 자기계급 성원에 대한 사대부 작가의 愛情과 連帶를 보이고 있는 작품²⁷⁾으로 입전인물에 顯達之士도 있고 失意之士도 있지만 모두 작가와 交遊하던 작가 주변의 신흥사대부 소속의 인물들이며 작가는 이들에 대해 강한 계급적 紐帶를 표현하고 있다. ② 다른 하나는 新儒學이라는 신흥사대부의 이념을 宣傳·鼓吹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작품²⁸⁾으로 忠·孝·烈 등의 美德이 적극 표창되고 佛敎나 巫俗 등 異端에 대한 반대투쟁이 사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③ 마지막 하나는 신흥사대부계급 이외의 하층신분의 德性을 발견·제시하고 있는 작품²⁹⁾으로 많지 않으며 작가의 신유학 이념에 의해 하층신분의 實體가 屈折되어 포착된다는 제약을 갖고 있지만 14세기 후반의 역사적 변혁기에 신흥사대부계급이 하층신분의 美德과 존재를 새로이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고려후기~조선초기의 人物傳을 살펴보았다. 여말선초 人物傳은 發興하는 사대부 계급의 문학으로서 신유학 이념에 사상적 기반을 둔 것으로 그 역사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人物傳은 사대부계급이 통치했던 朝鮮朝에 들어와 그 전성기를 맞게 된다. 조선조 사대부의 文集 가운데 人物傳이 실리지 않은 것이 없음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렇게 볼 때 여말선초는 그 이전 시대와 조선시대의 結節點이자 조선조에서 전개되는 人物傳의 典範을 마련한 시기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여말선초 人物傳의 성격이 조선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

27) 李奎報(1168~1241)의 <盧克清傳>, 李穡(1328~1396)의 <宋氏傳>·<吳全傳><朴氏傳>·<草溪鄭顯叔傳>·<崔氏傳>·<白氏傳>·<鄭氏家傳>, 李崇仁(1340~1392)의 <草屋子傳>, 權近(1352~1409)의 <儒生裴尙謙傳>, 鄭以吾(1354~1434)의 <星主高氏家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33~53쪽)

28) 李穀(1298~1351)의 <節婦曹氏傳>, 李穡(1328~1396)의 <草溪鄭顯叔傳>, 李崇仁(1340~1392)의 <裴烈婦傳>, 鄭道傳(1352~1409)의<鄭沈傳>, 權近(1352~1409)의 <司宰少監朴强傳>·<優人孝子君萬傳>, 李詹(1345~1405)의 <守禪傳>, 鄭以吾(1354~1434)의 <烈婦崔氏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53~70쪽)

29) 鄭道傳(1352~1409)의 <鄭沈傳>, 權近(1352~1409)의 <優人孝子君萬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71~76쪽)

다.

15세기~16세기 후반, 즉 壬丙兩亂 이전까지를 朝鮮前期로 본다. 조선전기의 지배계급은 功臣 중심의 勳舊派와 지방 中小地主 출신의 士林派의 兩세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정치·사상·학문적 차이로 인해 형성된 대립구조는 宣祖(1552~1608)대에 사림과의 지배가 최종 확립되면서야 해체되었다. 이에 조선전기 人物傳을 훈구파·사림파 계열의 것으로 大別해서 고찰하게 할 만큼 영향을 끼쳤다. 이를 살펴보면 15세기에는 훈구파·사림파의 人物傳이 공존하여 개인문집에 수록되었다. ① 훈구파에서는 老莊의 지향에 입각한 작품³⁰⁾으로 無欲과 無營의 老莊思想을 원용하여 權貴化되고 있던 훈구세력의 무제한적인 貪慾에 반대와 비판을 제기하였다. ② 사림파에서는 節義의 문제를 다룬 작품³¹⁾으로 世祖의 왕위찬탈이 던진 이념적 충격 앞에서 士의 자세와 節義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였다. 또한 道學傳³²⁾을 창작하여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정립·심화시키면서 국가권력을 장악해 갔다. 烈女傳³³⁾은 兩系派에서 모두 창작되었는데 성리학자들의 烈女傳은 烈女の 행위에 심원한 道學的 해석을 가하면서 전통적 이념으로서 貞烈을 한껏 미화해 놓았다. 16세기에는 사림파에 의해 주도적으로 人物傳이 창작되었으며 16세기를 특징짓는 몇 차례의 土禍³⁴⁾에 관련된 인물들의 방대한 集傳이 두드러졌다.³⁵⁾ 사림파는 傳이 갖는 역사 기대성을 극대화시켜 후대

30) 成侃(1427~1456)의 <慵夫傳>, 成侃(1439~1504)의 <金就盈傳>·<眞逸先生傳>·<浮休子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109~116쪽)

31) 金時習(1435~1493)의 <豫讓傳>·<伍員傳>·<諸葛亮傳>·<岳飛傳>·<文天祥傳>과 南孝溫(1454~1492)의 <許詡傳>·<六臣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124~135쪽)

32) 道學傳이란 道學者의 傳으로서 道學은 宋代에 성립된 性理學을 일컫는다. 金時習(1435~1493)의 <周敦頤傳>·<邵雍傳>·<張載傳>·<程顥傳>·<程頤傳>, 崔忠成(1458~1491)의 <山堂書客傳>, 鄭仁弘(1535~1623)의 <尹堪傳>, 河沆(1538~1590)의 <吳德溪傳略>, 金成一(1538~1593)의 <退溪先生史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136~147쪽)

33) 烈女傳이란 烈女の 傳으로서 烈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과 IV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 烈女傳으로는 姜希孟(1424~1483)의 <洪節婦傳>, 宋翼弼(1534~1599)의 <銀娥傳>, 成渾(1535~1598)의 <銀娥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165~167쪽)

34) 戊午土禍(1498), 甲子土禍(1504), 己卯土禍(1519), 乙巳土禍(1545)가 발생했다.

의 역사가 자신들의 피해와 억울함, 그리고 정당함을 알아줄 것을 바라며 集傳의 형식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 시기는 고려후기의 신흥계급이 조선왕조의 지배계급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더 이상 자기인식이나 자기계급에의 애정과 연대를 보이는 작품, 逸士傳³⁶⁾과 같은 작품들은 나타나지 않으며, 兩 계파 내부의 문제나 정치적 입장 등을 새로이 傳으로 창작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사대부계급의 기본사상이었던 신유학 이념은 시대상황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로 나타났다. 고려후기가 전환기적 성격에 말미암아 하층의 힘이 부각될 수 있었던데 반해, 조선전기는 비교적 안정기로서 지배층의 주도하에 역사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하층신분의 발견은 또 다른 전환기적 성격이 나타나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야 다시 보게 된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조선전기 人物傳을 살펴보았다. 조선전기 人物傳은 이제 확실하게 지배계급이 된 사대부 문학으로서 이데올로기화한 성리학 이념을 根底로 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말선초에 마련된 人物傳의 성격을 수용하고 비교적 안정된 시대상황에 맞추어 변용한 것이다. 이 점에서 조선전기 人物傳은 왕조 교체기인 고려후기나 중세 해체기인 조선후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문학사적 특성이 있다.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인 조선전기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主動因이라면 壬丙兩亂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변화를 맞이한 조선후기 人物傳의 성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35) 南袞(1471~1527)의 <柳子光傳>, 李彥迪(1491~1553)의 <沙伐國傳>, 柳成龍(1542~1607)의 『戊午黨籍』(24人的 集傳), 金正國(1485~1541)의 『己卯黨籍』(94人的 集傳), 安瑤(16세기 후반)의 『己卯錄補遺』(129人的 集傳), 未詳의 『己卯錄續集』(9人的 集傳), 李士溫(16세기 후반)의 『乙巳傳聞錄』(88人的 集傳), 金育(1580~1658)의 『己卯諸賢傳』(221人的 集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149~162쪽)

36) 逸士傳은 立傳 인물들이 모두 남다른 뜻이나 재능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불행하게 생을 끝마쳤다는 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그 인물이 지닌 獨特한 性癖과 氣質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연적인 不運이나 거역할 수 없는 運命의 탓일 수도 있다. 그 서술이 똑같은지는 않지만, 그들이 성취의 삶이 아니라 좌절의 삶을 살다 갔다는 점에서는 똑같았다.(朴熙秉, 앞의 책, 41쪽)

17세기~19세기, 즉 壬丙兩亂 이후 開化期 이전까지를 朝鮮後期로 본다. 이 시기 人物傳의 가장 큰 특징은 입전인물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입전인물은 주로 忠臣·孝子·烈女와 같은 지배이념에 부합하는 규범적인 인간상이었다. 조선후기에도 이러한 인물들은 계속 입전되지만 神仙者流·異人·藝人·遊俠과 같은 獨特한 인물과 乞人·商人·農民·醫員·妓女와 같은 市井의 인물들이 새롭게 입전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① 우선 神仙傳³⁷⁾을 살펴보면 17세기 초에는 仙家思想에 경도된 작가가 신선에 대한 열렬한 동경에서 창작하였으나,³⁸⁾ 18~19세기에 이르러 好奇(好奇)의 문예취향의 작가들이 神仙者流의 사회적 실체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창작하기에 이르렀다.³⁹⁾ 神仙傳에 입전된 인물들은 한결같이 조선조의 지배 질서에 포용되지 못하고 仙術을 통해 放達하고 超脫한 삶을 추구했던 인간 유형⁴⁰⁾으로 異人⁴¹⁾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人物傳을 통해 조선조의 지배 질서에서 疏外된 사람들의 존재방식을 알 수 있다. ② 다음으로 藝人傳⁴²⁾을 살펴보면 17세기 중엽의 문학예술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예술가의

37) 神仙傳은 神仙의 傳으로서 神仙이란 古來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관념된 不老長生の 상상적 인간을 말한다.(朴熙秉, 앞의 책, 187쪽)

38) 吳道一(1645~1703)의 <薛生傳>, 李德宇(1673~1744)의 <李德宇傳>, 李鉦(1760~1812)의 <浮穆漢傳>, 愼後聃(1702~1761)의 『續列仙傳』, 純陽子(18세기 중·후반)의 『補海東異蹟』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215~219쪽, 234~238쪽)

39) 好奇趣向이 작가의 합리적 의식이나 현실인식과 결합됨으로써 일정한 역사적 방향성을 갖는 작품으로는 朴趾源(1737~1805)의 <金神仙傳>, 丁若鏞(1762~1836)의 <曹神仙傳>, 趙秀三(1762~1849)의 <鬻書曹生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219~226쪽) 또한 庶孽 혹은 中人 신분 작가가 神仙者流를 대개 奇才異節을 지닌 閭巷의 불우한 人士로 이해하며 그들에 깊은 연민을 표시하거나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작품으로는 趙熙龍(1789~1866)의 <金神仙傳>·<曹神仙傳>·<申斗柄傳>, 柳本學(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의 <金風憲傳>·<金光澤傳>·<李廷楷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226~231쪽)

40) 이 점에 있어 方外人과 神仙의 部類의 인간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17세기 이래 조선후기의 神仙傳은 方外人의 敍事的 受容이라 말할 수 있다.(朴熙秉, 앞의 책, 187쪽)

41) 異人이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고 잘 드러내지 않는 인간부류를 지칭한다. 異人에는 仙人만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인간도 있으므로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朴熙秉, 앞의 책, 255~256쪽)

42) 藝人傳은 藝術家의 傳記에 해당한다.(朴熙秉, 앞의 책, 338쪽)

自意識이 성장해 갔고⁴³⁾ 이러한 동향에 주목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에 이르러 藝人傳이 성립되었다. 이후 18세기~19세기 후반에 이르도록 활발히 창작되었는데 18세기의 작품⁴⁴⁾이 문제제기적이며 문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면, 19세기의 작품⁴⁵⁾은 문제의식은 떨어지지만 조선후기 藝人들의 傳을 집성하려는 의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된다. ③ 마지막으로 조선후기 遊俠傳⁴⁶⁾을 살펴보기로 한다. 17세기 후반 경부터 遊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18~19세기에 고조된 遊俠 숭상의 분위기⁴⁷⁾는 市井의 서민세계는 물론이고 사대부사회에까지 과급되었다.⁴⁸⁾ 이러한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遊俠的 美德과 氣節을 본받게 하여 遊俠的 習俗이 사회

43) 조선전기의 예술 수용층은 王室을 중심으로 한 양반사대부 세계에 한정되었다. 그림의 경우 국가기관인 圖書署의 畫工들에 의해, 음악의 경우도 국가기관인 掌樂院의 樂工들에 의해 충족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음악 소비집단이 양반귀족만이 아니라 중인층과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형성되었다. 이에 歌客과 樂師가 등장하여 중인층의 음악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화화양식에도 서민 취미의 수많은 俗畫와 春意圖, 民畫가 발달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는 예술활동의 물질적 기반이 이전처럼 왕실과 사대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閭巷으로까지 넓혀지고 있었던 것이다.(朴熙秉, 앞의 책, 340~347쪽)

44) 李起淳(1602~1662)의 <宋慶雲傳>(樂師), 鄭來僑(1681~1757)의 <金聖基傳>(악사)·<畫師金鳴國傳>(畫家), 南有容(1698~1773)의 <金聖基傳>(악사)·<金鳴國傳>(화가), 柳得恭(1748~1807)의 <柳遇春傳>(악사), 南公轍(1760~1840)의 <崔七七傳>(화가), 李鈺(1760~1812)의 <歌者宋蟋蟀傳>(歌客), 丁若鏞(1762~1836)의 <張天慵傳>(화가)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355~401쪽)

45) 趙熙龍(1793~1880)의 『壺山外記』에 실린 <金弘道傳>(화가)·<崔北傳>(화가)·<崔在寬傳>(화가)·<田琦傳>(화가)·<金永冕傳>(화가)·<林熙之傳>(화가)·<張友壁傳>(가객), 劉在建(1835~1922)의 『異鄉見聞錄』에 실린 <金不染子喜誠>(화가)·<秦畫師再矣>(화가)·<金復軒應煥>(화가)·<李古松流水館寅文>(화가)·<金兢齋得臣>(화가)·<張畫師漢宗>(화가)·<李畫師潤民>(화가), 金允植(1835~1922)의 <琴師李元永傳>(악사)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402~417쪽)

46) 遊俠傳은 遊俠의 傳記로서 遊俠이란 武로써 法을 범하고 권위를 무시하지만 言信行果의 행동규범에 입각하여 弱者와 厄困한 자를 도와줌에 있어서는 자신의 生死를 돌보지 않고 또 자신의 功績과 才能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廉潔退讓의 德을 지닌 인간에 대한 지칭이다.(朴熙秉, 앞의 책, 276~277쪽)

47) 조선후기 봉건사회질서의 혼란과 동요는 국가 公權力에 대한 民人的 不信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公認된 기존의 도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그에 대체될 새로운 私的 질서와 윤리의 형성이 요구되었는데 이를 떠맡고 나선 존재가 바로 遊俠이었다. 조선후기 遊俠은 민간 질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던 공권 지배력을 대신하여 是非의 分辨, 正義의 守護者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遊俠은 국가질서의 파괴자로 인식되었지만 시정인의 입장에서 볼 때 遊俠은 民間之雄으로서 민간질서와 민간의 私의 윤리를 유지시켜 주는 支柱의 존재였다.(朴熙秉, 앞의 책, 298~299쪽)

48) 蔡濟恭(1720~1799)의 <李忠伯傳>, 朴趾源(1737~1805)의 <廣文者傳>을 통해 알 수 있다.(朴熙秉, 앞의 책, 294~295쪽, 309~311쪽, 315~316쪽)

적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갔다. 그 결과 遊俠에 彷彿한 인물들이 貧民層·商工人層·中胥層 뿐만 아니라 兩班層 등 각계각층에서 나왔다. 이렇게 성립된 遊俠傳⁴⁹⁾은 18~19세기의 문학현상으로 파악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상으로 人物傳의 형성과 전개를 살펴보았다. 人物傳은 신홍사대부에 의해 여말선초에 성립되어 고려후기라는 왕조교체기 속에서 토대를 마련하였고 조선전기라는 안정기 속에서 성리학 이념을 통해 확고하게 다져지다가 조선후기라는 중세해체기를 맞이하여 오히려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前代 人物傳의 성격을 수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대 상황에 맞게 변용하면서 발전해 왔던 人物傳이야말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자화상이자 그 당시 사회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人物傳을 각 시대를 대표하여 多數 창작되었던 인간유형별로 命名하여 정리해보면 ① 여말선초의 逸士傳, ② 조선전기의 道學傳 즉, 忠臣傳·孝子傳·烈士傳·烈女傳, ③ 조선후기의 神仙傳·藝人傳·遊俠傳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이들을 놓고 여성과 관련된 人物傳을 찾아보면 烈女傳 하나 밖에 없어 보인다. 조선후기 人物傳의 입전인물이 다양화되어 남성인물은 逸士·忠臣·孝子·烈士에서 나아가 仙人·異人·藝人이었던 樂師·畫家·歌客, 그리고 遊俠까지 주목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인물은 여전히 烈女만으로 국한되고 있었던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여성인물도 남성인물 못지않게 다양한 인간유형이 입전되고 형상화되었다. 이에 이러한 여성을 입전한 人物傳도 다양하게 命名할 수 있음에도 烈女만이 부각되어 나타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하나는 조선조가 性

49) 鄭來僑(1681~1757)의 <林俊元傳>, 申昉(1685~1736)의 <金萬最傳>, 李鉉(1760~1812)의 <張福先傳>, 趙秀三(1762~1849)의 <乾坤囊>·<金五興>, 未詳의 <金好古齋洛瑞>, 趙熙龍(1789~1866)의 <張五福傳>·<千興喆傳>, 張之琬(1806~1858)의 <金大涉傳>, 金允植(1835~1922)의 <權兼山傳>이 있다.(朴熙秉, 앞의 책, 303~309쪽, 311~315쪽, 317쪽~318쪽)

50) 조선후기 人物傳은 여말선초의 逸士傳과 조선전기의 忠臣傳·孝子傳·烈士傳·烈女傳을 포함하며 이외에도 조선후기적 특징으로 인한 입전인물의 다양화에 따라 命名하기 나름으로 傳의 명칭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앞서 살펴본 작품들에 한해서 언급하였다.

理學 理念을 바탕으로 한 家父長制 社會로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烈이념에 고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數的으로 烈女를 입전한 烈女傳은 多數였음에 비해 그 外의 여성을 입전한 人物傳은 少數였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당연히 烈女傳의 強勢 속에서 기타의 여성을 입전한 人物傳은 劣勢가 될 수밖에 없었다. ② 다른 하나는 여성인물의 다양한 인간유형이란 性別化된 남성·여성의 영역과 이념의 구분을 無化시키며 創出된 여성상을 말하는데,⁵¹⁾ 이러한 여성은 기존의 平凡한 여성상을 넘어 獨特하고 非凡함에까지 이르고 있어 어떤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여성인물들은 烈女만큼 修飾되고 浮刻되지 못한 채 文士들의 個人文集 속에 대부분 姓氏+傳 또는 姓名+傳의 형식으로 標題하여 실렸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선후기 사회상의 變貌와 작가의식의 轉換에 의해 다양한 女性人物傳이 產生될 수 있었으나 여전히 舊角에 의해 여성을 바라보고 그에서 벗어나는 여성은 等閑視 하였던 분위기 때문에 烈女の 多産과 表彰이 成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烈女傳의 出現시기를 살펴보면 고려후기를 上限으로 하여 조선후기까지를 下限으로 하고 있어 人物傳의 흐름과 그 脈을 같이 하고 있다. 이로써 비록 烈이념에 限하기는 했지만 여성을 입전하여 작품화한 사실은 人物傳의 창작층⁵²⁾과 입전대상이 대부분 남성이었음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烈女傳이 형성된 이후 多産되었다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烈女傳의 바탕 위에서 다양한 女性人物傳이 창출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1) 예컨대, 남성의 權限으로 觀念化된 영역인 사회에의 진출과 남성의 典型으로 고정화된 이념인 忠까지 실현하는 여성을 일컫는다. 追後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는 당시 家父長制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의 영역과 이념에 도전한다기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현실을 인식하고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52) 人物傳의 작가를 時代別·階層別·性別로 간단히 살펴보면, 여말선초·조선전기에는 士大夫 남성작가에 국한되어 傳문학은 양반문학이자 귀족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사대부 남성작가는 물론이고 閭巷人과 女性까지 傳의 창작층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女性人物傳은 人物傳의 맥락 안에서 烈女傳을 始初로 하여 형성된 여성인물의 傳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을 입전한 始初라고 할 수 있는 烈女傳에서부터 여성인물유형이 다양하게 입전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 이르기까지 前代의 어떤 점을 수용하고 변용했으며 그 전개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2. 女性人物傳의 展開와 發展

女性人物傳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성인물 입전의 始初인 烈女傳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여성의 유형 중 하나인 烈女를 중심으로 하여 이념으로서의 烈, 이념의 실현으로서의 烈行, 烈女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각 시대별 烈女傳의 성격규명은 물론이거니와 烈女傳 자체에서 지속과 변모를 보이기 시작하여 새롭고 다양한 女性人物傳의 創出 기반까지 마련해 준 의의도 갖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烈女란 改嫁할 수 있는데도 改嫁하지 않은 여인⁵³⁾을 의미했으나 烈女の 개념이 ‘烈을 수행한 烈女’와 ‘女人列傳이란 列女’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국 烈女傳의 古本으로 간주되는 劉向(B.C77~B.C6)의 『列女傳』⁵⁴⁾은 여인열전이란 列女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史書에 烈女傳이 포함된 것은 조선초에 간행된 『高麗史』이며 世宗朝

53) 戰國時代 齊나라 王蠋이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라는 말로 자신의 節義를 표명했고, 『詩經』 「鄘風」의 <柏周>는 共姜이 改嫁를 거부하는 내용이다. (이혜순·김경미 공저,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13쪽)

54) 劉向(B.C77~B.C6)의 『列女傳』은 중국 역대의 모범적인 혹은 경계해야 할 여성들에 대한 傳記集이다. 「母儀」, 「賢明」, 「仁智」, 「貞順」, 「節義」, 「辯通」, 「孽嬖」 등의 일곱 개 유형으로 여성을 분류하고, 총 104명에 대한 행적을 기술하였다. 그 대략의 내용은 「母儀傳」에서는 남편을 잘 보필했거나 아들 교육을 잘 시킨 여성들, 「賢明傳」에서는 事理에 밝고 是非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여성들, 「仁智傳」에서는 識見과 재능이 있는 여성들, 「貞順傳」에서는 禮儀·規範을 철저히 지킨 여성들, 「節義傳」에서는 節介와 義理를 실천한 여성들, 「辯通傳」에서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유연하게 사건에 대처할 줄 아는 여성들, 「孽嬖傳」에서는 음탕하고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여성들의 행적을 실었다. (정재서, 「열녀전의 여성 유형학」,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 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에 편찬된 『三綱行實圖』에는 烈女圖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달리 列女 대신 烈女를 직접 쓰기 시작하였다. 이는 列女보다 烈行을 한 烈女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이다.⁵⁵⁾ 이를 통해 중국 烈女를 수용하여 우리나라 烈女로 변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烈行을 이데올로기化 하려 한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烈女の 개념을 바탕으로 각 시대별 烈女傳의 전개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15세기 이전을 살펴보면 ① 『三國史記』에 삼국·통일신라기의 烈女 범주에 들어가는 여성인물⁵⁶⁾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이들을 직접적으로 烈女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행위는 約束移行·毀節拒否·復讎·從死 등으로 후대 烈女傳의 모형을 거의 보여 준다. 다만 이 시기 이들이 보여준 烈行은 이념적 행위라기보다 인간의 보편적인 人情에 기초한 것이었다. ② 『高麗史』를 통해서 고려조의 여성들이 變故⁵⁷⁾를 당해 烈女가 됨을 알 수 있다. 곧 倭寇로부터 節義를 지키기 위해 自決 또는 被殺된 여성들과 火災나 虎患으로부터 남편을 구하기 위해 獻身한 여성들이 烈女에 포함되었다.

15세기~16세기, 즉 壬丙兩亂 이전까지를 살펴보면 ① 『三綱行實圖』 「烈女篇」을 통해 烈行과 여성의 죽음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

55) 중국 劉向의 『列女傳』 중에서 우리나라의 『三綱行實圖』에 채택된 인물이 모두 11명인데, 劉向이 분류한 유형 중 가장 많이 채택된 것은 貞順 유형이 7명이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15~16쪽)

56) 『三國史記』에 실린 薛氏女·都彌妻·昔于老妻·朴堤上妻가 있다. 설씨녀는 信義를, 도미의 아내는 節行을 지킨 대표적 여성이다. 석우노의 아내는 醉中 농담이 화근이 되어 남편이 倭人에게 불태워 죽임을 당하자 왜인들을 유인하여 술을 먹고 불태워 죽인다. 비록 남편의 원수를 갚았으나 變而非正이란 비판을 받은 점에서 극단적인 행위로서 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제상의 아내는 남편이 倭國으로 떠난 후 남편에 대한 사모함을 이기지 못해서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죽은 여성이다. 이는 남편을 따라 죽은 여성(從死)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19~20쪽)

57) 『高麗史』 「烈女篇」에 “집에 있으면 賢女가 되고 남에게 시집가면 賢婦가 되며 變故를 만나면 烈婦가 되어 亂에 입하여 날카로운 칼날을 무릅쓰고 死生으로써도 그 志操를 바꾸지 않을 자” 라고 하였다. 이 시기 變故에는 倭寇·火災·虎患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倭寇가 월등하게 많아 고려말 왜구의 침입이 여성에게 가장 참혹한 재난을 준 變故였음이 드러난다.(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삼강행실도》에서 조선 후기 <열녀전>까지」, 『震檀學報』 85, 震檀學會, 1998, 166쪽)

다. 이는 조선조에 들어와 烈女가 이념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⁸⁾ ② 이 시기의 文士들이 개별적으로 입전한 烈女傳⁵⁹⁾에는 남편 死後 守節⁶⁰⁾하면서 神主를 모시고 살거나 謹身하며 폐쇄적 삶을 사는 유형과 시부모와 자식을 돌보면서 남편 대신 집안의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며 齊家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16세기 말~17세기 전반, 즉 壬丙兩亂 직후에는 烈女가 數的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고려말 倭賊과 紅巾賊 등의 침입시 烈女가 많이 나왔듯이 이 시기도 日本과 民族主義 침입이 잦았던 때로 戰爭이 烈女를 배출하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여성들은 毀節될 위기에 처해 自決하거나 끝까지 저항하다 被殺되었으며 포로가 되어 異國에 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많았다. 이 시기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이 烈女傳⁶¹⁾에서 나타난다.

17세기부터 전형적인 모습의 烈女傳⁶²⁾이 등장한다. 17세기 이전에는 남편 死後 廬幕살이를 하거나 神主를 모시고 謹身하며 사는 여성들이 주목 받

58) 『三綱行實圖』 「烈女篇」 110편 중 自決 45편, 他殺 29편으로 殉節이 74편이나 되어 守節 15편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三國史記』의 <都彌傳>과 『三綱行實圖』의 <彌妻啖草>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 <都彌傳>에서 都彌가 가난한 서민이지만 자못 의리를 알았다고 한 서두와, 왕에게 ‘인간의 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을, <彌妻啖草>에서는 생략하여 여성의 烈行은 남편의人品과 상관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절대화시키려는 편찬자의 의도를 보여준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21쪽)

59) 15세기 姜希孟(1424~1483)의 <洪節婦傳>, 16세기 成渾(1535~1598)의 <銀娥傳>, 宋翼弼(1534~1599)의 <銀娥傳>이 있다. <洪節婦傳>은 남편 死後 廬幕살이와 남편의 神主 모시기를 한 평생 지속한 守節 여성을 보여준다. <銀娥傳>은 남편 死後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謹身한 하층 여성의 守節을 보여준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116~120쪽, 369~381쪽)

60) 守節이란 남편 死後 살아남아 改嫁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 約婚만 했거나 또는 마음을 許한 남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 그를 위해 一生 결혼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32쪽)

61) 丁酉再亂 때 節死한 여성을 입전한 작품으로는 李廷旻(1541~1600)의 <三節婦傳>, 羅海鳳(1584~1638)의 <二烈女傳>, 李榮仁(1611~1669)의 <朴娘傳>·<崔娘傳>이 있다. 포로가 되었던 여성을 입전한 작품으로는 申欽(1523~1597)의 <金蟾傳>·<李良女傳>이 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47~56쪽)

62) 金德謙(1552~1633)의 <故吳秀才孀妻尹氏傳>, 李竣(1560~1635)의 <楊烈婦傳>, 金幹(1646~1732)의 <烈女宋氏傳>이 있다. <故吳秀才孀妻尹氏傳>을 통해 몸소 남편의 장례와 제사를 마치고 죽은 여성의 전형, <楊烈婦傳>·<烈女宋氏傳>을 통해 남편 死後 목숨을 끊은 여성의 전형을 볼 수 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199~201쪽, 206~210쪽, 264~268쪽)

았다. 죽은 남편은 거의 종교적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殉節⁶³⁾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 남편을 따라 죽는 殉節 烈女가 없었다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守節이 烈女로 표창된 것은 17세기까지는 가능했다. 그러나 점차 17세기부터 殉節 의식이 대두하면서 烈女와 죽음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시작한다. 아직은 17세기적 殉節로서 子息이 없는 여성에게서 이루어지며 죽음이 烈行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⁶⁴⁾

18세기는 烈女傳이 盛行하면서 그에 따른 變貌와 歪曲이 나타난다. ① 우선 殉節이 父母와 子息이 있는 여성⁶⁵⁾에게도 나타나 18세기적 殉節은 烈女像의 변모를 보여준다. 즉, 殉節하는 여성들이 속출하면서 未亡人을 罪人視하고 守節이 烈女の 범주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여 표창된 예가 드물게 되었다.⁶⁶⁾ 이 시기의 殉節이 前代와 가장 큰 차이는 여성의 죽음이 남편 死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⁶⁷⁾ 이러한 遲延된 殉節은 媳父母 奉養이나 子息 養育,⁶⁸⁾ 그리고 가족들이 喪禮의 어려움을 들어 직접

63) 殉節이란 남편 死後 아내가 따라 죽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淸의 康熙帝는 공식적으로 殉節을 금하는 命을 내린 바 있으나(淸『聖祖實錄』卷135), 오히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殉節한 여성만을 烈女로 정했다. 殉節에 대한 조정의 공식적 인정은 결과적으로 殉節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35~37쪽)

64) 柳夢寅(1559~1623)의 <烈女鄭氏傳>을 들 수 있다. 남편 死後 守節한 여성이었으나 烈女로 標題하였던 점에서 알 수 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121~124쪽)

65) 李萬敷(1664~1732)의 <孝子烈婦忠奴列傳>, 柳宜健(1687~1760)의 <烈婦孺人河氏傳>이 있다. 李氏는 남편이 病死하면서 3세 된 아이가 10세 되었을 때 從死해도 좋다는 말을 남겼고 李氏는 7년 후에 自決했다. 河氏는 遺腹子가 미음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가 젖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기뻐하며 自決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211~214쪽, 348~351쪽)

66) 鄭在弼의 <烈婦孺人梁氏傳>, 趙龜命(1693~1737)의 <賣粉嫗玉娘傳>이 있다. <烈婦孺人梁氏傳>의 梁氏는 未亡人으로 자처하고 평생을 고행하듯이 살아갔다. 작가는 남편을 따라 죽지 않아 旌閭를 받지도 못한 양씨의 일이 문혀 사라질 것을 애석해하여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였다. <賣粉嫗玉娘傳>의 賣粉嫗와 玉娘은 자신을 좋아하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죽은 후 그를 위해 守節했으나 烈女로 標題되지 못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125~127쪽, 388~393쪽)

67) 李萬敷(1664~1732)의 <孝子烈婦忠奴列傳>이 있다. 일반적으로 卒哭, 三年喪 등이 끝난 후 殉節하려는 것은 이미 前代에 보이기는 했지만 이처럼 7년 후의 여성의 從死란 새로운 양상의 殉節이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348~351쪽)

68) 趙虎然(1736~1807)의 <烈婦孫孺人傳>·<孝烈李孺人傳>이 있다. 시어머니와 자식을 위해 殉節을 지연한 예로 아들이 죽은 후 시어머니를 부탁할 사람이 있게 되자 自決한 여성들이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226~231쪽, 358~361쪽)

해 주기를 바라는 주변의 요청에서 기인되었다. 이를 저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여성들을 不孝不慈로 비판⁶⁹⁾하는 文士들이 나타난 것도 이 시기부터로 보인다. ② 다음으로 이 시기에는 貞節 모해에 맞선 烈女傳⁷⁰⁾이 주목된다. 여성에게 가장 큰 시련은 貞節 모해로서 여성의 殉節은 자신의 貞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潔白을 입증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는 여성들에게 貞節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③ 또한 18세기는 香娘의 시대로 특징지어진다. 살아서 자신을 버린 남편에게도 節義를 지키고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죽음을 택한 여성을 烈女로 기림으로써 節義의 개념이 이전보다 더욱 일방적으로 엄격하고 절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18세기에 와서 죽음은 烈女와 不可分の 관계로 성립된다. ④ 한편으로 18세기는 烈女の 從死가 증대되면서 生烈女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나타나는 兩面性을 보여준다. 남편 死後 살아남은 生烈女는 삶보다 차라리 죽음이 더 편했을 상황에서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⁷¹⁾로 그 유형도 다양화된다. 이는 過度한 殉節 氣流에 대한 비판과 殉節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⑤ 마지막으로 18세기 무렵에서야 남편을 殺害한 원수를 갚는 復讎⁷²⁾가 烈女傳에 편입되어 긍정된다.⁷³⁾

69) 徐慶昌(19세기 초반)의 <嶺南孝烈婦傳>, 李鉦(1760~1812)의 <峽孝婦傳>이 있다. 이 여성들은 시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살아남아 孝慈를 모두 이루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140~154쪽)

70) 李時善(1625~1715)의 <烈女洪氏傳>, 李裁(1657~1729)의 <洪烈婦傳>, 朴胤源(1734~1799)의 <廉節婦傳>, 李德懋(1741~1793)의 <銀愛傳>·<慧女傳>이 있다. <烈女洪氏傳>과 <洪烈婦傳>은 同一 여성을 입전한 작품으로, 여성이 모해를 밝히기 위해 가족과 대결하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수치를 감행했다. <廉節婦傳>의 廉氏는 남편이 자신의 貞節을 모해하는 惡少年의 말을 믿자 이를 관가에 고소하여 결백을 밝히고자 한다. <銀愛傳>의 銀愛는 자신의 貞節을 모해한 娼女 출신의 노파를 죽인다. <慧女傳>의 慧女는 자신의 貞節을 모해하려 한 사람이 後母였음을 밝혀 신랑이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풀게 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57~105쪽)

71) 俞肅基(1696~?)의 <金孺人傳>, 朴趾源(1737~1805)의 <烈女咸陽朴氏傳>, 李鉦(1760~1812)의 <生烈女傳>이 있다. <金孺人傳>에서는 親家와 媿家가 滅門되는 상황에서 가문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살아남아야 했던 여성을 보여준다. <烈女咸陽朴氏傳>에서 寡婦는 밤마다 忍死符라고 부른 동전을 굴리며 죽고 싶은 욕망과 외로움을 참으면서 자식을 키웠다. 그녀의 姓氏조차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生烈女들의 고뇌가 보여진다. 이와 달리, <生烈女傳>은 살아서 旌表를 받은 유일한 여성으로 남편의 병을 위해 자기 살을 베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309~315쪽)

72) 復讎란 무고하게 살해된 지아비의 원수를 찾아 갚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무고한 죽음은 노비와의 관계에서 발생했다. 노비가 주인을 살해하고 부인이 원수를 찾아 복수하는 작품으로는 權以鎭

복수는 19세기 이후 더욱 많아지는데 이것은 18세기부터 烈女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 되었던 소극적 면모에서 남편의 원수를 찾아 보복하는 적극적인 여성들로 변모·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초~20세기 초에는 ① 여성이 한 집안의 代를 잇는 것이 중시되고 이를 반영한 烈女傳⁷⁴⁾이 등장한다. ② 입전대상으로서의 烈女를 살펴보면 18세기까지는 신분의 高下를 不問하고 지아비의 한 아내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妓女 계층까지 확대되어 그녀의 節死를 烈女傳⁷⁵⁾에서 기린다. ③ 또한 烈女の 烈行 범위가 18세기에는 殉節의 경우에 從容就死했다고 표현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毀節의 위협을 보여준 자들에게까지 行義合中했다고 표현하고 있다.⁷⁶⁾ 이것은 이전까지 남편의 죽음 앞에서 熱烈하게 從死하고 살아도 거의 죽음 같은 守節을 하며 毀節의 위협 앞에서 秋霜 같은 꾸짖음을 보였던 烈女像에서 또 다시 달라진 모습인 것이다. ④ 그리고 보편적인 獻身⁷⁷⁾이라고 할 수 있었던 烈行의 범위를 확대시킨 또 다른 烈女傳

(1668~1734)의 <金氏傳>, 金養根(1734~1799)의 <權孝子庶母傳>이 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36~37쪽, 158~161쪽)

73) 남편의 죽음이 노비에 의한 것이 아닌 그 외의 작품으로는 任允摯堂(1721~1793)의 <崔洪二女傳>, 金澤榮(1850~1927)의 <烈女車尙敏妻金氏朴頌柱妻黃氏高俊實妻宋氏傳>이 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37쪽, 155~157쪽)

74) 徐有槩(1764~1845)의 <金朴二烈婦傳>이 있다. 金烈婦는 아이를 낳지 못했으나 三從이 끊어졌으며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부모와 시부모를 哀戚하게 하는 大不孝로 간주하여 自決하고, 김씨의 올케 朴烈婦도 남편의 장례를 끝내고 舅姑의 병이 낫자 自決한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451~457쪽)

75) 洪直筆(1776~1852)의 <妓瓊春傳>, 田愚(1841~1922)의 <田不關傳>이 있다. 처음 守廳 든 사람을 위해 후임 관리의 수청을 거부하다 끝내 自決한 妓女를 보여준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429~439쪽)

76) 洪奭周(1774~1842)의 <關北烈女傳>이 있다. 관북 출신의 여성이 客死한 남편의 屍身을 고향으로 옮길 때, 그녀의 美色을 탐한 한 富者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작가는 이 여성이 부자의 惡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은혜를 힘에 다해 갚은 점을 칭찬하며 ‘義理를 행하며 中庸에 맞는 자(行義而合中者)’라고 하였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425~428쪽)

77) 獻身이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부인이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여성의 결혼 자체가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을 위해 殉節하는 것은 물론이고 萬事를 폐하고 오직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남은 생애를 보내는 삶 역시 헌신이다. 烈女傳의 烈女는 한결같이 남편이 병들면 沐浴齋戒하고 자신의 남편을 代身하여 죽기를 기원하거나 이것 역시 헌신적 행위이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37~38쪽)

에서는 남편을 위한 여성의 犧牲을 통해 남성 중심의 의식과 여성 身體와 生命의 경시 풍조를 엿볼 수 있다.⁷⁸⁾

이상으로 烈女傳의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각 시대별 烈女가 보인 烈行을 따라 살펴본 결과 삼국·통일신라기에는 人情에 기초한 烈女像을 볼 수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變故에 대처하는 烈女像을 볼 수 있었으며, 壬丙兩亂 이전 조선전기에는 守節한 烈女像을 볼 수 있었다. 戰亂을 겪은 이후부터 여성의 죽음이 나타났는데 고려말과 壬丙兩亂시에는 毀節에 대한 저항으로 自決 또는 被殺된 烈女像을 볼 수 있었다. 壬丙兩亂 이후 조선후기에는 戰亂의 영향이 없었음에도 남편을 따라 죽는 殉節(從死) 烈女像이 나타난다. 이후부터 殉節이 전형화 되면서 조선후기 말에 이르도록 烈女の 의미와 烈行의 양상까지 변질되기에 이른다. 결국 개화기에 가까워지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롭고 다양한 烈女傳들이 이어진다. 이처럼 烈이 시대에 따라 이념화되면서 烈女の 烈行 양상 또한 極端으로 치달으며 많은 變質과 歪曲을 낳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러한 당시를 살아가던 烈女는 비극의 표상으로 인간으로서의 剝奪과 여성으로서의 從屬의 전형이었지만 한편으로 여성의 존재 가치를 심각하게 인식시킨 의의를 보여준다. 따라서 烈女傳은 여성의 현실 속에서 그녀들이 걸어온 軌跡과 지향한 意識을 더듬어 보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烈女傳과 同軌에 놓여 시대에 따라 함께 전개되고 발전되었지만 烈女傳 만큼 부각되지 못하고 개인문집 속에 자리하고 있던 것이 바로 少數의 女性人物傳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념적 시각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그에서

78) 犧牲이란 여성이 ① 남편을 위해 죽었으나 남편은 살아남은 경우와 ②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내어 구워 먹이거나 無名指를 잘라 그 피를 입에 흘려 넣어주는 일 등을 의미한다. 前者로는 成海應(1760~1839)의 <書烈女宋氏事>, 趙熙龍(1797~1859)의 <嚴烈婦傳>이 있다. <書烈女宋氏事>의 宋氏는 남편이 죽는 줄 알고 自決했으나 남편은 살아났고, <嚴烈婦傳>의 嚴氏는 남편이 병이 심하자 시어머니가 점쟁이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惡煞이 있어 죽으면 남편이 살 수 있다고 해서 自決했는데 남편의 병이 나아 烈婦로 기림을 받았다. 後者로는 李鉦(1760~1812)의 <生烈女傳>, 田秉淳(1816~1890)의 <烈婦商山朴氏傳>, 鄭在弼의 <烈婦孺人鄭氏傳>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남편을 위한 여성의 犧牲이 어디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465~468쪽)

벗어나는 여성은 등한시 하였던 분위기 때문에 烈女傳이 성행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烈女傳이 전개되는 가운데서 烈女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인간적 시각에 의해 점차 새롭고 다양한 여성인물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의 변화와 작가 의식의 전환이 밑바탕 되었기 때문에 더욱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다음 III장에서 戰亂의 영향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정착되는 조선후기 사회인 17세기 後半을 始點으로 하여 開化의 물결을 맞이하여 또 다시 전환기적 성격을 보이기 이전까지인 18세기 前半을 終點으로 하여 女性人物傳을 살펴본다. 다 같은 조선후기이면서 17세기 전반과 18세기 후반을 배제하는 이유는 시대별 성격의 혼재양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는 假定 때문이다. 즉, 17세기 전반이 朝鮮 前·後期の 혼재양상을 보인다면, 18세기 후반은 朝鮮末·近代初의 혼재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에 순수하게 조선후기 사회가 정착된 지점과 해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女性人物傳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전자에서는 烈女傳의 고찰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후자에서는 女性人物傳의 후대 영향을 짐작해 보게 될 것이다.

Ⅲ. 女性人物傳의 作品世界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은 前代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지속은 물론 변화와 새로운 모습까지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는 조선사회가 전통적 이념을 중시한 사회로서 조선 前·後期 시대상의 변화와 함께 이념에 대한 시각 차이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빚어진 현상이다. 조선사회에서 전통적 이념이란 忠·孝·烈이 될 것이며, 조선 前·後期 시대상의 변화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前期에서 壬丙兩亂을 겪은 이후의 혼란해진 後期 사회에서 나타나는 諸樣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념에 대한 시각 차이란 무엇인가. 이에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 입전된 여성인물을 중심에 놓고 이념에 대한 시각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忠·孝·烈이념과 여성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이념을 실천하는 여성 주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성의 현실 속에서 이념의 실천 양상은 어떠한지, 그렇다면 이념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여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될 것이다. 前代에서 여성인물을 입전한 작품으로 烈女傳이 다수 창작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烈이념을 먼저 살펴보고 뒤에 忠·孝이념을 보도록 한다.

1. 烈女傳의 持續과 變貌

烈女傳의 지속과 변모를 살펴보기에 앞서 烈女와 烈行의 의미를 규정하기로 한다. 辭典的 정의로 烈女란 志操가 굳은 여자, 殉節한 여자⁷⁹⁾를 말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烈女傳 속의 여성을 살펴본 결과 烈行이란 剛正하고 節操가 있으며 義를 무겁게 여기고 生을 가볍게 여긴 여성의 행위⁸⁰⁾로 규

79) 李家源·安炳周, 『大漢韓辭典』, 교학사, 2005

80) 안인옥은 烈女란 剛正하고 節操가 있으며 義를 무겁게 여기고 生을 가볍게 여긴 여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행위를 필자는 烈行으로 보았다.(安仁旭, 『烈女傳 研究』,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8~9쪽)

정할 수 있다. 殉節 與否는 조선 前·後期 烈女의 烈行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烈行의 의미를 규정하는데 넣지 않았다. 이로 보아 이 殉節 與否의 차이가 조선후기 烈女傳의 烈行 양상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殉節 與否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殉節보다는 從死⁸¹⁾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烈的 지속과 변모의 측면에서 시기별로 烈을 실천하게 되는 배경과 烈을 판단하는 기준, 烈을 실천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전기에는 烈을 실천하게 되는 배경이 남편의 죽음이었고 烈을 판단하는 기준은 節概를 지키는 것이었으며 烈을 실천하는 양상은 守節이었다. 戰亂 직후에는 외적의 위협이 배경이 되었고 貞節을 보호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었으며 죽음으로 그 실천 양상이 나타났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남편의 죽음이 배경이었다는 것은 조선전기와 같지만 죽음이 판단 기준과 함께 그 실천 양상으로 나타났다⁸²⁾는 것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조선후기 烈의 판단기준이자 동시에 실천 양상으로 나타나는 죽음이란 여성의 從死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전기에는 남편이 죽었어도 평생을 改嫁하지 않고 守節하는 것만으로도 烈을 실천한 것이 되었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守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從死하는 것이 烈을 실천한 것이 되었음을

81) 이대형은 조선 이전의 烈女傳을 節義型, 조선전기의 烈女傳을 守節型이라고 하였으며 壬亂이후에 節死型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節死型을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 貞節을 위협할 만한 위협이 가해졌을 때 貞節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죽음을 택한 경우를 殉節型, 그러한 위협이 없어도 所天으로 여겨졌던 남편을 잃어 존재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죽는 경우를 從死型이라고 명명하고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유형의 측면에서 殉節型이 보편적 윤리에 가깝다면, 從死型은 부부간 수직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발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의거하여 從死라는 명칭을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이대형, 「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4, 18~19쪽)

82) <烈行의 배경상황과 기준 및 烈行 양상>

	조선 전기	전란 직후	조선 후기
烈行의 배경 상황	남편의 죽음	외적의 정절 위협	남편의 죽음
烈行의 판단 기준	절개를 지킴	정절을 보호	죽음(신체 훼손)
烈 윤리의 수행 양상	수절	죽음	죽음(신체 훼손)

(홍인숙,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1, 17쪽)

알 수 있다. 이러한 烈의 실천은 분명 조선전기와는 변화된 것으로 결국 烈의 실천은 죽음이라는 공식을 낳으며 典型化 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조선후기의 烈의 실천 양상은 전기와는 변화된 모습이었지만, 조선후기라는 상황 속에서는 전형화 된 모습으로 지속되어 가는 면모를 보인다. 여성들이 烈을 실천하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점에서 그 양상이 같은 모습으로 전형화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조선후기 烈女傳 속에서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점차 또 다른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에서 離脫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형에서 이탈한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烈女傳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烈行이 從死로 전형화 되어 가는 것을 비판하면서 烈行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 이상 여성의 從死만이 烈의 실천 양상이 될 수 없었다. 다른 하나는 烈의 실천을 위해 죽음을 택한 여성이 아니었는데도 他者에 의해 烈의 실천으로 규정되는 烈行의 對頭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죽음을 烈이념과 연결 지으려는 지배적 사고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조선전기 烈女傳에서의 가치로서 의미 있었던 烈이념이 조선후기 烈女傳에서도 그 가치로서 의미 있게 나타나지만 그 실천 양상에서 차이가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烈女傳의 持續이라는 측면과 烈女傳의 變貌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烈女傳의 持續에서는 從死의 典型化라는 標題하에 전형적인 烈行으로 자리매김해 가던 從死 烈女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烈女傳의 變貌에서는 새로운 烈行의 擡頭라는 標題하에 전형적인 烈行에서 이탈 하는 두 가지 모습이었던 守節 烈女와 自決 女性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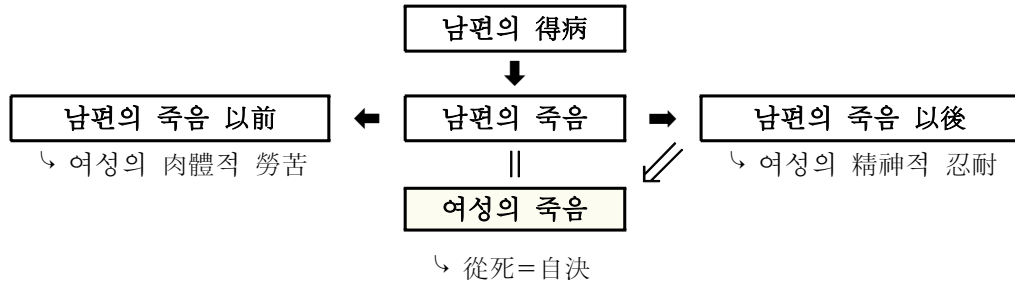
1) 從死의 典型化

조선전기의 傳에서 유일하게 여성인물을 입전한 작품은 烈女傳이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 烈女傳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조선 전기에는 여성인물의 烈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모아졌다. 조선전기의 여성들이 烈行만을 보인 것이 아니었을 텐데도 烈에만 초점을 맞추어 입전한 烈女傳을 통하여 전통적 성격이 강한 조선전기 傳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전기의 전통은 후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여성을 입전한 작품들은 烈女傳이라는 명칭으로 산출된다. 곧 조선후기의 烈女傳은 烈女傳이란 명칭과 烈이념이라는 소재를 이어 받아 지속적으로 산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烈女傳의 持續을 크게는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烈女傳이 지속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면, 작게는 조선후기라는 상황 속에서 전형적인 烈行的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후기 烈女傳에서 烈의 실천 양상은 從死로 전형화 되어 갔다. 이 전형적인 烈行的 양상은 대체적으로 烈의 실천 배경인 남편의 죽음의 원인이 病으로 나타나고 남편의 죽음을 前後로 하여 여성의 육체적 勞苦와 정신적 忍耐가 보이며 최후에 여성의 죽음이 이루어진다.⁸³⁾ 夫死 이전의 여성은 자신의 육체적 수고로움과 고통까지 감수하며 남편에 대해 지극정성을 보이며 夫死 이후의 여성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과 從死의 결심이 현실적 상황과 주어진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과 상충하며 정신적 인내를 보인다. 이렇게 전형적인 烈行的 양상을 圖式하여 나

83) 홍인숙은 烈女傳의 일반적인 서술단락을 ① 烈女와 남편의 家系, ② 烈女の 어려서의 성품·행적, ③ 烈女の 시집에서 행적·평가, ④ 남편의 得病과 烈女の 헌신적인 간호, ⑤ 남편의 죽음과 烈女の 自決(自決시도 - 自決)이라고 한 바 있다.(홍인숙, 앞의 논문, 18쪽) 이것은 조선후기 烈女傳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필자가 선정한 연구대상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烈女傳의 서술단락 분석에 비중을 둔 것이 아니라, 조선 前·後期の 烈女傳에 立傳된 여성이 보인 烈行 양상의 지속과 변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烈女傳의 일반적인 서술단락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에서 벗어나 烈의 판단기준과 烈의 실천양상으로서 조선후기에 전형화 되어가던 從死 즉, 여성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典型的인 烈行의 樣相

위의 圖式을 간단히 말한다면 여성의 烈行은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病을 發端으로 하여 남편의 病 수발로 인한 자신의 육체적 수고로움과 고통을 감수하며 展開되다가 남편의 죽음이라는 危機를 맞게 되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과 從死의 결심이 현실 상황과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과 상충하며 自意와 他意에 의한 여성 자신의 정신적 인내가 드러나는 絶頂을 지나서야 여성의 從死가 이루어지며 結末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은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종속되며 여성은 夫死를 전후로 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烈의 실천자가 된다. 다음의 烈女傳 작품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 ① 申光洙 (1712~1775) <鄭烈婦傳> ② 丁範祖 (1723~1801) <鄭氏傳>
- ③ 宋煥箕 (1728~1807) <烈婦恭人尹氏傳> ④ 黃胤錫 (1729~1791) <烈婦李氏傳>
- ⑤ 朴胤源 (1734~1799) <劉烈婦傳> ⑥ 趙虎然 (1736~1807) <烈婦孫孺人傳>
- ⑦ 趙虎然 (1736~1807) <孝烈李孺人傳>

위의 작품들에서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다음에 제시된 引用文들을 통해서 남편의 得病을 알 수 있다. 남편의 病名이 무엇인지 發病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단지 짤막하게 得病한 사실만이 기술되고 있다.

- ① 다음 해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날로 심해졌다.⁸⁴⁾
- ② 얼마 안되어 남편이 **병들었는데** 병이 더욱 심해졌다.⁸⁵⁾
- ③ 얼마 안되어 韓君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왔다.⁸⁶⁾
- ④ 남편이 **병이 든지** 여러 해였다.⁸⁷⁾
- ⑤ 하루는 남편이 홀연히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해가 가면서 더욱 위독해졌다.⁸⁸⁾
- ⑥ 그 해 겨울 孝悅이 처가에 오는 길로 **병이 들더니** 날로 위독해졌다.⁸⁹⁾
- ⑦ 다음 해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은 **병으로**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⁹⁰⁾

이렇게 짚막하게 남편의 得病한 사실만을 제시하는 것은 여성의 烈行이 중시되기 때문으로 남편의 病名과 發病의 원인에 대한 비중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추후에 여성이 烈을 실천하게 되는 배경인 夫死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夫死 이전에 이루어지는 여성의 육체적 수고로움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다.

- ① 鄭氏は **醫藥을 쓰지 않은 것이 없었다. 氷雪 가운데 목욕하고 새벽 저녁 이슬에 기도** 하며 옷의 띠를 풀고 쉬지 않았다.⁹¹⁾
- ② 鄭氏は **정성을 다해 藥을 주고** 간호했으며, 때로 **氷雪 가운데 목욕하고 하늘에 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하기를 6개월이었다.⁹²⁾
- ③ 恭人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 돌아가 구원하길 간청하였다. 돌아가서는 밤낮으로 근심하며 깨끗이하여 **기도한지가** 거의 일년이 되었다.⁹³⁾
- ④ 아침저녁으로 **몸소 藥을 달이는데 법도대로 오직 정성껏 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였고, 병이 위독해지면 **매일 沐浴齋戒하여** 몰래 자신의 몸으로 **대신하길 기원하였다.**⁹⁴⁾

84) 居明年。夫忽感疾。病日深。(『石北先生文集』卷15, <鄭烈婦傳>)

85) 未幾。夫寢疾。病益甚。(『海左先生文集』卷39, <鄭氏傳>)

86) 未幾韓君病報至。(『性潭先生集』卷30, <烈婦恭人尹氏傳>)

87) 自夫有疾而病既有年矣。(『頤齋遺藁』卷22, <烈婦李氏傳>)

88) 一日夫忽臥疾。閱歲益篤。(『近齋集』卷22, <劉烈婦傳>)

89) 其冬。孝悅亦來即病。日危篤。(『舊堂先生文集』<烈婦孫孺人傳>)

90) 翌年。舉一男。夫病竟不起。(『舊堂先生文集』<孝烈李孺人傳>)

91) 鄭氏醫藥。靡不極至。沐浴冰雪中。晨夕露禱不解衣。(『石北先生文集』卷15, <鄭烈婦傳>)

92) 鄭氏藥餌將護盡其誠。或冰雪中沐浴禱天。若是者六月。(『海左先生文集』卷39, <鄭氏傳>)

93) 恭人不肯而懇請歸家。既歸晝宵憂焦。嘗糞露禱殆經一年。(『性潭先生集』卷30, <烈婦恭人尹氏傳>)

94) 又夙夜對證。躬藥餌專精如法。不容晷刻爽。病且革則日齋沐浴禱。願以身代。(『頤齋遺藁』卷22, <烈

- ⑤ 劉氏는 손수 藥을 붙들고 간호하여 밤새 잠을 자지 않았고, 혹 귀신에게 기도하여 남편 대신 죽기를 바랐다.⁹⁵⁾
- ⑥ 孺人이 자기 몸으로 대신하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하였다.⁹⁶⁾
- ⑦ 얼마 뒤에 亨基의 목에 종기가 나서 뱀을 많이 먹어야 했는데, (그녀가) 늘 먼저 맛을 보았으며 또 하루에 3번씩 종기를 빨아 고름을 빼주었다.⁹⁷⁾

이와 같이 夫死 이전에 여성은 病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藥을 달이고 먹이는 것은 물론이고 ⑦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뱀도 직접 맛보기도 하며 병든 남편의 곁에서 晝夜로 수발을 들고 있다. 이에 더 나가서 沐浴齋戒하고 기도하며 자신이 대신하게 해 달라고까지 한다. 이 같은 모습을 통해 여성의 육체적 수고로움과 고통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육체적 고통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묵묵히 남편을 돌보는 모습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夫死는 여성에게 크나큰 傷心이자 哀痛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夫死 이후에 여성은 곧바로 죽을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 이후에는 또 다른 정신적 갈등과 인내의 상황을 낳게 한다. 다음에서 夫死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성의 정신적 忍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① 6개월쯤 지나 남편이 죽자 이로부터 鄭氏는 매일 남편을 따라 죽기를 맹세하여, 먹지 않고는 날마다 울리는 물만 여러번 마실 따름이었다. (...) 鄭氏는 “아! 슬프구나. 내 죽으면 누가 남편의 장례와 제사를 맡아 하리?” 이에 억지로 죽을 마시며 아침저녁 祭奠을 몸소 모두 돌보았다.⁹⁸⁾
- ② 마침내 英祖 49년 癸巳年 5월에 죽으니 곧 따라 죽기로 결심하고 밥을 먹지 않고 목숨을 끊으려 했다. (...) 이에 크게 한숨을 쉬면서 억지로 멀건 죽을 먹으며 겨우 죽지 않았다. 빼만 남은 삭정이 같은 몸으로 정신이 빠져서도 朝夕의 祭床에는 반드시

婦李氏傳>)

95) 劉氏躬執藥扶護。徹宵不寐。或潛禱鬼神。請代夫死。(『近齋集』卷22, <劉烈婦傳>)

96) 孺人日夜祝天。乞以身代。(『舊堂先生文集』<烈婦孫孺人傳>)

97) 未幾。亨基患項腫。多服蛇。輒先嘗。又日三吮。以去惡。(『舊堂先生文集』<孝烈李孺人傳>)

98) 凡六月而夫死。自是日矢從死。絕不飲食。日進水數吸。(…) 鄭氏曰。噫。吾而死。誰當主吾夫葬祭者。於是始強進粥飲。朝夕祭奠。无不躬視。(『石北先生文集』卷15, <鄭烈婦傳>)

남편이 좋아하는 것으로 했으나, 제 철 음식이 있을 때에는 시부모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했다.⁹⁹⁾

③ 孝悅은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孺인이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났다. (…)마침내 따라 죽기로 결심하고 만동서에게 말했다. “제가 오늘까지 참고 견디며 구차하게 살아온 것은 오로지 죽은 남편의 한 점 혈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또 그를 앗아가니 제가 무엇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다만 시부모님께서 늙도록 아들이 없는데 눈 앞에서 不孝를 저지르니 큰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러나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일은 만머느리에게 있으니,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마침내 밤중에 돌아가면서 지키니 유인이 문득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세상에는 나처럼 薄命한 사람도 간혹 있으니 잠시 세상에 머물며 養子라도 들인 뒤에 죽어야 죽은 남편에게 할 말이 있겠지.” 하고 氣色이 곧 평소와 같아졌다.¹⁰⁰⁾

④ 李氏는 쌀 한 톨 입에 넣지 않고 울부짖으며 따라 죽으려 하다가 하루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말했다. “지금 늙은 시어머니의 집에 계시고 꿰땀이가 강보에 있으니 내 죽음은 慈愛와 孝道에 크게 걸리는 것이다. 차마 그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직접 물을 길고 방아를 찼으며, 힘써 배를 짜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들을 돌보아 길렀다. (…)
“(…) 그러나 시어머니 年歲가 팔순을 바라보는데 시아주머니와 조카는 다 홀몸이요, 달리 시어머니를 모실 시누이나 동서도 없으며 또 집은 너무도 가난하다. 내가 죽으면 우리 年老하신 시어머니가 어떻게 입고 드시겠는가? 죽을 수도 없구나.” (…)
오직 부지런히 일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그의 온 정성을 쏟았다.¹⁰¹⁾

이에서 볼 수 있듯이 夫死 이후에 여성은 따라 죽을 것을 결심했다. 그래서 물과 밥을 먹지 않으면서 죽으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현실을 돌아보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도 했고 주위에서 그러한 역할을 인지시켜 주기도 했다. 따라서 意志와 現實 속에서 갈등하다가 곧 自意에 의해 죽음을 연기하고 他意에 의해 요구받았던 의무와 역

99) 夫竟以當宁四十九年癸巳五月亡。遂立決下殉。不穀垂絕。(…)於是太息強稀粥。勵能無死。而骨柴立就漸。朝夕之奠。必以夫所嗜。遇時物猶以舅姑之餘。(『頤齋遺藁』卷22, <烈婦李氏傳>)

100) 孝悅意不勝疾。孺人屢絕僅甦。(…)遂決下從意。語伯姒曰。吾所以隱忍苟活。以至今日者。只爲此亡夫一血塊。天且奪之。我生何待。但尊舅姑老無子。不孝於日前。大罪也。然終養在冢婦。吾意決矣。(…)遂迭狀守夜半。孺人忽自慰曰。吾誤矣。如吾薄明。世或有之。姑留於世。可立嗣以歸。有辭於亡夫。氣色卽自若。(『舊堂先生文集』<烈婦孫孺人傳>)

101) 李氏粒米不入口。號絕欲下從。一日。忽幡然曰。今老姑在堂。一塊在襁。吾之死。大關慈孝。是可忍也。遂親井臼。力紡織。以養姑撫育遺孤。(…)但姑年望八。夫兄與兄子俱鰥。無他姊姒之養姑。而家又窶甚。吾死則何以衣食吾老姑。吾不可以死。(…)惟服勤就養。竭其誠意。(『舊堂先生文集』<孝烈李孺人傳>)

할을 수행하면서 정신적 인내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와 역할은 남편의 장례 및 제사, 자식 양육, 시부모 봉양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내의 삶이라고 한 것은 처음의 따라 죽을 결심이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희미해질 수도 있었는데 여성 스스로가 노력하고 인내하며 결국 결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간 뒤에 이루어진 여성의 죽음은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 ① 다음날 恭人이 약을 먹고 죽었으니 4월 초 8일이었다. 5일 전에 갑자기 아버지께 “100일이 멀지 않았네요.” 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우연한 말로 알고 캐묻지 않았다가 이에 이르러 날을 세어 보니 남편이 죽은 후로부터 마침 100일째였다. 藥 그릇의 곁에는 7폭의 遺書가 있었다.¹⁰²⁾
- ② 虞祭가 끝난 후 끝내 從容히 스스로 絶命했으니 수가 서른여섯에 그쳤고, 딸 하나가 있었다. 대개 그 (자살)계획을 결정함이 안으로는 확실히 하고 밖으로는 느슨하게 보여 시부모가 그렇게 주밀하게 방비하지는 않았다가 이에 이르러 놀라 황급히 구원하려 했으나 이미 미치지 못했다. 혹시나 소생하기를 기원하다가 나흘이 지나서 염을 했는데, 모습이 완연히 변하지 않으니, 원근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다.¹⁰³⁾
- ③ 3년 뒤 비로소 시조카가 장가들어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씨가 신부의 등을 쓰다듬으며, “이런 신부라면 우리 어머님을 잘 모실 수 있겠구나.” 하고 신부에게 “할머니께서 연로하시니 오직 정성껏 잘 모셔다오.” 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틈을 타서 밤에 침실로 몰래 들어가 목을 매고 죽었다.¹⁰⁴⁾

이와 같이 여성은 약을 마시기도 하고 목을 매기도 하며 從容히 죽기도 한다. 그들이 선택한 수단과 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죽음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夫死를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한 것으로 남편이 죽는 그 순간 자신은 이미 죽었어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2) 翌日恭人飲藥而逝。卽四月初八日也。前五日忽謂父曰百日不遠矣。父認以偶言而未知提問。至是計其日數。自夫亡至此適滿百日矣。藥器之傍。有遺書七幅。(『性潭先生集』卷30, <烈婦恭人尹氏傳>)

103) 虞祭訖。竟從容自絶。壽止三十六。有一女。蓋其定計內確外緩。舅姑不甚周防。至是驚惶急救。已無及矣。猶冀或生。越四日乃殮。而貌宛狀不變。遠邇莫不酸涕。(『頤齋遺藁』卷22, <烈婦李氏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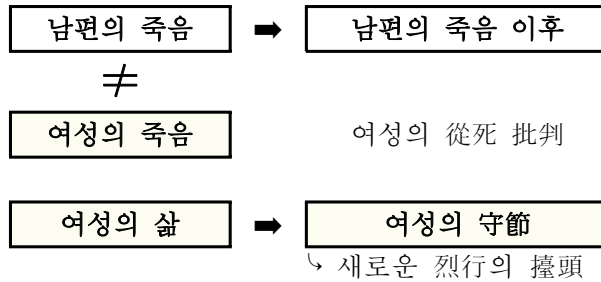
104) 越三年。而夫之兄子。始娶婦入門。李氏撫新婦背曰。新婦如此。足養吾姑。因申申語新婦曰。尊姑老。惟至誠善養。遂乘間。夜潛入寢房。引頸而絶。(『舊堂先生文集』<孝烈李孺人傳>)

이상으로 조선전기의 전통을 이어 창작된 조선후기 烈女傳 속에서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이 되어간 從死와 從死 烈女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烈의 실천 배경인 夫死는 病에 의해서 기인했으며 夫死의 前後로 하여 여성의 육체적 勞苦와 정신적 忍耐가 보이며 최후에 여성의 죽음인 從死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조선후기라는 동일한 공간 속에서 동일한 소재인 烈이념을 사용하면서도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새로운 烈行의 對頭

앞서 典型的인 烈行의 양상이 되어가던 從死를 圖式化하여 살펴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기보다는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인다. 여성들의 烈行이 從死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분명 歪曲된 모습이다. 따라서 知覺 있는 一群의 작가들에게서 이러한 烈에 대한 懷疑가 생기게 되고 그에 대한 反省도 아울러 일어나게 되었다. 이들의 작품 속에는 그러한 작가의식이 담기게 되고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烈이념의 실현을 從死라는 죽음으로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守節이라는 삶으로서 이루어낸 여성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였다. 이는 당시의 여성들이 남편을 따라 무조건 죽음을 택하는 것만이 烈을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다. 더 이상 夫死와 여성의 從死는 앞서의 圖式에서처럼 同一視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곧 從死하지 않아도 烈을 실천한 것으로 바라본다. 이렇듯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圖式化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典型的인 烈行에서의 離脫 樣相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에서 살펴본 圖式을 想起하면 夫死를 중심에 놓고 여성이 종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圖式을 살펴보면 남편과 그의 아내인 여성은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병렬적으로 놓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남편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죽음을 낳지 않는다. 여성의 삶과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사항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歪曲된 사회에서 烈을 실천하는 여성에 대한 작가들의 동정어린 시선과 의식의 반영일 수도 있으며, 여성 스스로가 독립된 인격의 주체로서 의식의 성장을 보인 一面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또한 작가들에게 포착되어 입전될 때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전형적인 烈行 양상에서의 이탈은 여성인물에 대한 他者の 시각과 여성인물 自我의 의지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새로운 烈行의 對頭로 보고 이 두 관점에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즉 여성의 生死 與否와 관련하여 삶으로서 烈을 실천한 守節 烈女에 대한 시각과 죽음으로서 意志를 실천한 自決 女性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는 것이다.

가. 守節한 生烈女

守節이라는 삶으로서 烈을 실천한 여성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 ① 朴趾源 (1737~1805) <烈女咸陽朴氏傳并序> ② 李德懋 (1741~1793) <兩烈女傳>

먼저 朴趾源의 <烈女咸陽朴氏傳并序> 가운데 議論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작품과는 달리 제목 아래 并序라고 붙여 관심을 모은 작품이다. 序文이 있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렇게 序文을 같이 싣는다고 한 작품은 없었다는 점에서 序文에 담긴 의미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¹⁰⁵⁾을 유추할 수 있다.

齊나라 사람의 말에 ‘烈女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¹⁰⁶⁾고 했으니 『詩經』의 「柏舟」¹⁰⁷⁾가 이 말이다. 우리나라의 國典에는 ‘改嫁한 여자에게서 난 子孫은 正職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것이 어찌 서민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겠는가? 그러나 우리 왕조가 들어선 400년 이래 백성들이 오래도록 教化에 젖어 여자들이 貴賤을 가리지 않고, 집안이 兩班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守節을 해서 드디어 하나의 풍속이 되었다. 옛날의 이른바 烈女라 하던 것은 지금의 寡婦들이다. 農家의 어린 아낙네들이나, 委巷의 젊은 寡婦들까지도 父母들이 再嫁하라고 몰아세우지도 않고, 子孫들이 벼슬에 임명되지 못할 수치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홀로 지내는 것만으로는 節義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종종 밝은 대낮을 스스로 버리고 남편을 따라 무덤에 들어가기를 바라 물과 불에 뛰어 들어가 독약을 마시거나 목을 매달아 죽는 것을 즐거운 장소를 밟듯이 한다. 烈은 烈이지만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¹⁰⁸⁾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후기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이었던 從死를 ‘烈則烈矣 豈非過歟’라고 하여 지나친 행동으로 여기고 있다. 조선후기 烈의 규범은 보수적 성향이 지배했던 사회체제와 맞물려 하나의 틀이 되어

105) 이대형, 앞의 논문, 76~77쪽

106) 戰國 시대 齊나라 사람인 王蠋이 한 말이다. 燕나라가 齊나라를 쳐서 망하게 했을 때 燕나라의 樂毅가 王蠋의 어진 명망을 듣고 초청했으나 가지 않고 목을 매어 자살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309쪽, 註 96번 참조)

107) 『詩經』<鄘風>의 편명으로 共姜이 절개를 지키기로 스스로 맹세한 詩이다. 共姜은 衛나라 세자인 共伯의 부인으로 共伯이 죽은 뒤 자신을 改嫁시키려는 친정부모에게 이 詩로써 거절의 뜻을 나타냈다.(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309쪽, 註 97번 참조)

108) 齊人有言曰。烈女不更二夫。如詩之柏舟是也。然而國典。改嫁子孫。勿叙正職。此豈爲庶姓黎氓而設哉。乃國朝四百年來。百姓既沐久道之化。則女無貴賤。族無微顯。莫不守寡。遂以成俗。古之所稱烈女。今之所在寡婦也。至若田舍少婦。委街青孀。非有父母不諒之逼。非有子孫勿叙之恥。而守寡不足以爲節。則往往自滅晝燭。祈殉夜臺。水火鴛縵。如蹈樂地。烈則烈矣。豈非過歟。(『燕巖集』卷1, <烈女咸陽朴氏傳并序>)

왔고 그 틀 안에서 여성은 從死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夫死를 전후로 하여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언급보다도 그러한 육체적 수고로움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묵묵히 해내고 정신적 인내의 삶을 살았던 여성을 烈的 실천자로서 훌륭하게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해가 默過된 채 규범적 烈的 실천 주체로만 그려지고 있는 여성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고 여성을 이해하고 있는 시각이 보이는 작품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의 의론에 이어 나오는 다음은 從死만이 烈的 실천이 아니며 여성의 정신적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가 품 속에서 동전 한 닢을 꺼내고 말했다. “여기에 테두리가 있느냐?” “없는데요.” “여기에 글자가 있느냐?” “없는데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너희 어머니가 죽음을 참아온 부적이다. 10년 동안 손으로 만지작거리 다 닳아 없어진 거란다.** 무릇 사람의 血氣는 陰陽에 뿌리를 두고 있고, 情欲은 血氣에 모이며, 생각은 고독한 데서 생겨나고, 아픔과 슬픔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寡婦란 고독한 곳에 있으니 아프고 슬프기가 그지없지. 血氣가 때때로 왕성하면 어찌 寡婦라고 情欲이 없겠느냐? 가물거리는 호롱불이 그림자를 위로하며 비추면 외로운 밤을 지새기 어렵고, 계다가 처마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창으로 달빛이 환히 흘러든다든지, 낙엽 하나가 마당에 날리고, 외기러기는 하늘에서 울고, 먼 데 닭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어린 중년은 코를 골며 자고 홀로 잠 못 드니 **누구에게 이 고통을 하소연하겠느냐? 그럴 때면 나는 이 동전을 꺼내서 굴리고 방 안을 더듬어 찾곤 했단다.** 등근 거라 잘 굴러가다가 어딘가에 부딪쳐 멈춰 있으면 내가 찾아서 또 굴리곤 했는데, **밤에 보통 대여섯 차례 굴리고 나면 날이 새곤 했지.** 10년 동안 해가 갈수록 횡수가 줄어들어서 10년이 지나고부터는 닷새에 한 번 굴리게 되고, 열흘에 한 번 굴리게 되다가 **血氣가 쇠한 뒤에는 다시는 이 동전을 안 굴려도 되었다. 그런데도 내가 이걸 겹겹이 싸서 간직한 것이 20여 년이구나.** 그건 이 동전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또 때때로 나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서란다.” 이에 母子는 서로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¹⁰⁹⁾

109) 出懷中銅錢一枚曰。此有輪郭乎。曰。無矣。此有文字乎。曰。無矣。母垂淚曰。此汝母忍死符也。十年手摸。磨之盡矣。大抵人之血氣。根於陰陽。情欲鍾於血氣。思想生於幽獨。傷悲因於思想。寡婦者。幽獨之處而傷悲之至也。血氣有時而旺。則寧或寡婦而無情哉。殘燈吊影。獨夜難曉。若復簷雨淋鈴。窓月流素。一葉飄庭。隻鷓叫天。遠鷄無響。釋婢牢駟。耿耿不寐。訴誰苦衷。吾出此錢而轉之。遍模室中。圓者善走。遇域則止。吾索而復轉。夜常五六轉。天亦曙矣。十年之間。歲減其數。十年以後。則或五夜一轉。或十夜一轉。血氣既衰而吾不復轉此錢矣。然吾猶十襲而藏之者二十餘年。所以不忘其功。而時有所自警也。遂子母相持而泣。(『燕巖集』卷1, <烈女咸陽朴氏傳并序>)

위의 인용문을 통해 이 여성은 전형적인 烈의 실천 양상이었던 從死를 택하지 않고 守節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從死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從死해야만 旌表를 받고 立傳되었다. 이로써 이 여성은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에서 이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표면적으로 여성의 守節한 모습과 방법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여성의 守節로 인한 고통과 감정까지도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守節도 從死만큼 어려운 일이었음을 言表하며 從死만이 진정한 烈의 실천 양상이 되는 사회에 대한 批判과 함께 烈行의 새로운 모습까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곡된 烈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 작품에서도 并序 다음의 本文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咸陽 朴氏의 從死를 신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 또한 결국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烈을 다루는 입장에서 전통적 규범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從死로 烈을 실천한 여성을 입전한 것은 전통적 규범을 준수하는 형식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앞서의 并序 부분의 비중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烈行이라 할 수 있는 守節을 다루면서, 守節 烈女에 대한 肯定을 통해 從死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李德懋의 <兩烈女傳>도 이러한 脈絡에서 살펴볼 수 있다. 標題를 통해서도 두 명의 여성이 입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은 첫 번째로 입전된 여성에 대한 것이다.

22살에 남편이 죽자 李氏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늘 따라 죽으려고 하여 바늘까지 삼켰으나 죽지 못했다. 남편이 꿈에 나타나 말했다. “당신이 죽으려 하는 것은 고맙지만 정해진 命이 있으니 바꿀 수 없어요. 당신은 50년 뒤 내가 죽은 날짜에 죽게 될 것이요.” 李氏가 자신의 命을 알고 마침내 죽지 않았다. 그러나 3년 상을 치를 때 입었던 素服을 평생 입으면서 헤어질 때마다 꿰매며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고, 지게미를 먹고 짚자리에서 잤으며 늙어서야 국을 먹기 시작했다.¹¹⁰⁾

110) 夫夢以告曰。君之欲死誠矣。然有定命。不可易也。五十年後吾死之日。君其歸乎。李知其命。不意於死。然終身衣三年時素服。敝輒縫補。不易以新。食糟席藁。老始啜醬。(『靑莊館全書』卷4, 「嬰處

이 여성은 처음부터 守節한 것이 아니라 從死의 시도가 실패한 후 꿈속에 나타난 남편의 말에 의해 守節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朴趾源의 작품에 비한다면 짧은 분량의 간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朴趾源의 작품 속에서는 여성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守節한 세월을 이야기한 방식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분량과 내용면에서 더 많이 곡진하고 섬세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비록 짧고 간단하더라도 입전된 여성의 守節한 삶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비록 守節한 여성의 고통과 감정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終身토록 3년 상을 치를 때의 素服을 입고 헤어질 때마다 꿇으며 지게미만 먹고 짚자리에서 자는 것은 從死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또한 처음에 從死를 시도할 때 바늘을 삼키기까지 한 행위를 보면 그 오랜 시간동안 강인한 통제력과 인내심을 발휘하며 守節한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從死의 실패와 남편의 現夢은 이 여성의 守節을 대단하고 마땅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게 해 주는 하나의 장치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從死한 여성만이 입전되는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 속에서 從死의 시도도 했고 절대적인 남편의 지시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여성의 守節을 정당화 해 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 또한 守節이라는 烈行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從死만이 진정한 烈의 실천 양상이 되는 사회에 대한 비판까지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從死의 실패, 남편의 現夢,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입전된 여성의 從死는 전통적 규범에의 형식을 준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조선후기 烈女傳이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을 보인 從死 烈女만의 입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烈行을 보이는 守節 烈女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입전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守節 烈女の 입전을 통해 이들에 대한 긍정과 함께 현실에 대한 비판까지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더라도 이 작품들의 여성인물은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夫死를 계기

로 하여 烈行을 보이며 다만 烈行의 실천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 시기의 보편적인 烈의 실천배경이었던 夫死와 烈의 실천양상이었던 從死와는 차원이 다른 죽음을 택한 여성을 입전하고 있는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自決한 怨恨女

自決이라는 죽음을 택했지만 夫死라는 烈의 실천배경이 없었으며 따라서 從死로서의 죽음이 아니었던 여성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 ① 李光庭 (1674~1756) <林烈婦鄉娘傳> ② 金民澤 (1678~1772) <烈婦尙娘傳>
 ③ 尹光紹 (1708~1786) <烈女香娘傳> ④ 俞漢雋 (1732~1811) <善山二烈女>

俞漢雋의 <善山二烈女> 중 첫 번째로 입전된 여성을 제외하고 위의 작품들은 모두 香娘이라는 여성을 입전하였다. 烈女傳의 歷史에서 18세기는 香娘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대부 문인들이 향랑의 行實을 기리며 일종의 香娘談論¹¹¹⁾이 성행하던 시기였다. 이 향랑은 미천한 여성으로 여러 작가에 의해 입전되어 <香娘傳>이 양산되었는데 간단히 향랑의 삶과 죽음을 살펴본다. 향랑은 숙종 28년(1702년)에 목숨을 끊은 지 2년 뒤 국가로부터 烈女로 인정받아 旌閭門이 내려진 여성이다. 향랑은 繼母의 구박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인근 마을 사람에게 시집을 갔고 남편에게 온갖 구박을 견디다 못해 3년 만에 本家로 돌아왔다. 그러나 계모에게 용납되지

111) 傳으로는 趙龜祥의 <香娘傳>, 李光庭의 <林烈婦香娘傳>, 金民澤의 <烈婦尙娘傳>, 尹光紹의 <烈女香娘傳>, 李安中の <香娘傳>, 李鈺의 <尙娘傳>이 있고, 漢詩로는 李光庭의 <鄉娘謠>, 崔成大的 <山有花女歌>, 申維翰의 <山有花曲>, 金昌翁의 <望泰安砥柱下有香娘碑>와 <山有花 三章>, 李安中の <山有花>, 李友信의 <山有花>, 李魯元의 <山有花曲>과 <山有花後曲>, 李德懋의 <香娘詩>, 李學遠의 <山有花>와 <山有花歌>, 李裕元의 <山有花>가 있고, 雜錄類로는 嚴慶遂의 『孚齋日記』, 李希齡의 『藥坡漫錄』, 尹廷琦의 『東寔錄』에 향랑 가사가 실렸으며, 한문장편소설로는 金紹行的 『三韓拾遺』에 香娘이 보이고 있다.(박수진, 「향랑고사의 변용양상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2쪽)

못해서 다시 숙부집에 의탁하게 되었는데 숙부의 改嫁 권유를 견디기 어려워 다시 舅家를 찾아갔으나 남편의 여전한 행패와 시아버지의 改嫁 권유로 인해 결국 죽음을 결심한다. 그리하여 향량은 낙동강의 지류인 吳泰江에 가서 <山有花>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고 몸을 던졌다.

이와 같은 향량의 삶과 죽음을 놓고 볼 때 과연 향량은 烈女였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향량의 행적은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에서 보였던 夫死라든가 그 남편의 죽음을 전후로 해서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烈女로 旌閭門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이 당대인들에게도 논란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사들은 향량을 節義를 실천한 여성으로 보고 그 행적을 기렸다.¹¹²⁾ 이 향량은 분명 士大夫家の 여성이 아니었음에도 입전되었고, 그 행적이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에서도 벗어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烈女로 많은 문사들에 의해서는 節義를 실천한 여성으로 칭송되었다. 이를 앞서 거론한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면 조선후기 烈女傳의 變貌로서 새로운 烈行의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대체적인 내용이 같으므로 대표적으로 李光庭의 <林烈婦薈娘傳>을 살펴본다. 이 작품에서는 傳의 일반적 형식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인 파괴로 보인다. 즉, 의도적인 목적으로 향량의 행적만을 나타내야 할 부분에서 3개의 이야기를 삽입하여 향량과 연관 짓고 있다.¹¹³⁾ 그 첫 번째가 吉再 先生 이야기로 다음과 같다.

향량과 계집아이가 서로 함께 砥柱碑¹¹⁴⁾ 아래에 이르렀는데, 그 위에는 吉再 先生 사당과 廟가 있었다. 吉再 先生은 高麗시대 사람으로 조선조가 天命으로 건립되었으나 고려

112) 정출현, 「<향량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善山地方의 香娘이 ‘국가 열녀’로 還生하기까지의 보고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집, 월인, 2001, 145~147쪽

113) 강성숙, 「訥隱 李光庭 작품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167~174쪽

114) 砥柱碑는 砥柱에 세운 비석이다. 砥柱는 중국 황하 중류에 솟아있는 산의 이름으로, 唐太宗이 이곳을 지나다가 이 산에 자신의 功德을 기술했던 碑銘을 세워 이를 砥柱銘이라 부른다. 砥柱는 후에 亂世에 흔들림 없이 굳게 節義를 지키는 선비를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砥柱中流라고도 한다.(이혜숙·김경미 공저, 앞의 책, 397쪽, 註 127번 참조)

에 대한 義理를 지키기 위해 出仕하지 않으셨다. 임금께서 그를 가상히 여기셔서 先生에게 田地를 내리셨으나, 先生께서는 대나무를 심으시고 곡식을 심지 않으셨으니. 그 늠름함은 바로 伯夷叔齊가 고사리만 먹던 遺風이었다. 後人들이 강 위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에 돌을 세우고 ‘砥柱中流’ 네 글자를 새겼는데, 그 뜻은 先生의 節概가 龍門의 砥柱와 똑같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향량은 一善郡 위 荊谷里사람인데, 혹은 鳳溪人으로 吉先生과 같은 마을 사람이라고도 한다.¹¹⁵⁾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향량이 죽음을 결심하고 砥柱碑 아래에 이르렀을 뿐인데¹¹⁶⁾ 갑자기 吉再 先生을 언급하며 그의 節義를 말하고 결국에는 같은 마을을 연결고리로 삼아 吉再 선생과 향량을 엮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吉再의 節義가 향량에게 體化되기 쉬웠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향량을 節義를 실천한 여성으로 부각하기 위해 대표적인 節義의 실천자였던 吉再와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다음은 두 번째로 吉再의 이웃집 여자 이야기이다.

이전에 吉再 先生이 鳳溪에 물러나 사실 때에 글을 읽으실 때마다 ‘忠臣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烈女는 두 남편을 모시지 않는다.’ 는 것을 여러 번 되풀이 하여 뜻을 밝히니, 이웃에 사는 여자가 문득 문 아래에 이르러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었다. 先生께서 그 까닭을 물으시니 여자가 말했다. “읽으시는 글이 무슨 뜻인지 감히 여쭙니다.” 先生께서 그를 위해 그 글을 풀어 주시니, 여자는 기쁘게 그 뜻을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 후 여자의 남편이 국경에 수자리 살러 갔고 여자는 문을 잠그고 홀로 살았다. 남편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침 밤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남편이 문을 열라고 호령했으나, 여자가 열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이 말했다. “남편이 멀리서 왔으면 집안 식구 모두 넘어지며 달려와야 하거늘, 당신은 홀로 문을 잠그고 있음은 어인 일이요?” 여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참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으니 여자는 삼가서 밤에 사람을 出入시키지 않는다 합니다. 제가 이미 이 문을 잠갔으니 밤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내일

115) 相與至砥柱碑下。其上有吉先生祠與墓。先生高麗人。國家受命。守義不出。上嘉之。賜先生田。先生以種竹不粟也。凜然採薇遺風矣。其後人立石江上斷岸。刻之砥柱中流四字。其意以先生之節。可與龍門之砥柱並高云。(…) 婦一善之上荊谷里人也。或曰。鳳溪人。與吉先生同里云。(『訥隱先生文集』卷20, <林烈婦癡娘傳>)

116) 정출현은 砥柱碑란 吉再(1353~1419)의 忠節을 기리기 위해 柳雲龍이 吳泰江 가에 세운 것인데, 이 곳은 蘿月峰 기슭의 우뚝 솟아 오른 봉우리로 낙동강을 굽어보며 吉再의 무덤에서도 정면으로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砥柱碑를 세운다면 이 곳 밖에 달리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이 곳은 향량의 고향인 荊谷里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향량이 강물에 몸을 던지려면 이 곳 밖에 달리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砥柱碑가 세워진 곳이며 향량이 몸을 던진 곳이기도 하다는 공간적 일치로 인해 당대인들이 향량의 죽음을 吉再의 忠節과 연관시키려고 했고 국가 烈女로 부각시키려고 했다고 하였다.(정출현, 앞의 논문, 162쪽, 註 25번 참조)

문을 열겠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이 여인이 吉先生의 風道를 들은 것으로 여겼다.¹¹⁷⁾

이 吉再의 이웃집 여자¹¹⁸⁾는 이름도 없이 그의 이웃에 살았던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 여자가 어떤 인물인가보다는 단지 吉再와의 연관성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忠節의 전형이 되었던 吉再였기 때문에 그가 가장 중요시했을 忠臣不事二君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어 烈女不更二夫까지 함께 말하고 있음은 이후 이웃집 여자가 가르침을 청하게 되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忠臣不事二君과 烈女不更二夫가 함께 붙어 다니는 문구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烈女不更二夫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인물로는 吉再에 비중을 두었지만 그 행적은 烈女不更二夫에 비중을 두어 이름도 알 수 없는 미천한 여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웃집 여자가 烈行을 보였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이 같은 미천한 여자의 烈行은 吉再의 가르침에 感化된 것이자 教化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吉再의 가르침은 한 미천한 여성도 教化시킬 수 있었다는 것으로 吉再와 같은 마을에 살았던 향량 또한 그에게 教化된 인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세 번째로 義牛에 대한 이야기이다.

一善郡의 동쪽에 文殊店이 있다. 農夫 金起年이 암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하루는 밭에 갔는데 호랑이가 그 소를 움켜쥐니 起年이 손에 든 쟁기로 그것을 쳤다. 호랑이는 소를 버리고 사람을 쫓았다. 起年은 호랑이와 맞서 싸울 것이 없어 오직 두 손으로 그

117) 始吉先生退居鳳溪。每讀書至忠臣不事二君列女不更二夫。三復致意。鄰有女子輒至門下。傾耳聽之。先生問其故。女子曰。敢問所讀書何意。先生爲解之。女子欣然若會其意。其後女子有夫戍邊。女子閉門獨居。及夫還。會夜門閉。夫呼令開門。女子不可。夫曰。良人遠來。人家皆顛倒以迎。汝獨閉門何也。女子曰然。吾固望子。然吾聞女子慎夜不出入。吾既閉此門。夜不開也。猶有明日。遂不開門。人以是女爲聞先生風者。(『訥隱先生文集』卷20, <林烈婦薈娘傳>)

118) 藥哥라는 인물이다. 藥哥는 『一善誌』 「高麗 藥哥條」 79면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은 藥哥라는 여인이 吉再 先生과 한 마을에 살았는데 선생에게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수자리 살러 갔다가 왜적에게 잡혀가고 藥哥는 8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다. 남편이 밤에 돌아와 문 밖에서 불렀는데 藥哥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한밤중이고 혼자 살기 때문에 열어줄 수 없으니 이웃집에 묵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만나자고 하였다.(정출현, 앞의 논문, 164~166쪽)

입술을 막았다. 이에 소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 호랑이를 뿔로 받으니, 호랑이는 버틸 수 없어 起年을 버려두고 숲 속으로 도망갔으나, 끝내 소가 그 호랑이를 부딪쳐 죽였다. 소는 다친 데가 없었고 오히려 일하고 마시고 먹으며 泰然自若했다. 起年이 상처로 병들어 집에 돌아온 지 20일에, 그 상처가 심해져서 장차 죽게 되었을 때, 그 집 안 식구에게 말했다. “아! 슬프다. 나를 호랑이 입에서 살려준 것은 소이니, 내가 죽더라도 팔지 말고, 늙어 죽게 되면 반드시 내 무덤 옆에 파묻어라.” 起년이 죽은 후 소는 물과 여물을 끊고 슬프게 울다가 사흘 만에 죽었고, 그 집에서 그를 장사지냈다. 기이하도다! 이 때 趙龜祥의 할아버지 趙纘韓이 府使였는데, 그 일을 기이히 여겨 그 소를 義牛라 이름하고, 그에 대한 序를 썼다. 그 후 73년이 지나 趙龜祥이 이어 太守가 되니 林烈婦 사건이 있었다. 사람들이 이를 기이히 여겼다.¹¹⁹⁾

위 인용문의 내용은 암소가 호랑이에게 잡히자 주인이 암소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호랑이의 공격을 받게 되고 다시 암소가 나서서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구했는데, 그 후에 주인이 병들어 죽자 암소 또한 주인을 따라 죽어 義牛로 불렸다는 것이다. 전혀 香랑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여기서 一善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香랑과 吉再가 살던 마을인 善山의 옛 지명이다. 이러한 마을이었기에 이러한 義를 아는 소도 나올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吉再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더라도 이미 그 마을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感化되고 教化 받을 수 있음을 말했다고 볼 수 있다.¹²⁰⁾

이처럼 李光庭의 <林烈婦薌娘傳>에서는 3개의 이야기를 삽입하여 香랑과 연관 지음으로써 미천한 여성이었던 香랑을 烈女로 그리고 節義를 보인 인

119) 善之東。有文殊店。農人金起年畜一牝牛。一日往于田。虎攫其牛。起年手耒相以搏之。虎舍牛而從人。起年無以應虎。惟兩手抗其吻。於是牛大呼奮前角之。虎不能支。舍而走林中。牛竟觸斃其虎。牛無所傷。猶服役飲食自若。起年病創歸二十日。創甚將絕。語其家人曰。噫使我免於虎口者是牛也。我死勿賣。老斃。必瘞吾墓傍。起年既死。牛絕水草。哀鳴三日。乃死。其家葬之。異哉。時龜祥祖纘韓爲府使。奇之。畫其牛。號曰義牛。爲之序。其後七十有三年。龜祥繼爲。守有林烈婦事。人奇之。(『訥隱先生文集』卷20, <林烈婦薌娘傳>)

120) 善山府使를 지낸 趙讚韓(1572-1631)과 安應昌이 소나 개와 같은 微物의 義로운 행위를 기리는 작업에 남다른 열의를 보인 의도도, 이곳 선산지방 先賢의 지극한 德化가 미천한 禽獸에게까지 두루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자 해서였다. 조찬한은 <義牛圖序>에서 “雖然物之能是者。非物之自性也。迺至德之化。有以致之者也。”라고 하였으며, 안응창은 <義狗圖>에서 “余忝是邑據舊聞參地誌。上下數千年忠孝者義烈者。踵相接而炳炳。是固最靈之域。可能也。而至於蠢蠕底微物。亦有取義而效異者。”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정출현, 앞의 논문, 172쪽, 註 39번 참조)

물로 훌륭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金民澤의 <烈婦尙娘傳>과 尹光紹의 <烈女香娘傳>, 俞漢雋의 <善山二烈女>에서는 길재의 이웃집 여자라든가 義牛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烈女香娘傳>과 <善山二烈女>에서는 앞서 살펴본 <林烈婦薌娘傳>과 같은 입장에서 향량을 吉再와 같은 聖賢의 教化에 의해서 節義를 보인 여성으로 칭송하고 있다. <善山二烈女>에서는 吉再에 대한 언급조차 보이지 않지만 善山이란 말을 標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吉再가 살았던 마을이기에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烈女가 배출되는 것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烈婦尙娘傳> 또한 이 작품들과 같은 입장에서 향량을 烈女이자 節義를 보인 여성으로 칭송하고 있으나 吉再와 같은 聖賢의 教化에 의해서가 아닌 향량 자신의 天性에서 자연스럽게 발로된 행위로 칭송하고 있다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작품들에 입전된 여성의 행위를 烈行으로 규정한다면 이 여성은 전형적인 烈行의 양상에서 볼 수 있었던 烈의 실천 배경인 夫死를 계기로 하지 않으며 烈의 실천 양상인 從死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烈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이 택한 죽음의 배경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후 그 당시 사회에서 改嫁하여 자손에게까지 불행한 삶을 안겨 주기도 원치 않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살기도 원치 않았던¹²¹⁾ 가련한 여인들을 대표했던 怨望¹²²⁾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의 決行은

121) 『經國大典』의 再嫁女子孫禁錮法과 『小學』의 “寡婦之子。非有見焉。弗與爲友。”(정출현, 앞의 논문, 181쪽, 註 58번 참조)에 의해 再嫁의 삶과 寡婦의 삶 모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과 가르침은 士大夫家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미친한 여성은 이를 어겨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16~17세기를 거치며 貞節이테올로기는 하층계급으로 확산되고 일반화되었다. 烈女 포상을 받은 전체 여성 중에서 하층여성의 비율은 17세기에 52%나 되었다.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서사한시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9, 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40쪽)

122) 실제 향량은 烈을 지키기 위해 自殺했다기보다는 어떤 주체적 삶의 가능성도 없는 데에 挫折해서 자살한 측면이 더 크다. 향량이 죽기 전에 불렀다는 <山有花歌>(天下高遠。地何廣邈。天地雖大。一身靡托。寧投此淵。葬於魚腹。)에서 향량의 깊은 挫折을 볼 수 있다.(박혜숙, 앞의 논문, 39~41쪽) 申維翰의 <山有花曲 跋書>에서 “山有花曲者。一善烈婦香娘之怨歌也。”(『靑泉集』 卷2)라고 한 구절과 李學遠의 <山有花>에서 “山有花。本一善里婦香娘怨歌。”(『嶺南樂府』)라고 한 구절(정출현, 앞의 논문, 157쪽, 註 16번 참조)도 위와 類似한 관점으로 보인다. 즉 향량의 사건에서 주체적 삶의 가능성을 차단 당한 중세 여성의 挫折과 悲劇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은 물론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불행한 삶에서의 解放이자 脫出이었으며, 자신의 意志였던 不更二夫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手段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 여성은 현실에 怨恨을 품고 자신의 意志를 실현하기 위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으나 他者の 시각에 의해 不更二夫와 죽음이 포착되고 烈行으로 칭송된 인물로서 거듭났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조선후기 烈女傳이 前代의 전통을 이어 지속적으로 産出되었음을 바탕으로 立傳 여성의 烈行에 초점을 맞추어 持續과 變貌의 양상을 살펴 보았다. 조선후기 烈女傳에 입전된 여성인물들의 烈行은 從死로 典型化되어 持續적으로 나타났으며 從死 烈女는 남편에게 從屬的인 위치에 놓이는 존재로서 남편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同一視하였다. 이러한 烈女傳이 持續되어 가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他者の 시각과 여성인물 自我의 의식에 의해 烈女傳이 變貌하기 시작하였다. 전형적인 烈行인 從死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對頭하게 되어 守節 烈女가 주목받고 입전되면서 긍정되었다. 守節 烈女는 남편과 並列的인 위치에 놓이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 烈을 실천하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自我의 성장을 보인 여성인물이었던 香娘은 他者の 시각에 의해 새로운 烈行을 보인 烈女로 거듭 태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2. 忠孝傳의 變貌와 女性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은 前代의 전통을 이어 烈女傳이 가장 많이 창작되면서 烈은 여성에게 絶對的이자 固有한 이념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傳으로 여성인물을 입전한 작품이 烈女傳에 머무르고 있는 데 반해 조선후기의 傳은 이에서 발전된 면모를 보인다. 이를 통해 조선전기는 他者인 사회와 작가의 시각에서 본 여성과 실제 여성의 현실 사이에 乖離¹²³⁾가

123) 박혜숙은 남성의 눈으로 본 여성과 실제의 여성 현실 사이에는 종종 심각한 괴리가 있게 마련이라고 하였다.(박혜숙, 앞의 논문, 30쪽)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의 여성이라고 하여 烈行을 보인 것만이 아니었음에도 여성을 보는 사회와 작가의 시각은 烈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이에 따라 여성을 입전한 것으로 唯一하게 烈女傳만이 산출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서 여성의 이념으로서 烈만을 작품화하지 않는다. 즉, 前代에 남성의 이념으로 看做되던 忠이념을 실천한 여성에게까지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前代와 변화된 모습으로 孝이념을 실천한 여성에 대한 주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여성을 보는 시각과 여성의 현실 사이의 乖離를 줄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조선후기 사회가 壬丙兩亂을 겪은 후 前代에 비해 混亂하고 多變化된 사회였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忠·孝의 이념을 실천한 여성을 입전하여 작품화한 것은 目的性이 다분히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시기 여성들에게 孝의 실천 양상으로 前代에는 볼 수 없었던 復讐談이 나타났는데 孝를 위해 원수를 갚는 것은 확대 해석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忠으로 연결되고 이는 靑나라로부터 受難을 겪은 조선의 현실에서 나라의 원수도 것처럼 갚을 수 있다는 정치적 伏線 하에 이러한 孝를 더욱 表彰하고 獎勵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²⁴⁾ 점차 忠·孝의 이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反動的으로 忠·孝의 이름으로 忠臣과 孝子만이 아닌 여성까지도 새로이 주목하여 이념의 鼓吹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을 목적의식에 의해 창작된 문학작품으로 보고 그 純粹성과 發展성에 反問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女性人物傳은 문학작품의 하나로서 소재 면에서는 烈을 포함해서 더욱 다양해졌고, 주제 면에서는 전형적 烈의 실천에서 나아가 확대되었으며, 인물의 형상화 양상 또한 보편적인 貞淑함과 操身함으로 대표되는 여성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前代의 전통을 이은 바탕 위에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124) 임유경, 「조선후기 전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 『어문학』 제75호, 한국어문학회, 2002, 369쪽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여성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이 주목한 충이념과 여성들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며 실천한孝이념이 女性人物傳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召命意識으로서 忠의 實現

傳이 實事를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기릴만한 훌륭한 인물을 입전한다는 사실성으로 인해 忠은 남성에게 강조되어 나타났던 이념이자 규범의 하나였다. 곧 忠은 社會와 國家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남성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된 이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회 활동의 주체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政治·經濟는 남성의 몫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남성은 이러한 사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忠이념을 體化한다. 즉,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責任과 義務를 忠誠스럽게 해야 할 必要性和 當爲性을 강요하지 않아도 認識한다. 따라서 忠이념은 충성스러운 마음과 행동까지 誘發하며 사회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국가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국가의 危機에 맞서 싸우며 忠을 위해 몸 바치기도 한 것을 통해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남성의 영역에서 의미 있었던 忠이념이 여성에게 새로이 주목되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個人과 家庭에 국한된 여성의 현실에서 忠이념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는 여성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이념으로서 忠은 前代와 동일하나 후기에 들어 새로이 여성이 忠을 실천한 것에 주목하면서 性別에 따라 그 실천 양상의 差異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남성이 忠을 실천한 것과 비교하여 劣等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사회가 규정하고 강요했던 性別에 따른 위치와 역할에 맞게 忠을 실천한 양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忠의 대상이 무엇이고 忠의 실천 주체 모습과 忠의 실천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살펴

불 작품은 다음과 같다.

- ① 任敬周 (1718~1745) <屈氏傳> ② 蔡濟恭 (1720~1799) <七分傳>
③ 金養根 (1734~1799) <太文母傳>

우선 각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任敬周의 <屈氏傳>의 屈氏는 明나라 江南의 良家 딸로 長秋宮에 들어가 宮女가 되어 황후를 모시면서 총애를 받았으나 李自成的 亂을 만나 포로가 되었다가 昭顯世子가 瀋陽에 인질로 와 있을 때 모시게 되어 그가 귀국할 때 조선으로 따라 들어와 萬壽殿에서 대비를 섬겼고 뒤에는 宮을 나와 鄉校坊에 거하였으며 평소 金僧들을 잘 부렸는데 이 법을 제자 進春에게 전수하였고 70세의 나이에 죽었다는 내용이다.¹²⁵⁾ 蔡濟恭의 <七分傳>의 七分은 매우 가난한 선비인 李顥의 여종으로 주인을 섬기는데晝夜로 힘썼으나 庚戌年에 李生의 맏아들이 죽고 이어서 李生 또한 죽자 形편상 장례를 치를 수 없어 親知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길 반년이나 하여 장례 도구를 마련해와 大小葬을 모두 끝내고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날 밤에 병이 나서 죽었다는 내용이다.¹²⁶⁾ 金養根의 <太文母傳>의 太文母는 이름이 中心으로 鷹捧里 金鳳儀·鳳顯 집

125) 屈氏本大明宮女。值天下大亂。被擄虜中。後隨昭顯世子居我國。死時年七十餘。葬于高陽之山。至今屈氏之事。傳於世頗詳。初屈氏以江南良家子。入長秋宮侍皇后。屈氏容貌端秀。性行幽靜。以故甚得皇后寵。崇禎末流賊李自成稱亂。京師不守。皇后將趨壽皇亭。步出宮屈氏從之。皇后憾然揮曰。爾無庸與我來。帝及皇后已崩。流賊兵入宮中。屈氏無所歸。悲啼躑躅避亂。閭巷間及虜兵入。屈氏卒爲所獲。置九王軍。屈氏先在宮中。聞流賊說頗習。及爲擄常慢罵虜曰。流賊九王者。常圓弁短衫垂面紗。而坐狀貌甚桀。屈氏輒笑且罵曰。男子亦爲面紗乎。面紗者唐俗婦女之粧也。故云。然屈氏時尙幼。不爲虜所怒。亦不爲所汚。及昭顯世子質于瀋虜。以屈氏侍世子。世子歸屈氏從至國。後屬萬壽殿事大妣。後又隨世子宮出。居于鄉校坊。屈氏既居東國。常吐望中國。稱皇后德。未嘗不泫然泣下。語及流賊必極口憤罵。惟日夜願須臾無死。以見皇家之興復。卒以飲恨死。屈氏素善擾禽獸。各有名號隨意指。使有弟子進春者。亦頗傳其法。進春今八十餘矣。每說屈氏事。輒嗚咽流涕云。(『靑川子稿』<屈氏傳>)

126) 七分。李生顥之女奴也。李生居玄石江上。家甚貧。臧獲田土無一有。所有惟七分。以婢名七分。自幼少已能忠其主。苟利於主。雖磨頂放踵。不恤也。李生炊不以時者數。七分憂之。以事主之隙。晝則備賃隣家。夜輒爲他人汲水不輟。收其直以食其主。李生家微七分。其枯魚肆矣。歲庚戌。李生長子死。不旬日身又死。賴知舊救助。藏之木殯於先兆之側。然李生惟寡妻與一稚子在耳。計無以葬。七分大痛心。探問李生平日所親知。雖非親知。其力或可以有助。藹足往見。其容甚憾。其言絕矜。聞之者感其誠。應之如不容已者。如是者半年。然後自營葬具。持往百里餘。完大小葬。及其歸。以其夜病發而死。年二十餘。人皆曰七分死。李生妻與子。惟有死而已。噫其可哀也夫。(『樊巖先生集』卷55, <七分傳>)

의 여종이었는데 두 집안이 쇠퇴해지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졌음에도 옛 주인이 죽자 매번 忌日마다 주인집을 찾아가 정성껏 제사를 올리기를 오랜 세월동안 하였다는 내용이다.¹²⁷⁾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忠의 대상 즉, 여성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忠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① (….) 매우 ㉠ 皇后的 ㉡ 寵愛를 얻었다.¹²⁸⁾

② ㉢ 어려서부터 그 ㉠ 主人에게 忠誠하였다.¹²⁹⁾

③ 옛날 鷹捧里 ㉠ 金鳳儀 · 鳳顯 집의 여종이었다. 鷹捧里의 金鳳儀 · 鳳顯 집이 부유하였을 때 中心이 부지런히 일한 것은 ㉡ 진실로 기이함이 없도다.¹³⁰⁾

위의 인용문 ①은 任敬周의 <屈氏傳>, ②는 蔡濟恭의 <七分傳>, ③은 金養根의 <太文母傳>이다. 우선 이들 여성의 신분을 살펴보면 ①의 屈氏는 宮女이고, ②와 ③의 七分과 太文母는 여종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신분은 忠의 실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보인다. 대체적으로 이 당시 女性人物傳에는 가정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이고 며느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烈이넘까지도 훌륭히 수행하는 여성을 입전하였다. 이념의 실천 여부를 떠나 이러한 여성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專業主婦¹³¹⁾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屈氏와 七分, 그리고 太文母는 전업주부가 아닌 직업을 가

127) 有太文母者。名中心。故鷹捧里金鳳儀鳳顯家婢也。鷹金之全盛也。中心之克勤服事固也無怪。而二鳳家屬替之日。中心乃不免。見售於他人。至是雖素號忠懇者。鮮能致心於舊主。亦勢使然也。理必至也。惟太文母。盡傷舊主之日就破敗。每遇舊主家忌辰。必精米潔蔬先期來助。逮二鳳不能保。有家里則渠。又無處助需。而使同智伯死無後矣。若可以已矣。而猶以虛度是日爲至痛。必隨力措辦殫心禋享。歲愈久而誠不懈。(『東莖集』<太文母傳>)

128) (….) 以故甚得皇后寵。(『青川子稿』<屈氏傳>)

129) 自幼少已能忠其主。(『樊巖先生集』卷55, <七分傳>)

130) 故鷹捧里金鳳儀鳳顯家婢也。鷹金之全盛也。中心之克勤服事。固也無怪。(『東莖集』<太文母傳>)

131) 오늘날의 通念상 전업주부라고 하면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직업이 없는 여성으로 여겨진다. 이는 現代의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核家族化 되면서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덜어졌으며 男女平等思想을 비롯한 의식의 전환과 성장으로 인해 가사노동도 分擔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시의 여성과 오늘날의 여성을 동일하게 전업주부라고 표현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가사노동이 직업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는 당위적으로 주어진 일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같다고 보았다.

진 여성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직업이란 여성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닌 주어진 것으로 오늘날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도 가정을 이루면 가사노동의 의무와 책임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해서 전업주부가 되기 이전에 職業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職分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 및 직분은 이념을 最位에 두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暗黙的 強要, 그리고 본인의 召命意識으로 인해 忠의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宮女와 여종은 수직적 관계에 놓이는 신분으로 이들의 직분은 상위에 있는 자에 대한 忠誠을 보이는 것이다. 즉, 宮女는 皇后나 皇帝에게 여종은 그 主人에게 충성을 다해 섬기고 받들면서 성실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 바라는 忠이었다. 이는 남성의 忠이 군주와 신하관계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따라서 屈氏, 七分, 太文母가 보인 忠의 대상은 직업 및 직분에서 주어진 것으로 인용문에서 말한다면 ㉠에 해당되는 皇后, 主人, 主人이었던 金鳳儀·鳳顯이다. 그렇다면 忠의 대상이 직업 및 직분에서 주어진 것이고 당시 사회에서 이념으로서의 忠을 강조했다기 때문에 마치 못해 忠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한 여성이라면 입전될 만한 행적을 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여성들은 이념으로서의 忠과 그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에의 사회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직업 및 직분에 대한 강한 召命意識을 갖고 있었다. 이는 인용문 ㉠과 ㉢의 ㉡ 부분과 같이 상위자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며 인용문 ㉡의 ㉢과 같이 가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 때부터 忠誠하였다는 것을 통해 더욱 확실해진다. 결국 이 여성들에게 忠의 대상은 주어진 것이었을지라도 忠의 실천 동기는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을 새로이 주목하여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 입전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忠의 실천 주체 모습 즉, 忠을 실천하기 前後에 여성의 성격 내지 정서상태 등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① ㉠ (…) 屈氏의 용모가 단아하고 빼어나며 성품과 행실이 그윽하고 고요해서 (…)¹³²⁾
- ㉡ 屈氏는 앞서 宮中에 있었을 때 流賊이 하는 말을 듣고 자못 익혀서 사로잡혔어도 항상 거만하게 오랑캐를 욕하며 말하였다. “流賊의 九王은 항상 둥근 고깔모자에 짧은 적삼에 면사포를 드리우고 앉아 있는 모양과 얼굴이 매우 해 같구나.” 屈氏가 문득 웃으며 또 욕하며 말하였다. “男子도 면사를 쓰는가?” 면사포는 唐나라 풍속에는 婦女의 단장품이었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그러나 屈氏는 이 때 아직 어려서 오랑캐가 성내지 않았고 또한 욕보이지도 않았다.¹³³⁾
- ② ㉠ 李生은 밥을 지을 수 없는 때가 여러 번이어서 七分은 그것을 걱정했다.¹³⁴⁾
- ㉡ 헤아려 보아도 장례를 치를 수 없어 七分이 크게 마음 아파했다.¹³⁵⁾
- ㉢ 그 얼굴이 매우 슬펐고 그 말이 매우 불쌍하였다.¹³⁶⁾
- ③ ㉠ (喪을 당함에) 이르러 金鳳儀·鳳顯을 지킬 수 없었다. 집은 멀리 있었고 또한 祭需를 도와줄 곳도 없었다. 그리고 곧 同智 伯이 죽었는데 後孫도 없어 마치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오직 헛되이 보내는 이러한 날도 지극히 애통함을 다하였다.¹³⁷⁾
- ㉡ 반드시 힘써 조처하고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올리기를 세월이 더욱 오래되었어도 정성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¹³⁸⁾

먼저 인용문 ①을 살펴보면 ㉠을 통해 屈氏의 용모와 성품 및 행실을 알 수 있다. 屈氏는 미천한 신분임에도 단아하고 빼어난 용모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는 첫인상만으로도 好感形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호감형의 모습에 이어 성품과 행실까지도 여성으로서 理想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屈氏가 미천한 신분임에도 外面과 內面이 훌륭하게 조화된 인물로 추후에 忠의

132) (…) 屈氏容貌端秀。性行幽靜。(…)(『青川子稿』〈屈氏傳〉)

133) 屈氏先在宮中。聞流賊說頗習。及爲擄常慢罵虜曰。流賊九王者。常圓弁短衫垂面紗。而坐狀貌甚桀。屈氏輒笑且罵曰。男子亦爲面紗乎。面紗者唐俗婦女之粧也。故云。然屈氏時尚幼。不爲虜所怒。亦不爲所汚。(『青川子稿』〈屈氏傳〉)

134) 李生炊不以時者數。七分憂之。(『樊巖先生集』卷55, 〈七分傳〉)

135) 計無以葬。七分大痛心。(『樊巖先生集』卷55, 〈七分傳〉)

136) 其容甚憾。其言絕矜。(『樊巖先生集』卷55, 〈七分傳〉)

137) 逮二鳳不能保。有家里則渠。又無處助需。而使同智伯死無後矣。若可以已矣。而猶以虛度是日爲至痛。(『東塾集』〈太文母傳〉)

138) 必隨力措辦殫心禋享。歲愈久而誠不懈。(『東塾集』〈太文母傳〉)

실천자로서도 遜色이 없음을 내비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㉔에서는 屈氏의 직접적인 말을 통해 그녀의 남다른 성격을 알 수 있다. 이 여성을 ㉑만을 놓고 본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烈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못 여성들과 같다. 그러나 ㉔을 통해 烈을 실천하는 여성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곧, 오랑캐에게 욕을 하고 九王을 비웃으며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은 烈이념을 실천하는 여성들이 忍耐와 順從으로 一貫하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 더군다나 ㉔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이 같은 욕설과 비웃음의 말을 한 때는 어린 나이였음을 알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이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차고 강인한 성격에서 기인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㉑과 함께 忠의 실천자로서 의미 있게 부각된다고 보인다.

다음 인용문 ②의 七分은 가난한 선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인은 물론 자신 또한 번번이 풍족하지 못한 삶에서¹³⁹⁾ 오는 육체적·정신적 飢餓 상태를 경험했을 것이다. 健康한 身體에 健全한 精神이 깃든다는 표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듯 육체적 고통은 정신까지도 병들게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主人의 아들에 이어 主人까지 죽음에 이르렀다.¹⁴⁰⁾ 이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이 貧困과 飢餓에 놓인 상황이었음을 볼 때 이로 인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七分도 主人집 식구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인물로 貧困과 飢餓, 그리고 죽음까지 例外일 수 없었다. 똑같이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不平과 挫折을 보이지 않으며 다만 ㉑~㉔을 통해 볼 수 있듯이 憂, 痛, 憾의 감정만이 드러난다. 이 감정들은 微妙한 차이를 보이며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의 단어로 통합한다면 悲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서상태가 일관되게 보이거나 정서를 유발한 원인이자 대상은 자신이 아닌 주인이었다. 즉, ㉑~㉔에서 보이듯이 主人의 굶주림, 主人의 죽음, 主人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 때

139) 家甚貧。臧獲田土無一有。所有惟七分。(『樊巖先生集』卷55, <七分傳>)

140) 李生長子死。不旬日身又死。(『樊巖先生集』卷55, <七分傳>)

문에 슬퍼한다. 자신의 굶주림이나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아닌 他人, 그것도 직분으로 맺어진 수직적 관계에 놓이는 인물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인 悲의 감정이 자신과의 연관성이 적을수록 弱化되는 것과 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남다른 면모로서 추후에 忠의 실천자임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인용문 ③의 太文母도 여종으로 ②의 七分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七分과 마찬가지로 주인으로 인해 슬픈 감정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은 한 순간의 일시적 표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보이듯이 장기간의 지속적 행동을 낳은 진실한 감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두 여성의 주인에 대한 감정과 그 표출 양상은 類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황까지 유사했던 것은 아니다. 즉, 七分은 가난한 선비 집안의 여종이었고 太文母는 부유한 집안의 여종으로 처음부터 놓여진 상황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貧富의 차이와 두 여성의 忠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貧·富가 곧 忠의 強·弱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太文母와 같이 주인의 인정도 받지 못했으며 가난한 상황에서도 진실한 감정을 보인 七分의 忠이 더 偉大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이후에 놓여진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 優劣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듯 보인다. 즉, 七分은 처음부터 가난한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한 주인을 섬긴데 반해, 太文母는 처음에는 부유한 상황에 놓였다가 후에 집안이 쇠퇴해지자 팔려져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되었다.¹⁴¹⁾ 이로 보아 太文母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 주인에게 충성을 다함이 마땅한 데도 옛 주인에게까지 오랜 세월동안의 忠을 보이기 때문에 七分 못지않은 忠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두 여성의 성격과 감정 내지 정서상태 등의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 忠의 실천 양상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여성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이념으로서의 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141) 二鳳家屬替之日。中心乃不免。見售於他人。(『東塾集』〈太文母傳〉)

살펴보기로 한다.

- ① 屈氏가 이미 東國에 살면서 ㉠ 항상 언덕에서 中國을 바라보고 皇后의 德을 칭송하면서 일찍이 울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 流賊을 말함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온갖 말을 다하여 흥분하며 욕하였다. ㉢ 오직 밤낮으로 잠간이라도 죽기 전에 皇家가 復興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¹⁴²⁾
- ② ㉣ 주인을 섬기는 사이에 낮이면 이웃집에 품팔이를 하고 밤이면 문득 남의 집에 물 길어 주기를 그치지 않아, 그 품삯으로 주인을 먹여 살렸다.¹⁴³⁾
㉤ 李先生이 평소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찾으며, ㉥ 비록 親知들이 아니더라도 그 힘이 흑시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발이 부르뜨도록 찾아다녔다. (…)
응함에 어찌할 수 없는 듯이 하였다. 이와 같이 반년을 한 후에 스스로 장례 도구를 마련하여 백여리를 가지고 갔다가 大·小葬의 장례를 마치고서야 돌아왔다.¹⁴⁴⁾
- ③ 오직 太文母는 옛 주인이 날마다 쇠퇴함을 매우 슬퍼하였고, 매번 옛 주인집의 忌日이 되면 반드시 정결한 쌀과 깨끗한 채소를 갖고 期日보다 먼저 와서 도왔다. (…)
반드시 힘써 조처하고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올렸다.¹⁴⁵⁾

앞서 언급한 바 있으며, 위의 인용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충은 분명 남성의 충과 차이를 보인다. 남성의 충이 실천되는 영역은 社會와 國家인 반면에, 여성의 충의 실천 영역은 個人과 家庭에 국한된다. 즉, 남성은 원활한 사회와 평온한 국가를 위해 忠臣이란 이름으로 국가 内外의 위기에 맞서 싸우다 殉死하기도 하지만 여성은 충의 대상에 대해 개인적으로 忠心を 드러내 보이고 가정에서는 忠誠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면 인용문 ①에서는 개인적인 忠心を, 인용문 ②, ③에서는 가정과 그 연장선상에서 忠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더 살펴보면 인용문 ①의 여성인 屈氏에게 충의 대상은 皇后였는데

142) 屈氏既居東國。常北望中國。稱皇后德。未嘗不泫然泣下。語及流賊必極口憤罵。惟日夜願須與無死。以見皇家之興復。(『靑川子稿』〈屈氏傳〉)

143) 以事主之隙。晝則傭賃隣家。夜輒爲他人汲水不輟。收其直以食其主。(『樊巖先生集』卷55, 〈七分傳〉)

144) 採問李先生平日所親知。雖非親知。其力或可以有助。藹足往見。(…)
應之如不容己者。如是者半年。然後自營葬具。持往百里餘。完大小葬。及其歸。(『樊巖先生集』卷55, 〈七分傳〉)

145) 惟太文母。盡傷舊主之日就破敗。每遇舊主家忌辰。必精米潔蔬先期來助。(…)
必隨力措辦殫心禋享。(『東莖集』〈太文母傳〉)

亂 가운데서 죽었기¹⁴⁶⁾ 때문에 이후 조선에 들어와서는 皇后에서 皇家, 즉 祖國에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의 忠의 실천 양상이 남성과 같이 조국을 위해 맞서 싸우며 몸 바치기도 하는 것처럼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다. 이 여성의 현실은 祖國이 아닌 他國이었고 이러한 현실에서 보일 수 있었던 忠은 ㉠~㉡과 같이 皇后의 德을 칭송하고 流賊의 亂을 욕설하기도 하며 皇家의 復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두 실천의 양상이 아니라 개인 心理의 언어적 표출이자 바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忠의 실천 양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는 앞서 말한 이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미 이 여성의 忠은 ㉠~㉡을 통해 풍부한 감수성과 당찬 성격, 그리고 꺾이지 않는 희망을 보여주며 개인적인 忠心으로서 충분히 드러난 것이다.

다음으로 인용문 ②, ③의 여성인 七分과 太文母를 함께 살펴보면 앞서 忠의 실천 주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두 忠의 대상이었던 주인의 죽음에 悲와 같은 類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그러한 감정의 유발 동기가 남다른 면이 있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 또한 인용문 ②, ③을 통해 남다른 면모를 찾을 수 있으니 이 점이 忠의 실천 양상이 된다. 즉, 悲와 같은 類의 감정들에 따른 행동들은 絶望的이고 否定的으로 표출됨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 두 여성은 이러한 감정들을 보이고 있음에도 그 표출되는 행동들은 오히려 인용문 ②의 ㉠, ㉡과 같이 積極的이고 ㉢과 같이 希冀的이고 進取的이기도 하며 인용문 ③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自律的이고 善行的이기도 하다. 이는 감정에 의해 이끌리는 행동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克復해내고 昇華시키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 두 여성의 현실 곧, 忠의 대상인 주인과 한 집안에서 살아

146) 崇禎末流賊李自成。稱亂京師不守。(…) 帝及皇后已崩。(『靑川子稿』<屈氏傳>)

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인 忠誠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七分의 忠의 실천 양상을 살펴보면 인용문 ②의 ㉠에서는 주인의 봉양을 위해 품팔이, 물 길기와 같은 忠誠을 보이고 ㉡에서는 주인의 장례를 위해 援助 요청, 장례 성사와 같은 忠誠을 보였다. 太文母의 忠의 실천 양상을 살펴보면 인용문 ③에서처럼 주인의 제사를 위해 음식 준비, 奉祭祀와 같은 忠誠을 보였다. 이로 인해 두 여성 모두 강인한 의지와 자세로 오랜 세월동안 육체적 수고로움까지 감내하며 忠의 실천자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前代부터 남성의 영역에 머물던 忠이념을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서 새로이 여성의 영역으로 끌어와 주목하고 형상화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남성의 忠과 비교하여 그 실천의 意志나 強度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닌 조선후기 사회 그리고 性別에 따르는 현실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前代에도 여성을 입전하여 나타내기는 했지만 이 시기에 들어와 변모를 보인 여성의 孝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孝行의 注目과 積極的 女性像

조선후기 烈女傳 속에서 烈이념을 실천하며 烈行을 보인 여성들을 살펴본 결과 前代와 그 양상에 있어 持續과 變貌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前代와 마찬가지로 烈이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형적인 烈行을 보이는 烈女傳이 지속적으로 산출되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은 自肅과 轉換의 기회를 낳으며 변모된 烈女傳이 등장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이든 변모의 측면에 있어서든 그 대체적인 양상은 이념을 훌륭히 실천하는 規範的이고 模範的인 여성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 앞서 언급한 자숙어린 시각이었던 從死의 비판이 실린 烈女傳 속에서도 이러한 여성상은 여실히 드러난다. 烈行의 양상에는 차이¹⁴⁷⁾가 있지

만 조선후기 烈女傳 속의 여성들은 한결같이 順從的이고 忍耐하며 아내로서 또한 어머니이자 며느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意志를 보이는¹⁴⁸⁾ 理想的인 여성상인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 드러난 孝이념 또한 지속과 변모의 양상을 함께 보인다. 즉, 前代에 이어 理想的인 여성상을 입전하고 烈에 포섭되는 이념으로서의 孝行을 보이는 작품을 지속이라고 한다면, 후기에 들어 理想的인 여성상과 普遍的인 여성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여성상을 입전하고 독립된 이념으로서의 孝行을 보이는 작품을 변모라고 할 수 있다.

이 孝이념의 지속과 변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烈이념과의 비교·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烈이 여성에게 절대적이자 고유의 것으로 性別化된 이념¹⁴⁹⁾이었다고 한다면, 이에 비해 孝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共通的인 이념이었다. 따라서 男性優位の 價値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男女가 똑같이 훌륭한 孝行을 보였다면 우선적으로 남성이 입전되었을 것이고, 다시 시선을 돌려 孝行과 함께 烈行까지 보이는 여성을 입전대상으로 주목했을 것이다.¹⁵⁰⁾ 이로 보면 孝이념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비중을 두며 여성의 孝는 烈의 바탕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져 보인다. 바로 이것을 앞서 여성의 孝가 烈에 포섭되는 이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이념을 실천하는 여성상까지 優劣의 차

147) 앞서 조선후기 烈女傳의 持續과 變貌에서 烈行의 양상이 從死, 守節, 自決 등으로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148) 앞서 새로운 烈行의 擡頭에서 自決한 怨恨女였던 향량은 딸, 아내,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 하려는 의지를 보인 規範的이고 模範的인 여성상이었으나 부모 및 시부모, 남편에게까지 버림받은 인물임을 살펴보았다.

149) 서인석은 이념에도 性別이 있다면 烈에 비해 孝는 남녀의 性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념으로, 烈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계 안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孝는 남녀의 경계가 없는 셈이라고 하였다.(서인석, 「봉건시대 여성의 이념과 행동 : <박효량전>과 <김부인열행록>의 경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월인, 2003, 104쪽) 필자 또한 이에 동의하며 烈을 여성 고유의 性別化된 이념으로 孝를 남녀 공통의 共通的인 이념으로 본 것이다.

150) 이는 당시의 烈女傳이 李獻慶(1719~1791)의 <孝烈傳>, 趙虎然(1736~1807)의 <孝烈李孺人傳>과 같이 작품명으로 孝와 烈을 함께 사용하였음에도 입전 여성들의 孝行과 烈行이 동등하게 다루어 진다기 보다 烈行에 초점을 맞추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규범적이고 모범적인 여성상으로 형상화된다. 이를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 나타난 孝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여성이 보이는 孝를 烈의 바탕으로서가 아닌 別個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한다. 곧 孝와 烈을 함께 다루는 烈女傳에서 벗어나 孝行에만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남성 못지않은 孝行을 보여야 여성임에도 孝의 실천자로서 주목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理想的인 여성상에서는 남성 못지않은 孝行을 보이기 어렵다. 順從과 忍耐가 美德인 普遍的인 여성상, 規範과 模範의 典型인 理想的인 여성상에서 나오는 孝行은 前代부터 이미 수많은 烈女傳 속에서 보였던 것이다. 더 이상 烈에 포섭되는 孝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이념으로서 孝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 틀에 박힌 듯한 理想型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여성 형상까지 수용함을 보인다. 때문에 理想的이라고 明快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념으로서 孝를 실천하기 위해 積極的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인 여성인물을 입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 나타난 孝의 변모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가 多變化되고 다양한 人間像이 창출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一面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본고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孝의 지속적 측면보다는 孝의 변모가 드러난 작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孝의 지속적 양상은 앞서 烈女傳의 지속에서 살펴본 양상과 어느 정도 유사함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고찰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앞서 여성의 忠에서 살펴본 사항을 그대로 여기서도 살펴본다. 곧, 孝의 대상, 孝의 실천 주체 모습, 孝의 실천 양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작품은 다음과 같다.

- ① 鄭來僑(1681~1757) <翠梅傳>
- ② 申 喙(1696~ ?) <孝妓斗蓮傳>
- ③ 南有容(1698~1773) <孝子朴氏傳>
- ④ 安錫傲(1718~1774) <朴孝娘傳>
- ⑤ 丁範祖(1723~1801) <陸氏婦傳>

각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鄭來僑의 <翠梅傳>의 翠梅는 湖西 公山縣의 창고지기인 金聲達의 딸인데 金聲達이 簿書를 조작하여 쌀 四百石을 훔쳐 옥에 갇히자 數年間 옥중의 아버지를 봉양하던 중 어느 날 밤에 幕府에 가서 裨將에게 아버지의 救命을 바라는 편지를 주면서 애원하였고 다음 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觀廳에 가서 그동안 마을사람들로부터 얻은 數百石의 곡식을 바치며 아버지의 贖罪를 애원하자 觀察使 洪公이 불쌍히 여겨 결국 그 아버지의 法的 처벌을 그만두었다는 내용이다.¹⁵¹⁾

申暉의 <孝妓斗蓮傳>의 斗蓮은 北靑의 妓女로 일찍이 湖西 大興 斗蓮里 선비인 車德鳳이 같은 마을 文官이었던 成任의 北靑 부임에 따라가서 官妓였던 楚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德鳳이 楚와 이별할 때 부채에 아들을 낳으면 大興으로, 딸을 낳으면 斗蓮으로 이름 지으라고 써서 주었고 후에 딸을 낳아 斗蓮이라 이름 지었지만 北靑과 大興의 거리가 멀어 딸을 낳은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여러 해가 지나 병든 德鳳에게 處士 郭振綱의 노비가 掌筭 安慶運의 집에서부터 왔다고 하며 書封, 衣袴, 參朮 등을 전하여 이를 통해 楚가 딸을 낳았음과 長成한 斗蓮이 손수 다스려 보낸 것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어 斗蓮이 大興으로 와서 父女가 相逢하였고 여기에 머물며 아버지를 모셨으나 朝廷의 명령이 있어 그 후에는 餘暇를 청해 大興과 北靑을 오가며 모셨다가 마침내 臨終까지 보고서야 喪服을 입고서 北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다.¹⁵²⁾

151) 湖西公山縣。有吏金聲達者。爲山城守倉吏。幻簿書盜米四百石。事覺繫獄者數年。累及其族破家者。亦數十人。時觀察使洪公將按法誅之。治狀版具書封。指日馳聞。夜有一女兒。詣幕府叩門。號哭甚哀。裨將恠問之。卽聲達女也。手一牒泣曰。乞活我父。其辭委曲。悲不忍讀。然事已無可奈何。遂權辭慰遣之。翌日。公視衙。有民衆男女數百。填門而入。譁然盈庭。一女兒被髮在前。卽幕府所見者也。直入上階大號曰。兒乃獄囚金聲達女也。乞蒙恩活我父活我父。公爲之改容而聽其訴。又問曰。彼民衆何爲也。衆曰。聲達盜國穀。罪死無惜。且民等非其族屬。以其女情甚矜。故人捐穀一石。總可數百石。願以此贖其死。公嘿然良久曰。吾將思而處之。衆乃退而女猶蒲伏涕泣。不肯去曰。乞蒙恩活我父。如是者數四。於是左右亦具以昨夜事白之。公惻然止其狀不以聞。時余適爲客于營。目見其事。又聞於民間而得其詳焉。女自其父始囚。朝夕躬持飯爨。往食獄中。數年如一日。及父聞當死。遂絕口不食。女輒首叩獄門曰。若不食。女請先死。且爲詭辭。以慰安之。見其食已乃還。其得穀於衆也。用一晝夜。狂奔疾走。徧歷數百家。家輒哀號告乞。以感動其心。(『沈巖集』卷4, <翠梅傳>)

152) 斗蓮。北靑妓女也。始湖西大興斗蓮里士人車德鳳。隨同鄉文官成任赴北靑之行。爲衙客。旅瑣無聊中。

南有容의 <孝子朴氏傳>의 朴氏는 星州 사람이고 이름은 文娘이며 아버지는 壽河이고 世祖때 政丞 元亨의 후손으로 중간에 寒微해져서 嶺南에 내려왔다. 壽河와 富豪로 소문난 前縣監 朴某 사이에서 山訟이 벌어졌는데 壽河가 觀察使와 朴縣監의 관계를 의심하여 불평하며 욕을 하자 觀察使가 화가 나서 그를 매질하여 죽였다. 아버지가 죽자 文娘은 매일 밤 屍身을 안고 통곡하다가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노비 10여명과 함께 무기를 챙겨서 朴縣監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헤쳐 관을 쪼개고 불태우자 朴縣監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이를 朴縣監에게 보고하여 그가 사내종을 군사로 삼고 와서 文娘을 죽였다. 文娘마저 죽자 그 여동생인 曾娘이 서울에 가서 擊錚하였으나 星州 목사가 아버지의 獄事를 살펴보다가 그만두고 가서 끝나지 못했으며 이 때 10여세의 남동생이 新任 太守가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아버지의 獄事를 살펴보던 목사로 誤認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 칼을 던졌으나 실패했다는 내용이다.¹⁵³⁾ 安錫傲의 <朴孝娘傳>은 南有容의 <孝子朴氏

偶與官妓楚有私。懷孕數月。任坐事罷歸。德鳳亦同還。臨行。贈一扇爲別。題以生男則大興。生女則斗蓮。所以命名也。及期生女。名以斗蓮。而德鳳無以知之。北青去大興。一千數百餘里。聲息不相及。積有年矣。一日德鳳患疴濱危。昏灣伏枕席。忽有處士郭振綱奴。自掌令安慶運家來。傳書封及衣袴參朮等種。扶病開視。則乃斗蓮手自修送者。而書中辭語。以生來不識父顏。聞人喚爺。怛然懷戚。若知父之在世。決當尋覓。縷縷懇至。德鳳於是乃知楚果生女。果以斗蓮爲名而至于長成也。一喜一悲。不能定情。力疾作答。且構斗蓮詞一篇以付之。是年秋。斗蓮卽治裝跨馬。間關千里。來見其父於洪州金馬川。蓋自大興移居也。相持感泣。留連侍娛。因有刷還朝令。不得已別去。其後又請暇來見。至于再至于三。來則必久留不忍去。竟得侍終服喪而歸云。(『直菴集』卷20, <孝妓斗蓮傳>)

153) 孝子朴氏者名文娘。星州人。父壽河。世祖時政丞元亨之後。中世微。淪於嶺之南。前縣監朴某者家貲累千。居達城以豪聞。與壽河爭山。訟於營門。觀察使令星州牧查報。壽河素剛狠。疑觀察使與朴監有私。大罵方伯不平心聽訟。受姦囑。公奪人墓地。觀察使聞大怒。竟掠殺之也。父既死。惟一子尚幼。有女二人。其長實文娘。父既死。文娘日夜抱父屍以哭。不食將死。既而奮曰殺吾父者猶在。而吾弟未壯。吾死將以殺父之仇。遺吾弱弟乎。吾弟未壯。吾死當誰殺仇。於是悉召奴婢十餘人。文娘哭且謂曰。此吾死之日。而首從我乎。皆哭而應曰諾。於是悉聚家中鋤鏟田器。以與奴婢爲兵。文娘執大斧。仰天一呼而出。奴婢皆從。無敢後者。遂走上山。斫朴監父塚。兵折以手掘。指盡落。於是諸受兵者。皆刺發其柩而燬之。守墓者戰恐不敢爭。犛告朴監。朴監立點蒼頭爲軍。圍山執文娘。磔殺之。於是嶺南人或右朴監。或悲文娘之死。右朴監者曰文娘不告官。擅發人父塚。是宜死。右文娘者曰文娘急於復讐。焉知官。其以擅爲罪也。文娘爲罪。朴監亦擅殺當死。事聞下本州查驗。是時星州牧某人按其獄。右朴監焉。文娘已死。其姊曾娘曰吾父以寃死。吾兄爲吾父死。吾獨生何爲。西入洛。擊登聞鼓。被髮韜面。自訟父兄寃狀。辭氣悲壯。事下該曹。又命吏按覈。已而事不竟。其弟年十餘。會星州牧按父獄者已罷去。新太守至官。兒聞星州牧過其閭。手磨所佩刀甚銳。伏林中候其至。則抽刀擲之馬上。穿其韉。太守大驚。索得兒。問而何故。欲刺我。兒乃勃然罵曰女按獄不平。使父寃不伸。是與殺吾父同也。吾欲報仇耳。於是太守乃大驚。撫兒顛曰若所仇者前牧也。我非若仇也。歎息而去。(『雷淵集』卷27, <孝子朴氏傳>)

傳>과 同一 인물을 입전한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은 같으나 이 작품보다 더 자세하고 분량 상으로도 길어졌으며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의 내용 소개는 省略하고 위 작품을 살펴 볼 때 比較 · 考察하면서 언급하기로 한다.

丁範祖의 <睦氏婦傳>의 睦氏婦는 注書 李公道의 庶女로 注書公이 일찍이 그 아버지 承旨公을 따라 成川 任所에 갔을 때 旴州 妓女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睦氏婦는 成川에서 태어나 자랐고 成川사람에게 시집가서 睦氏婦가 되었다. 注書公의 아들 春馨公은 成川과의 거리가 멀고 궁벽하기 매우 심한 橫城에서 임시로 살았는데, 아버지의 忌日에 睦氏婦가 찾아와 良田문서를 건네며 그 동안 아버지를 모시지 못해 이러한 情을 보이는 것이라며 祭需와 衣食을 충당케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자손들이 깊은 산골에 살아 科擧 보기가 불편함을 헤아리고 李公에게 청하여 자손 가운데 뛰어난 자와 서울에 오면 田宅을 사서 머물게 하려던 것은 사정이 있어 결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李公과 그 자손들은 睦氏婦에게 힘입어서 자못 자급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¹⁵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孝의 대상, 즉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孝行을 보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① 湖西 公山縣의 吏인 ② **金聲達**이란 사람이 山城의 창고를 지키는 吏가 되었는데 ③ **簿書를 조작하여 쌀 400石을 훔친 일**이 ④ **발각되어 옥에 갇힌 지 數年이었다.**¹⁵⁵⁾
 ② 해산일이 되어 딸을 낳아, 이름을 斗蓮으로 지었으나 ① **德鳳**은 그것을 알 수 없었다.

154) 睦氏婦者。注書李公道原庶女也。注書公嘗從其父承旨公成川任所。旴州妓以生睦氏婦。亡何。注書公歿。睦氏婦既生長成川。嫁爲成川人睦氏婦。而注書公之子春馨公。寓居橫城。距成川絕遠。又窮甚。不得與睦氏婦通。問訊十餘年。一日有商踵李公門。致赫蹄書。坼視則睦氏婦也。叙離濶問存沒居住甚殷勤。而商云睦氏爲裝遣商貨。屬曰勿論四方遠近。必尋見我家人。然後歸報。商既去。頃之。睦氏婦又專伴書報曰。當及先大人忌日身往也。及期果來。與親黨相見甚歡。爲備物助祭需。遂發橐中藏。買置良田。爲奉祭祀及李公衣食業。其言曰。吾躬蠶桑。積產至萬金。家甚饒。然顧無逮吾大人養也。思以不得逮大人者。用情於吾嫡弟。故如是耳。又以子孫居窮峽不便科宦。請於李公。以其諸子中有進就者一人。與俱至京師。欲買田宅使居之。有故不果。然李公方貧甚。賴而頗自給。睦氏婦既辭歸。李公亦歿。而所以供給其諸子不少衰。睦氏婦容姿雋爽。有丈夫氣云。(『海左先生文集』卷39<睦氏婦傳>)

155) 湖西公山縣。有吏金聲達者。爲山城守倉吏。幻簿書盜米四百石。事覺繫獄者數年。(『浣巖集』卷4<翠梅傳>)

- ㉠ 北靑과 大興의 거리는 一千數百里여서 ㉡ 소식이 서로 미칠 수 없었다.¹⁵⁶⁾
- ③ ㉠ 壽河는 ㉡ 본래 굳세고 사나웠다. 觀察使와 朴縣監이 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
고 의심하였다. (…)
觀察使가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마침내 ㉢ 매질하여 그를 죽였다.¹⁵⁷⁾
- ④ 陸氏婦는 ㉠ 注書 李道遠의 원래 庶女이다. (…)
㉡ 成川과의 거리가 너무 멀었고 또
매우 곤궁하여 ㉢ 陸氏婦와 통할 수 없었다.¹⁵⁸⁾

위의 인용문 ①은 鄭來僑의 <翠梅傳>, ②는 申暲의 <孝妓斗蓮傳>, ③은 南有容의 <孝子朴氏傳>, ④는 丁範祖의 <陸氏婦傳>으로 위 인용문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보편적인 孝의 대상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듯하다. 즉, 당시 사회는 물론이고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孝는 父母 또는 媳父母, 더 나아가 先祖에게 행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孝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當爲性이 부여되는 것을看過할 수 없다.¹⁵⁹⁾ 따라서 前代부터 조선후기 烈女傳의 지속적 측면에서의 여성들은 父母, 媳父母, 先祖에게 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孝行을 보이며 孝의 대상들 또한 전형적인 모습일 뿐 남다른 행동과 성격을 보이지 않으며 孝行을 보이는 여성들과 더불어 살지 않는 경우는 볼 수 없었다. 즉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작품들도 있지만 孝行을 보이는 여성들의 父母나 媳父母 또한 훌륭한 孝行을 보이는 溫順한 性品の 所有者들로 한 가정 안에서 同苦同樂 하는 것이 대체적인 孝의 대상들의 모습이었다. 이는 훌륭한 어른들의 行實과 性品을 직접 보고 본받는 가운데 孝이념의 당위성은 稀釋되며 자연스럽게 동기 부여되어 실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6) 及期生女。名以斗蓮。而德鳳無以知之。北靑去大興。一千數百餘里。聲息不相及。(『直菴集』卷20, <孝妓斗蓮傳>)

157) 壽河素剛狠。疑觀察使與朴監有私。(…)
觀察使聞大怒。竟掠殺之也。(『雷淵集』卷27, <孝子朴氏傳>)

158) 陸氏婦者。注書李公道原庶女也。(…)
距成川絕遠。又窮甚。不得與陸氏婦通。(『海左先生文集』卷39, <陸氏婦傳>)

159) 여기서 孝를 하나의 이념으로 말했는데, 이는 儒敎 이념을 말한다. 孝의 대상으로 先祖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얼굴도 보지 못한 先祖에게 禮를 갖추어 제사를 올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나의 孝行으로 보기 위한 것이다. 물론 忠과 烈도 儒敎 이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해 忠과 烈을 행하는지 그 대상이 명확하고 유교가 아닌 佛敎, 道敎의 차원에서도 忠·孝·烈의 이념은 다양하게 실천될 수 있는 반면에, 先祖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孝이념은 儒敎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언급해둔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보편적이고도 전형적인 孝의 대상들과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인용문 속에서 ㉠은 孝의 대상이며 ㉡은 변화된 孝의 대상 또는 환경이며 ㉢은 孝行을 유발시킨 孝의 대상 또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孝의 대상을 살펴보면 ①~④까지 金聲達, 車德鳳, 朴壽河, 李公道로 모두 아버지였음을 알 수 있다. 변화된 孝의 대상 또는 달라진 환경을 살펴보면 ①과 ③에서는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아버지상에서 벗어나 不道德한 행위를 하거나 模範的인 성품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으며 ②와 ④에서는 孝의 대상과 孝를 실천하는 여성이 한 가정에서 더불어 살지 못한 환경을 알 수 있다. 孝行을 유발시킨 孝의 대상 또는 환경을 살펴보면 ①과 ③에서는 죽음에 처할 아버지, 이미 죽은 아버지가 될 것이고 ②와 ④에서는 統制된 환경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導火線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前代와 달라진 점들이 여성의 孝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을 다음의 孝의 실천 주체 모습을 살펴봄으로서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여성들이 한 말과 인물 묘사를 중심으로 먼저 <翠梅傳>과 <孝子朴氏傳>을 묶어서 살펴본 뒤 <孝妓斗蓮傳>과 <睦氏婦傳> 또한 묶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① ㉠ 손수 글을 작성하고는 울며 “제 아버지를 살려 주세요.” 라고 하였다. 그 글은 곡진하며 슬픔에 차마 읽을 수가 없었다.¹⁶⁰⁾
- ㉡ 한 여자 아이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앞에 있었다. (...) 바로 계단 위로 올라와 크게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저는 곧 獄에 갇힌 죄수 金聲達의 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¹⁶¹⁾
- ㉢ 여자 아이는 오히려 엎드려 울면서 눈물 흘리며 물러나지 않고는 말하였다. “은혜를 베풀어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이와 같이 하기를 네 번이었다.¹⁶²⁾
- ㉣ 아버지가 사형 당할 것을 듣게 되자 마침내 입을 다물고 먹지 않자, 여자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獄의 문에 부딪치며 말하였다. “만약 드시지 않으면 제가 먼저 죽겠

160) 手一牒泣曰。乞活我父。其辭委曲。悲不忍讀。(『浣巖集』卷4, <翠梅傳>)

161) 一女兒被髮在前。(…)直上上階大號曰。兒乃獄囚金聲達女也。乞蒙恩活我父活我父。(『浣巖集』卷4, <翠梅傳>)

162) (...) 女猶蒲伏涕泣。不肯去曰。乞蒙恩活我父。如是者數四。(『浣巖集』卷4, <翠梅傳>)

습니다.” 장차 거것으로 말하여서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킨 것이다. 그가 먹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에 돌아왔다.¹⁶³⁾

- ② ㉠ 아버지가 죽자 文娘은 매일 밤 아버지의 시신을 안고서 통곡하였다. 먹지도 않고 장차 죽으려고 하였다. 이윽고 떨쳐 일어나 말하였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는 아직 살아있고 내 동생은 아직 장성하지 않았으니 내가 죽으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어린 동생에게 맡기는 것이리라. 나의 동생은 아직 장성하지 않았으니 내가 죽으면 누가 원수를 죽인단 말인가?”¹⁶⁴⁾
- ㉡ 文娘이 죽자 그 동생 曾娘이 말하였다. “내 아버지는 원통하게 돌아가셨고, 내 언니가 내 아버지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혼자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 말 기운이 悲壯하였다.¹⁶⁵⁾

인용문 ①의 <翠梅傳>에서는 孝를 실천하는 여성이 翠梅 한 명인 반면에 ②의 <孝子朴氏傳>에서는 文娘과 曾娘 두 명으로 나타난다.¹⁶⁶⁾ 먼저 인용문 ①을 살펴보면 ㉠~㉡의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애원함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不道德한 행동

163) 及父聞當死。遂絕口不食。女輒首叩獄門曰。若不食。女請先死。且爲詭辭。以慰安之。見其食已乃還。(『浣巖集』卷4, <翠梅傳>)

164) 父既死。文娘日夜抱父屍以哭。不食將死。既而奮曰殺吾父者猶在。而吾弟未壯。吾死將以殺父之仇。遺吾弱弟乎。吾弟未壯。吾死當誰殺仇。(『齋淵集』卷27, <孝子朴氏傳>)

165) 文娘已死。其姊曾娘曰吾父以冤死。吾兄爲吾父死。吾獨生何爲。(….) 辭氣悲壯。(『齋淵集』卷27, <孝子朴氏傳>)

166) 앞서 언급했듯이 南有容의 <孝子朴氏傳>과 安錫微의 <朴孝娘傳>은 동일 인물을 입전한 작품으로, 朴壽河라는 인물과 그의 두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이 나온다. 작품명과 함께 이 두 딸과 아들 이름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밝혀둔다. 우선, <孝子朴氏傳>의 작품명에 보이는 朴氏는 文娘만을 말하며, <朴孝娘傳>의 孝娘은 두 여성으로 朴壽河의 딸들을 말한다. <孝子朴氏傳>의 작품명과 人定記述 부분을 살펴볼 때, 文娘만을 입전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의 내용에서 文娘의 여동생 曾娘과 남동생의 孝行도 드러나고 있어, 작품명상의 朴氏는 ① 朴壽河의 자식들인 文娘과 曾娘, 아들로 볼 수도 있고, ② 孝女가 아닌 孝子라고 한 것과, 朴壽河가 山訟으로 인해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점에서 先祖에게 孝行을 보인 朴壽河 또는 아들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들의 孝行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 아닌 듯 하다. 따라서 필자는 女性人物傳에 주목하므로 <孝子朴氏傳>을 ①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다음, <孝子朴氏傳>과 <朴孝娘傳> 모두 아버지의 이름은 朴壽河로 동일하나, 두 딸에 대해서 前者의 작품에서는 첫째 딸을 文娘으로 둘째 딸을 曾娘으로 이름을 밝힌 반면, 後者の 작품에서는 이름 없이 伯娘과 季娘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들에 대해서 前者의 작품에서는 이름 없이 弟나 兒로 언급하고 있으며, 後者の 작품에서는 童子로 서술되나 후에 아버지가 臨終 직전에 붙인 이름인 追意가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명칭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朴壽河는 先祖를 위해, 朴壽河의 세 자식들은 아버지를 위해 孝行을 보인다. 그러나 본고는 女性人物傳에 입전된 여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남성이었던 朴壽河와 그의 아들인 追意가 보인 孝行은 다루지 않는다.

으로 인해 그에 따른 처벌을 대기 중인 아버지를 羞恥스럽게 여기거나 怨望한다거나 自歎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감정이다. 이 여성에게서는 그러한 감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法을 거슬러 아버지의 善處를 바라며 ㉠~㉡과 같이 글로 호소하기도 하고 席藁待罪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며 善處에 대한 확실한 대답까지 받으려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이 ㉠~㉡까지는 그래도 孝誠이 지극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은 死刑 선고를 받고 失意한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되돌려놓는 言行으로 獄門에 머리를 부딪치는 自害와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말은 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통해 이 여성의 두려움 없는 성격과 勇氣를 엿볼 수 있다.

다음 인용문 ㉡를 살펴보면 ㉠과 ㉡의 두 여성의 말을 통해 復讎를 결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의 翠梅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위한 孝였다면 여기 두 여성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孝를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로 보아 孝의 대상인 아버지의 生死 與否는 비중 있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翠梅의 아버지는 살아있었지만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고 여기 두 여성의 아버지는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翠梅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남다른 모습으로 적극성과 용기를 보였으며 이 두 여성 또한 남다르게 복수를 결심한 것이다. 보편적으로 父死 이후 자식으로서의 孝行이 지극한 哀悼나 廬墓살이로 나타남에 비해 분명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복수는 남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복수에의 결심은 순종과 인내를 미덕으로 삼는 여성상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그 의지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두 여성은 孝誠 뿐만 아니라 ㉠, ㉡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드러나듯이 동생을 걱정하기도 하고 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에서 友愛를 아는 여성이었으며 마땅히 자신이 죽거나 혼자만의 삶을 원치 않는 모습에서 犧牲적인 면모도 있는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⁶⁷⁾

167) 安錫徽의 <朴孝娘傳>에서는 이 두 여성을 더욱 자세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먼저, ㉠ 두 여성을 공

- ① “태어난 이래로 ㉠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 怛然히 슬펐습니다. 만약 ㉡ 아버지가 세상에 계신지 알았다면 결단코 찾았을 것입니다.” 자세하고도 간곡하며 지극하였다.¹⁶⁸⁾
- ② ㉢ 부탁하며 말하였다. “四方의 遠近을 논하지 말고 반드시 ㉣ 우리 집안 사람들을 찾은 후에 돌아와서 알려 주시오.”¹⁶⁹⁾
- ㉤ 얼마 지나 陸氏婦는 또한 사람을 보내 편지를 전하기를 “마땅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삿날에 몸소 갈 것입니다.”¹⁷⁰⁾
- ㉥ 마침내 전대를 열어 良田을 사서 제사와 李公의 衣食을 해결토록 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몸소 蠶桑을 하여 모은 재산이 萬金에 이르러 집은 매우 넉넉합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 아버님의 봉양에 미칠 수 없었고 아버님에 미칠 수 없음을 생각하여 嫡弟에게 정을 보인 것이 이와 같을 따름입니다. 또 자손이 깊은 산골에 머물러 과거에 不便하여 李公에게 청하여 아들 중에 뛰어난 자 한 명과 더불어 함께 서울로 가서 田宅을 사서 머물게 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결행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李公이 매우 가난하였으나, 힘입어 자못 자급할 수 있었다.¹⁷¹⁾
- ㉧ 陸氏婦는 얼굴과 자태가 뛰어나고 시원하여 丈夫의 기운이 있었다고 한다.¹⁷²⁾

통적으로 어머니를 여읜 후 禮에 맞게 슬퍼했고 文史와 義理에 밝았으며 일처리가 뛰어난 인물들로 그렸다(兩娘子未踰十歲喪母。哀毀執禮已有聞。及長。皆解文史曉義理。處事有過人者)。 그리고 ② 伯娘을 아버지가 山訟에서 지고 擊錚하려고 할 때 得될 것이 없는 일이라고 만류하는 사리판단력이 분명하며 당당한 여성으로(彼有權力。我家終不可敵。在外州縣既如是。則安知朝廷搢紳。亦無爲慶餘左右之者乎。老親在堂。不宜以無益之行。涉千里之道), 여자로 태어나 원수를 죽일 힘이 부족함을 한탄하고(恨爲女子。不可遠赴而刃讎人),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복수의 의지를 다지며(讎人來矣。吾欲手刃之。死不可避。…), 父讐在邇。何忍坐視), 자신의 죽음에 임해 노비에게 복수를 맡기기까지 하는(同達乎。父讐未報。吾命將盡。以復讐之事付汝) 투쟁적인 면모의 여성으로 그렸다. 다음으로 그의 동생인 ③ 季娘을 <孝子朴氏傳>과는 달리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즉, 아버지의 복수에 언니와 함께 하지 못했음을 통탄하는 友愛를 아는 여성으로(吾不能與吾兄同死父讐。…) 忍使死兄不得瞑目耶), 獄事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바르게 해결 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하고(而見獄情反覆。讎人不死。…) 事下本道。萬無伸斷之望。…) 獄事尙無伸決之期。故女息姑留都下。期於得決。去留死生。未能預定耳。伏聞襄禮有日。此何遽也。踰歲不葬。雖知有人言。顧我兄抱冤之靈。想必惘然於冥漠中。父讐未復之前。不可使入地。倘或獄治淹滯。伸正無望。則女息當隨死兄。并埋先君之側耳。…) 前年檢屍時。以劒痕二杖痕三載之案矣。今以一劔。則吏屬奸筆也。願按使開棺檢屍), 구차히 사는 것을 원치 않는(人生到此。死生已決。餘外區區。尙暇顧哉) 是非 판단과 문제해결력, 용기까지 갖춘 여성으로 그렸다.

168) 以生來不識父顏。聞人喚爺。怛然懷戚。若知父之在世。決當尋覓。縷縷懇至。(『直菴集』卷20, <孝妓斗蓮傳>)

169) 屬曰勿論四方遠近。必尋見我家人。然後歸報。(『海左先生文集』卷39, <陸氏婦傳>)

170) 陸氏婦又專伴書報曰。當及先大人忌日身往也。(『海左先生文集』卷39, <陸氏婦傳>)

171) 遂發橐中藏。買置良田。爲奉祭祀及李公衣食業。其言曰。吾躬蠶桑。積產至萬金。家甚饒。然願無逮吾大人養也。思以不得逮大人者。用情於吾嫡弟。故如是耳。又以子孫居窮峽不便科宦。請於李公。以其諸子中有進就者一人。與俱至京師。欲買田宅使居之。有故不果。然李公方貧甚。賴而頗自給。(『海左先生文集』卷39, <陸氏婦傳>)

우선, 인용문 ①의 斗蓮과 ②의 睦氏婦의 신분을 살펴보면 각각 妓女와 庶女로서 공통적으로 微賤하였다. 일찍이 이 두 여성의 아버지는 먼 他地에서 妓女와 관계를 맺었고 그녀들이 妊娠한 사실을 알기도 했고 몰랐을 수도 있다.¹⁷³⁾ 이러한 妊娠 사실의 認知 與否를 떠나 아버지라면 당연히 子息扶養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음은 이 여성들의 신분에서 기인한다. 즉, 두 여성의 어머니는 당시 사회에서 진실한 사랑의 상대라기보다는 남성의 노리개감¹⁷⁴⁾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妓女였다. 따라서 妓女 출신인 이 여성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던 사회로 이 여성들을 자식으로서 외면했다고 해도 指彈 받을 일이 아니었다. 이로 볼 때 이 여성들 또한 그들의 신분과 현실 속에서 굳이 孝行을 보일 필요성은 줄어들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여성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地域적으로도 먼 곳에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孝를 다해야 하는 당위성은 더욱 無色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여성들은 ㉠과 같이 한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모실 수 없었던 현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으며 ㉡와 같이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집안사람들을 오히려 자신이 직접 찾을 결심을 하기도 하고 商人을 雇用해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아버지를 한번도 보지 못한 채 한 가정에서 사랑 어린 보살핌도 받지 못했고 미친한 신분과 疏外된 현실적 제약 속에서 보인 말하기에 뛰어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睦氏婦는 인용문 ②의 ㉢과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대한 孝도 잊지 않고 있으며 ㉣, ㉤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嫡弟들의 궁핍

172) 睦氏婦容姿雋爽。有丈夫氣云。(『海左先生文集』卷39, <睦氏婦傳>)

173) <孝妓斗蓮傳>에서 斗蓮의 아버지는 妊娠 사실을 알고 부채에 題하여 주었으며, <睦氏婦傳>에서 睦氏婦의 아버지는 妓女와 관계를 가진 사실은 나타나나 妊娠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뒤이어 죽었다고 했다.

174) 妓生이 된 여인을 남성들은 解語花라 부르며, 말을 알아듣는 아름다운 노리개쯤으로 여겼다.(南恩暉, 「18, 19세기 漢詩·文에 나타난 女性形象: 女性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11, 東洋古典學會, 1998, 53쪽)

한 생활을 헤아리고 도움의 손길을 婉曲하게 제안하며 排布있게 물질적인 공급까지 맡는 丈夫다운 면모도 지닌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형적으로 孝를 실천하는 여성상에서 벗어난 면모들이 있었기에 남성 못지않은 孝行으로써 입전되며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孝의 실천 양상, 즉 앞서 살펴본 여성들이 孝를 어떠한 모습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앞서처럼 두 작품씩 묶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① ㉠ 여자 아이는 그 아버지가 처음 갇혔을 때부터 朝夕으로 몸소 밥을 가져가 獄中에서 먹인 것을 數年을 한결같이 하였다.¹⁷⁵⁾
- ㉡ 그 곡식은 民衆에게서 얻은 것이다. 하루의 밤낮을 미친 듯이 뛰어다녀 數百 집을 두루 거쳐 집집마다 번번이 슬프게 울면서 고하며 구걸하여서 그 마음에 감동하였던 것이다.¹⁷⁶⁾
- ② ㉠ 文娘은 큰 도끼를 잡고 (...) 마침내 달려서 산에 올라가 朴縣監의 아버지 무덤을 베고, 도끼가 부러지자 손으로 파헤쳐서 손가락이 모두 끊어졌다. 이에 여러 무기를 가진 자들도 모두 그 관을 쪼개고 꺼내서 그것을 불태웠다.¹⁷⁷⁾
- ㉡ 서울에 가서 擊錘하기를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감추고 아버지와 언니의 원통한 상황을 스스로 호소하였다.¹⁷⁸⁾

인용문 ①의 翠梅의 孝行을 살펴보면 ㉠과 같이 收監된 아버지의 봉양과 ㉡과 같이 아버지의 救命 활동으로 나타난다. 즉, 收監된 아버지에게 數年 동안 朝夕으로 몸소 밥을 나르는 길고도 수고로운 孝行을 보인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惰性에의 警戒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힘들고도 至難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이 여성의 孝行은 한결같이 변함없게 실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孝行을 보이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형 선고로 인해 더욱 적극적인 孝行의 모습

175) 女自其父始囚。朝夕躬持飯飧。往食獄中。數年如一日。(『浣巖集』卷4, <翠梅傳>)

176) 其得穀於衆也。用一晝夜。狂奔疾走。徧歷數百家。家輒哀號告乞。以感動其心。(『浣巖集』卷4, <翠梅傳>)

177) 文娘執大斧。(…) 遂走上山。斫朴縣監父塚。兵折以手握。指盡落。於是諸受兵者。皆制發其柩而燬之。(『雷淵集』卷27, <孝子朴氏傳>)

178) 西入洛。擊登聞鼓。被髮韜面。自訟父兄冤狀。(『雷淵集』卷27, <孝子朴氏傳>)

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救命 활동이 이어진다. 즉, 아버지가 흠친 쌀 이상의 양을 모아 이로써 아버지가 贖罪되기를 바라며 晝夜로 東奔西走하고 數百의 집을 찾아다니며 지극한 孝心을 보여 결국 觀察使까지도 感服시키며 아버지의 運命도 바꾼 孝行이었다고 하겠다.

다음 인용문 ②의 文娘과 曾娘의 孝行을 살펴보면 文娘은 ㉠과 같이 憤怒에 치우친 感情的 행동으로 나타나고 曾娘은 ㉡과 같이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理性的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文娘은 아버지의 죽음에 理性을 잃고 아버지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손가락이 끊어질 정도로 남의 조상의 무덤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있다. 복수를 위한 방법 및 수단, 그리고 시간과 장소 등은 모색되지 않으며 아버지의 원수인 朴縣監을 찾아 죽이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 이 墓를 훼손한 행동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극도의 슬픔과 지극한 孝心에서 이성을 차릴 겨를도 없이 이루어진 감정적 행동으로 孝行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曾娘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여서 분노의 감정도 추스른 상태였을 것이고 언니의 죽음까지 있어 無謀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함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옴을 예상했을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獄事 및 원통한 父兄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擊錚하는 이성적 행동으로 孝行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¹⁷⁹⁾ 이상 살펴본 翠梅와 文娘, 曾娘의 孝行은 아버지의 生死與否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세 여성 모두 진정으로 마음과 정신에서 우러나온 孝行의 極致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179) 앞서 安錫傲의 <朴孝娘傳>에서 살펴본 여성인물의 형상화와 같이, 두 여성인물의 행동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먼저 ㉠ 伯娘이 朴慶餘의 무덤을 훼손한 것은 똑같으나 그러한 행동이 朴慶餘를 잡기 위한 유인책으로 서술되고 있으며(乃大呼操斧而出。從婢僕數人。卽上慶餘之祖墳。躬自披掘。十指皆血。水火并用。鐵木亂下。而慶餘之祖柩。俄頃燒毀矣。慶餘終不束。伯娘子哭訴於縣。以頭扣門。門閉終不納。伯娘이 죽는 것은 같으나 <孝子朴氏傳>에서는 朴慶餘에 의해 찢겨 죽었다고만 말한 반면에(朴監立點蒼頭爲軍。圍山執文娘。磔殺之), 이 작품에서는 伯娘이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朴慶餘와 싸우다 죽는 것으로 그렸다(提劍躍馬。超入敵中。慶餘等大噪。衆鋒迎擊。伯娘子死焉)。 다음 ㉡ 季娘의 擊錚하는 모습이 <孝子朴氏傳>에서는 간단히 서술된 반면에, 이 작품에서는 자세하게 擊錚하는 과정과 모습, 감정까지도 그려졌음을 볼 수 있다(遂治擊錚之行。(…)再擊錚。尙不得伸明。而大臣往來。攀轅泣訴。見之者莫不下淚。再入該曹。陳白無餘。而事又下本道)。

- ① ㉠ 書封, 衣袴, 參朮 등의 종류를 전했다. 病든 몸을 부축 하면서 열어 보았다. 이에 斗蓮이 손수 자신이 다스려서 보낸 것이었다.¹⁸⁰⁾
- ㉡ 斗蓮은 곧 행장을 꾸리고 말을 타고 千里의 험한 길을 가서 그 아버지를 洪州 金馬川에 와서야 보고 스스로 大興으로 옮겨가 살았다. (...) 斗蓮은 머물면서 편안히 모셨다. (...) 할 수 없이 이별하고 떠나간 후 또한 여가를 청해서 와서 보았는데 2일, 3일에 이르러 와 반드시 오래 머물다가 차마 떠날 수 없어 했다. 마침내 임종을 모실 수 있어 상복을 입고 돌아갔다고 한다.¹⁸¹⁾
- ② ㉠ 기약한 날에 이르러 과연 왔다.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더불어 서로 보며 매우 기뻐하였다. 물건을 갖추어서 祭需를 도왔다.¹⁸²⁾
- ㉡ 그래서 여러 자식들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供給할 수 있었다.¹⁸³⁾

인용문 ①의 斗蓮과 ②의 睦氏婦의 孝行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物質的 奉養 또는 供給으로 나타난다. 즉, 斗蓮의 아버지는 살아있었고 睦氏婦의 아버지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따라서 斗蓮은 인용문 ①의 ㉡과 같이 나중에 몸소 아버지를 봉양하기 이전에 ㉠과 같이 物質的 봉양을 보일 수 있었던 반면에 睦氏婦는 인용문 ②의 ㉠과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祭需도 충당하게 하며 ㉡과 같이 嫡弟들의 生活까지 돌보아 주는 物質的 공급을 보인 것이다. 여기서 이 여성들에게 物質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口腹을 충족시키는 현실적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식으로서 한 번도 못 해 본 孝를 담아 보내는 孝의 실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멀리 떨어져 살았던 이들에게 그 시간과 거리만큼 길고도 깊게 패인 그리움과 서로간의 空白으로 인한 어색함을 달래주고 撫摩시켜 주는 매개체가 이 物質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物質은 이 여성들의 신분과 현실 속에서 몸소 다스린 것들이기에 더욱 가치를 발휘한다.

180) 傳書封及衣袴參朮等種。扶病開視。則乃斗蓮手自修送者。(『直菴集』卷20, <孝妓斗蓮傳>)

181) 斗蓮卽治裝跨馬。間關千里。來見其父於洪州金馬川。盖自大興移居也。(…)留連侍娛。(…)不得已別去。其後又請暇來見。至于再至于三。來則必久留不忍去。竟得侍終服喪而歸云。(『直菴集』卷20, <孝妓斗蓮傳>)

182) 及期果來。與親黨相見甚歡。爲備物助祭需。(『海左先生文集』卷39, <睦氏婦傳>)

183) 而所以供給其諸子不少衰。(『海左先生文集』卷39, <睦氏婦傳>)

이상으로 前代부터 남성의 영역에 머물던 忠이념과 남성의 孝行과 여성 烈行에의 바탕에 비중을 두었던 孝이념을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서 여성의 영역으로 끌어와 그녀들의 현실에 맞게 실천하고 독립된 여성의 이념으로 실천한 여성을 주목하고 형상화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에게 보인 忠·孝의 실천 양상들은 남성 못지않았으며 規範과 模範의 典型的·理想的인 여성상에서 나아가 적극적이고 남다른 면모를 보인 여성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새로운 女性 形象에의 注目

忠·孝·烈은 전통적 이념으로 이를 規範的으로 실천한 여성을 입전하는 것은 전통적 傳의 성격에 부합하며 肯定的으로 형상화되었다. 이것은 이념이 思考를 지배하고 사고가 行爲를 유발하며 그러한 행위를 보인 여성을 입전하여 작품화함으로써 이념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循環 고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중시하여 여성에게 강조된 烈이념은 여성의 사고를 지배하였고 이러한 烈에 대한 집착된 사고는 變質된 烈行으로 從死의 행위를 유발하면서 조선후기 사회에서 守節은 從死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烈이념은 더욱 강조되었고 從死가 典型化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달리 忠과 孝는 前代부터 비교적 남성에게 주목되었고 강조되어 온 이념이었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 여성에게도 새롭게 주목하여 작품화하기 시작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忠·孝이념이 烈이념만큼 여성의 사고를 강하게 지배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忠·孝가 남성의 영역에서 여성의 영역까지 확장된 점과 烈이 남성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순환 고리가 결코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듯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이 前代의 전통적 이념이었던 忠·孝·烈을 소재로 삼아 순환 고리를 만들면서 그 規範과 價値의 宣揚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볼 새로운 여성 형상은 이러한 순환 고리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즉, 이념이 여성의 사고를 지배하더라도 이념에 따라 模範的이고 肯定的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념이 여성의 사고를 지배하지 않더라도 非凡하며 肯定的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여성에게 이념이 우선시 되어 입전 했다가보다는 여성의 행위 자체가 獨特하고 非凡했기 때문에 입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이 前代의 전통적 傳의 소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性別의 차원을 넘어서는 시각의 확장이 보인 데서 나아가 하나의 단어로 形言할 수 없는 소재와 주제까지도 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소재와 주제가 命名할 수 있는 하나의 理念이 아니라 이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獨特하고 非凡한 行爲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성을 새롭게 주목하고 입전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이념적 사고에서 나온 獨特한 행위를 보인 여성을 통해서는 더욱 그 규범과 가치를 부각시키고, 이념과는 별개로 非凡한 행위를 보인 여성을 통해서는 더욱 그 행위를 표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이념의 실천 與否와 관련하여 獨特한 행위를 한 여성과 非凡한 행위를 한 여성으로 나누어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理念에 따른 獨特한 行爲

조선후기 사회에서 烈이념은 신분의 高下를 莫論하고 모든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규범과 가치로서 여성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 곧, 사회가 여성의 이념으로서 烈을 비롯한 節까지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들은 더 이상 教育을 받고 敎化書를 읽는 士大夫家 여성들만의 것이 될 수 없었으며 教育과 배움의 혜택이 없어도 이러한 이념적 사고를 지닌 여성을 훌륭하게 여기게 되었다. 즉, 이념의 실천은 특정 계층만이 아닌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推移 속에서 어떠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평가할 때 목적이 이념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실천의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든 容納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이념적 사고에서 나온 獨特한 행위를 보인 여성들이 입전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행위를 이념의 실천으로 보며 긍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의 獨特한 행위를 입전하여 긍정하고 있지만 이 여성의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볼 때 規範的이고 긍정할만한가가 문제시 된다. 본래 傳이 규범적인 인물을 입전하여 기린다는 창작 목적을 想起한다면 아무리 행위가 獨特했다고 하더라도 입전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규범적이지 못한 獨特한 행위를 보인 여성을 입전한 것을 통해 이념적 사고에서 나온 그의 실천은 어떠한 계층을 막론하고 훌륭히 여기게 된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多樣性을 포용하고 柔軟性을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硬直되고 歪曲된 규범과 가치가 절대적으로 信奉되던 사회 현실의 표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 후기 사회였기 때문에 전통적 규범과 가치인 忠·孝·烈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끔찍한 自害와 反人倫의 棄兒, 그리고 殺人조차도 容認되었고 褒賞될 수 있었던 것이다.¹⁸⁴⁾ 따라서 獨特한 행위를 보인 여성을 입전한 근본적인 목적은 당연히 규범과 가치의 선양이지만 만약 행위의 獨特함이 없었다면 士大夫家 여성의 전형적인 烈行을 입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기에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행위의 獨特함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으며 효과적으로 규범과 가치의 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任允摯堂 (1721~1793) <崔洪二女傳> ② 李德懋 (1741~1793) <銀愛傳>

任允摯堂은 鹿門 任聖周(1711~1788), 雲浩 任靖周(1727~1796)의 누

184) 강명관, 「『三綱行實圖』 : 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5집, 월인, 2002

이이자 申光祐의 아내이다. 여성 작가¹⁸⁵⁾가 쓴 <崔洪二女傳>의 내용은 三嘉縣에 살았던 武人の妻와 딸인 崔氏와 洪氏는 武人이 살해되자 복수할 기회를 엿보다가 원수를 죽이고 官에 가서 자수하였는데 조정에서 이 母女의 殺人罪를 용서하고 復戶까지 내렸다는 것이다.¹⁸⁶⁾ 다음으로 李德懋의 <銀愛傳>의 내용은 康津縣 塔洞 마을에 良家の 딸인 金銀愛와 安氏 할미, 崔正連이란 사내아이가 있었다. 安氏 할미가 銀愛와의 婚事を 빌미로 正連을 꾀었고 자신의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게 되면서 소문이 퍼져 銀愛는 시집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金養俊이란 자가 銀愛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安氏 할미의 誣告는 더욱 심해졌고 銀愛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안사람들이 없는 틈을 엿보고 들어가 安氏 할미를 죽이고 이어 正連까지 죽이려 했으나 어머니의 만류로 그만둔다. 里正이 官에 보고하여 銀愛가 獄事를 치르던 중 觀察使 尹蓍東이 銀愛의 獄案을 임금에게 올려 殺人罪를 용서받았다는 것이다.¹⁸⁷⁾

185) 본고의 연구대상 작가 중 유일한 여성이다. 여성 작가가 쓴 女性人物傳에는 어떠한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양상과 작가의식을 살펴보는 일은 불가능하다.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작가는 모두가 남성으로 다수의 남성작가의 女性人物傳과 한명의 여성작가의 女性人物傳을 놓고 그 양상을 비교·고찰할 수도 없으며, 여성 작가들의 女性人物傳만을 모아 놓고 비교·고찰할만한 작품들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女性人物傳이라는 본고의 제목 때문에 여성 작가에 비중을 둔다거나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186) 崔洪二女者。三嘉武人洪氏之妻及女也。武人爲人所殺。二女欲爲報仇。相與語曰。夫人之所以異於禽獸者。以其有孝節耳。妻之報夫讐節也。子之報父讐孝也。今夫子不幸而爲人所害。吾等食生而不報讐。則將何以見夫子於地下。且何以立於世乎。於是。挾劍而窺讐家。數年乃得遇刺而殺之。入縣告之。故太守以聞。朝廷義之。赦殺人罪。復其戶。無所與。(『允塾堂遺稿』<崔洪二女傳>)

187) 銀愛金姓。康津縣塔洞里之良家女也。里有安媼者。故娼也。險險荒唐。多口說。疥癩遍體。不任搔癢。發心蟲。益不慎言。嘗丐貸米豆鹽豉于銀愛之母。母有時不與。媼輒慍恚。思欲中之。里童子崔正連。卽媼之夫之妹之孫也。年十四五。冲穉媚好。媼試挑之以男女昏媾之事。仍說之曰。娶妻如銀愛者。顧何如。正連笑曰。銀愛美艷。豈不幸甚。媼曰。第倡言。若業已私銀愛者。吾爲若成之。正連曰諾。媼曰。吾患疥癩。而醫言瘍科藥料直最高。事苟成。若爲我當之。正連曰。敢不如教。一日媼夫自外而至。媼曰。銀愛耽正連。要我行媒。期于吾家爲正連大母所覺。銀愛爬牆而遁。夫切責曰。正連家世微。而銀愛室女也。慎勿出口。於是一城喧藉。銀愛嫁幾不得售。惟里人金養俊。深知其明白也。遂娶以爲室。則誣言益播。尤不忍聞。己酉閏五月二十五日。安媼大言曰。初與正連約行媒。報我藥直。銀愛忽畔而嫁他夫。則正連不如約。我病自此訊。銀愛眞我仇。里中老少。相顧駭愕。瞬目搖手。不敢出言。銀愛素剛毒。受媼誣辱。已二年。至此尤愧恨。實不能堪。必欲手劓安媼。一洗此冤憤而不可得。翌日。值家人不在。伺安媼獨宿。夜一更。持厨刀。揜袖扱幕。颯然而步。直入安媼之寢。一燈翳翳。媼孤坐。將就眠。露半體。只繫帶。銀愛橫刀而前。眉眼俱倒豎。數之曰。昨日之誣。甚於平昔。吾欲甘心于爾。爾嘗此刀。媼意以爲彼固纖弱。不足有爲。應曰。欲刺試刺。銀愛疾聲曰。可勝言哉。側身倏刺其喉左。媼猶

이 두 작품 모두 입전 여성들이 殺人을 했으나 용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세 가지 물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이들이 殺人을 한 이유이고 두 번째는 殺人의 의미이며 세 번째는 용서받은 이유에 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에서는 殺人을 했지만 입전될 수 있었던 이유 즉, 전통적 규범과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전통적 규범과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진 그것을 실천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며 세 번째에서는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물음인 殺人을 한 이유의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① 武人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되자 ② 두 여인은 그를 위해 원수를 갚고자 서로 말했다. “무릇 사람이 禽獸와 다른 것은 人間에게 ㉠ 孝와 節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은 節이고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孝이다. 이제 어르신 불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었으니, 우리들이 살기를 욕심내어 ㉡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장차 지하에서 어찌 어르신을 만나 뵈겠으며, 또 어떻게 세상에서 설

活。急把其持刀之腕。銀愛愕然抽掣。又刺喉右。嫗始右仆。遂蹲踞于旁。刺缺盆之左。又刺肩胛。腋脇膈膊頸及乳皆左也。未迺刺右脊背。或二刺三刺。揮霍飛騰。一刺卽一罵。凡十有八刺。未暇拭刀血。下堂出門。急向正連之家。聊以洩餘憤焉。路遠其母泣挽而歸。銀愛時年十八。里正奔告于官。縣監朴載淳。盛威儀。肆嫗屍。驗刺死狀。究銀愛刺嫗何爲。且嫗健婦。汝弱女。今創刺凶悍。匪若獨辦。無隱直告。時伍伯離立孿孿。刑具滿地。干連瑟縮無人色。銀愛項有枷。手有拳。脚有鐐。拘繫縛束。體弱委垂。殆不能支。然面無怖。言無哀。毅然而對曰。歛官我父母。試聽四言。室女受誣。不污猶污。嫗本娼家。敢誣室女。古今天下。寧有是哉。囚之刺嫗。豈可得已。囚雖蒙默。嘗聞我殺人。官誅身固知。昨日殺嫗。今日當伏誅。雖然。嫗旣囚刺誣人之律。官無所施。但願官家打殺正連。且念囚獨受誣。更有何人助囚。共割行此凶事。縣監太息良久。取驗刺嫗時服飾苧衫苧裙。都是殷赤。幾不辨衫白而裙青。悚而壯之。雖欲原釋法不可屈。彌縫讞詞。上于觀察使。觀察使尹行元。亦飭推官。姑究其同謀爲誰。以緩其抵法。訊覈凡九次。詞如一。惟正連沖釋。爲嫗註誤。置不問。庚戌夏。國有大慶。上錄死囚。觀察使尹著東上此獄。而讞詞頗微婉。上惻然欲傳生。重其事。命刑曹就議于大臣。大臣蔡濟恭獻議。銀愛報怨。雖出至寃。罪犯殺人。臣不敢爲參恕之論。上下批若曰。貞女被淫誣。天下之切冤。夫以銀愛之貞。判一死顧易爾。然恐徒死無人知也。故提刀殺仇。使鄉黨。曉然知己則無玷。彼固可剛。若銀愛而生于列國之世者。其跡雖異。將與聶嫗齊其名。而太史之傳。烏可已也。昔海西處女殺人。似此獄。監司請宥。先王褒諭亟從之。女方出獄。媒僮雲集。爭購千金。竟爲士妻。至今傳爲美談。然銀愛黽勉含寃至適人。方報怨則尤難矣。不有銀愛。何以樹風教。特貸其死。向者長興申汝個之放。蓋出於敦倫常重氣節。今有銀愛。亦類是爾。銀愛。汝個兩獄案。願其大略于湖以南。俾人人無不知也。(『靑莊館全書』卷20, 「雅亭遺稿」12, <銀愛傳>)

李德懋의 <銀愛傳>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입전되었는데, 그 첫 번째로 입전된 인물이 金銀愛였고, 두 번째로 입전된 인물이 申汝個이다. 두 인물이 모두 殺人을 범하였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석방되었다. 본고에서는 여성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金銀愛만을 살펴본다.

수 있겠는가.”¹⁸⁸⁾

- ② 銀愛는 본래 강하고 모진 데가 있었다. ㉠ 安氏 할미가 꾸며낸 말로 욕을 당한 지도 두 해나 되었는데 ㉡ 이 지경까지 되고 보니 너무도 부끄럽고 억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반드시 ㉢ 자기 손으로 安氏 할미를 찔러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씻어내고자 했으나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다.¹⁸⁹⁾

먼저 위의 인용문 ㉠을 보면 殺人을 한 이유를 ㉠ 부분을 보고 원수를 갚고자 해서라고 답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답한다면 과연 이 여성들이 입전될 수 있었겠는가. 이에 대한 답은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전통적 규범과 가치 속에서 찾아야만 입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따라서 ㉡ 부분이 직접적으로 殺人을 하기로 決心하고 決行하게 된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武人의 妻인 崔氏가 하는 말로 아내로서의 節과 자식으로서의 孝를 말하여 殺人을 하게 된 것은 이 節과 孝를 실천하기 위해서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 부분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節과 孝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죽어서도 남편 얼굴을 볼 면목이 없으니 羞恥스러운 것이고 살아서도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전통적 규범과 가치를 외면하였으니 또한 羞恥스러운 것으로 죽음보다 못한 삶이 될 것을 염려하는 것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다음 인용문 ②의 여성 또한 節 때문에 殺人하였다고 답할 수 있다. 인용문 ①에서처럼 직접적으로 節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의 誣告한 辱이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성은 자신의 貞節을 이유 없이 安氏 할미에게 모해 당한다. 貞節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던 규범과 가치였는데 시집오기 전부터 2년이나 되는 긴 세월동안 끊임없이 貞節을 모해 당해왔다. 이러한 모해 때문에 시집조차 못갈 뻔 했던 이

188) 武人爲人所殺。二女欲爲報仇。相與語曰。夫人之所以異於禽獸者。以其有孝節耳。妻之報夫讐節也。子之報父讐孝也。今夫子不幸而爲人所害。吾等貪生而不報讐。則將何以見夫子於地下。且何以立於世乎。(『允摯堂遺稿』〈崔洪二女傳〉)

189) 銀愛素剛毒。受嫗誣辱。已二年。至此尤愧恨。實不能堪。必欲手副安嫗。一洗此冤憤而不可得。(『靑莊館全書』卷20, 「雅亭遺稿」12, 〈銀愛傳〉)

여성은 결국 ㉠에서처럼 참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殺人을 결심하고 결행하게 된 것이다. 이미 이 당시 사회 속의 여성들은 그 계층에 관계없이 사회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치 자신의 宿命과도 같이 節을 지키고 있었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가 얼마만큼 전통적 규범과 가치를 앞세워 그에 따른 歪曲과 變質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端的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물음인 殺人の 의미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① 이에 劍을 끼고 원수의 집을 엿보기 數年만에 그를 만날 수 있게 되자, 그를 찔러 죽였다.¹⁹⁰⁾

② 다음날 銀愛는 집안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서 安氏 할미가 혼자 자는 것을 엿보고 저녁 8시 무렵에 부엌칼을 들고 소매를 걷어 부치고 치맛자락을 걷어챌 채 날듯이 걸어 곧장 安氏 할미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 銀愛가 칼을 겨누고 앞으로 나아가서 눈을 치켜뜨고 할미의 갈뿔을 하나하나 따지며 말했다. “어제 지어낸 말은 평소보다 심하기에 내 원수를 갚으러 왔으니 이 칼 맛 한 번 보라.” 할미는 銀愛가 본래 어리고 약하니 어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찌를 떤면 질러 보시지.” 하니 銀愛가 소리를 지르며 “與否가 있나!” 하더니 몸을 기울여 순식간에 할미의 목 왼편을 찔렀다. 할미가 그래도 죽지 않고 얼른 銀愛의 칼을 든 손목을 잡았다. 銀愛가 순식간에 뿌리치고 다시 목 오른편을 찌르니 할미가 드디어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銀愛는 할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어깨 왼편을 찌른 뒤에 계속해서 왼쪽 肩胛과 겨드랑이, 목과 가슴을 찌른 뒤 마지막으로 오른쪽 등을 찔렀다. 또 肩胛을 찔렀다. 혹 두 번 세 번 찌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펄펄 뛰면서 한 번 찌를 때마다 한 번씩 욕을 하며 무려 열여덟 군데나 찔렀다.¹⁹¹⁾

위의 두 인용문은 여성들의 殺人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殺人을 위해 기회를 엿보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殺人 대상을 찾아 나서며 殺人에 이용한 도구와 그 방법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용문 ①이 이러한 내용을 한 줄로 표현한 것에 비해 인용문 ②는 對話와 獨白은 물론 상황 描寫까지 하면서 자

190) 於是。挾劍而窺讐家。數年乃得遇刺而殺之。(『允摯堂遺稿』〈崔洪二女傳〉)

191) 翌日。值家人不在。伺安媪獨宿。夜一更。持厨刀。揜袖扱裾。颯然而步。直入安媪之寢。(…) 銀愛橫刀而前。眉眼俱倒豎。數之曰。昨日之誣。甚於平昔。吾欲甘心于爾。爾嘗此刀。媪意以爲彼固纖弱。不足有爲。應曰。欲刺試刺。銀愛疾聲曰。可勝言哉。側身倏刺其喉左。媪猶活。急把其持刀之腕。銀愛驚然抽掣。又刺喉右。媪始右仆。遂蹲踞于旁。刺缺盆之左。又刺肩胛。腋脇胳膊頸及乳皆左也。未迺刺右脊背。或二刺三刺。揮霍飛騰。一刺卽一罵。凡十有八刺。(『青莊館全書』卷20, 「雅亭遺稿」12 〈銀愛傳〉)

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殺人 행위만을 놓고 보면 두 번째 물음인 殺人的 의미를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 이 물음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 물음의 답이었던 節의 실천적 측면에서 생각해볼아야 한다. 즉 殺人을 한 이유가 節을 위해서였다면 殺人을 한 행위는 節의 실천 양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용문 ①의 여성은 앞서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이 節¹⁹²⁾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殺人을 한다. 전통적인 烈行에서라면 남편의 죽음 이후 從死 또는 守節하거나 貞節을 지키기 위해 自殺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이 여성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殺人을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烈행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데서 나아가 他人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념의 실천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前代에는 없던 일로 獨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殺人的 의미는 節이라는 이념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獨特한 행위를 통한 節이념의 실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문 ②의 여성에게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殺人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여성은 앞서 말한 전통적인 烈行에서 본다면 後者¹⁹³⁾에 가깝다. 그런데 後者에 가까운 이 烈行 또한 獨特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貞節을 지키기 위해 自殺이 아닌 殺人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이 貞節이 위협 받거나 모해를 당하면 자신의 죽음으로 지켜내고 극복해내는 것이 전형적인 烈행의 실천 양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貞節을 모해한 대상을 찾아 죽인다. 이 또한 앞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烈행이 他人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데까지 나아가

192) 당시에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거나 아버지의 無罪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傳의 소재가 된 것은 상당히 많으나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나서는 일은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節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 節이 단지 守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남편을 죽인 원수를 찾아내 복수하는 것에까지 나아갔다고 보았다.(임유경, 「仁允摯堂의 傳 서술 방식과 여성의식」, 『泰東古典研究』 제16집, 翰林大學校附設泰東古典研究所, 1999, 11~12쪽)

193) 前者를 남편의 죽음 이후 從死 또는 守節하는 것, 後者를 貞節을 지키기 위한 自殺로 말했다.

것으로 獨特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여성의 殺人은 節이념의 실천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음인 용서받은 이유의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① 朝廷에서는 그들을 ㉠ 義롭게 여겨어 殺人罪를 사면해주고 ㉡ 그 門戶를 회복해 주었으며, 상관하지 않았다.¹⁹⁴⁾

② 임금님께서 이에 대해 답하셨다. “㉠ 貞女가 음란하다는 누명을 썼으니 天下의 절절한 원한이었으리라. 무릇 銀愛의 貞潔함으로는 한 번 죽기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헛되이 죽어 다른 사람들이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 두려워 칼을 들고 원수를 죽여 마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도록 한 것일 따름이니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저 할미는 살을 발라 죽일 만했다. <㉡ 만약에 銀愛가 列國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 행적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聶嬰¹⁹⁵⁾과 그 이름을 나란히 했을 것이니 太史公이 어찌 傳을 어찌 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 옛날 海西 처녀가 사람을 죽인 일이 이 獄事와 비슷하다. 監司가 처녀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자 先王께서 그를 기려 상을 내리시고 곧 그 말을 따르셨다. 그 처녀가 獄門을 나서자 중매하는 사람들이 구름 같이 모여 들어 다투어 千金을 내걸었고 마침내 그 처녀는 선비의 아내가 되었다. 그 일은 지금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한데 銀愛는 원한을 품었으나 애써 참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 뒤에 원수를 갚았으니 더욱 어려운 일이다. ㉣ 銀愛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風俗을 바로 세우겠는가? 특별히 사형을 면하노라. <㉤ 지난해에 長興의 申汝偶을 풀어준 것도 대체로 人倫을 두터이 하고 節義를 중히 여기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銀愛를 용서하는 것도 그와 같다.> 銀愛와 汝偶의 두 獄事는 그 대략을 湖南 지방에 반포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하라.”¹⁹⁶⁾

위의 인용문 ①을 보면 직접적으로 義롭게 여겨 殺人罪를 용서하였다고 나온다. 殺人을 한 이들의 행위가 의롭다니 合當한 말인가. 이는 殺人未遂에

194) 朝廷義之。赦殺人罪。復其戶。無所與。(『允摯堂遺稿』〈崔洪二女傳〉)

195) 聶嬰은 戰國시대 韓나라의 刺客인 聶政의 누이이다. 聶政은 漢나라의 大夫인 嚴仲子를 위해 漢나라의 丞相인 俠累를 죽이고 자신도 얼굴 가죽을 벗겨 自決했다. 漢나라에서 聶政의 시체를 시장에 던져 놓고 그를 알아보는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고 다만 聶嬰이 나아가 시체를 안고 울며 이는 내 동생 聶政이라고 하고 그 곁에서 自決했다.(이혜순 · 김경미 공저, 앞의 책, 98~99쪽, 註 8번 참조)

196) 上下批若曰。貞女被淫誣。天下之切冤。夫以銀愛之貞。判一死顧易爾。然恐徒死無人知也。故提刀殺仇。使鄉黨。曉然知己則無玷。彼固可剛。若銀愛而生于列國之世者。其跡雖異。將與聶嬰齊其名。而太史之傳。烏可已也。昔海西處女殺人。似此獄。監司請宥。先王褒諭亟從之。女方出獄。媒僮雲集。爭購千金。竟爲士妻。至今傳爲美談。然銀愛黽勉含冤至適人。方報怨則尤難矣。不宥銀愛。何以樹風教。特貸其死。向者長興申汝偶之放。蓋出於敦倫常重氣節。今有銀愛。亦類是爾。銀愛。汝偶兩獄案。願其大略于湖以南。俾人人無不知也。(『靑莊館全書』卷20, 「雅亭遺稿」12, <銀愛傳>)

그쳐도 拘束되는 오늘날의 현실적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용납되지 못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당시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을 밝혔다. 인용문 ①의 여성은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을 節로 여기고 殺人을 하였다.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을 節로 여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꼭 殺人이라는 방법을 택해야만 했던가. 이는 여성이 ‘何以立於世乎’라고 했던 말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었는가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지나친 규범과 가치의 강조는 오히려 歪曲되고 變質되는 烈行을 낳기에까지 이른 것이니 바로 이 여성과 같이 이념의 실천을 위해 殺人이라는 極惡한 방법까지도 행해졌던 일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러한 殺人까지도 이념의 실천 양상으로 正當化한다. 이는 殺人罪를 용서하고 ㉠과 같이 復戶를 내려 褒賞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따라서 이렇게 殺人罪가 용서받는 이유는 傳統的 規範과 價値의 宣揚이라고 답할 수 있다. 殺人者가 용서받음으로써 원수이기는 했지만 被害者의 목숨의 가치는 默過되었으니 규범과 가치의 실천에 실리는 무게는 한 사람의 희생조차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인용문 ②는 임금의 말을 통해 당시 사회가 무엇에 비중을 두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을 통해 이 여성에 대한 理解와 同情어린 시선이 느껴진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성에게 眞節은 重且大한 문제임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없지 않다. 그리고 ㉢에 직접적으로 용서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으니 바로 風教를 세우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로 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여성 또한 전통적 규범과 가치의 선양을 위해 용서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장만 있어도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 데 크게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임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명의 사람을 들어 이 여성의 殺人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임금의 말로 인해 이 여성이 저지른 殺人의 행위는 退色되고 이념을 실천한 행위는 겹겹이 색칠되는 것처럼 여겨

진다. ㉠의 聶嫫, ㉡의 海西 처녀, ㉢의 申汝侗이 가졌던 氣節들에 못지않았음을 말하여 殺人罪를 용서하고 석방시키는 근거까지 충분히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위의 두 여성은 極惡한 殺人이라는 행위를 했지만 이 행위가 사회에서 最位에 두는 가치인 節이념에서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념의 獨特한 실천 행위로 규정하고 용서하고 포상하기까지 하면서 정당화했다고 할 것이다.

이상으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서 殺人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獨特함으로 인해 입전된 여성을 살펴봄으로서 이념적 사고에서 나온 행위는 그 행위 자체의 규범성을 떠나 오히려 이념만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규범과 가치의 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이념적 사고와 別個로 행위 자체가 긍정되어 입전된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의 경우처럼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볼 때 규범성을 떠나 이념의 실천을 위한 盲目的인 獨特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실천 및 규범성과 無關한 非凡함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脫理念의 非凡한 行爲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소재는 점차 이념에서 벗어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가기 시작한다. 이념이 사고를 지배하는 순환 고리를 따르는 인물만을 주목하지 않으며 조선후기의 다양한 사회 상황만큼이나 다양한 시각으로 여성의 행위에 주목한 것이다. 곧, 이 시기에 들어서 여성의 이념으로 강조된 烈과 節은 前代만큼이나 입전 소재로서의 魅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전통적 이념을 소재로 하여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며 다수의 女性人物傳이 산출되었기에 食傷함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과는 別個로 행위가 중시되어 입전된 여성들이 新鮮한 轉換으로 더욱 주목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념을 떠나 입전된 몇몇의 여성들은 당시의 보편적인 여성상이 貞淑함과 操身함으로 대표되는 것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즉, 丈夫다운 면모를 보이며 義氣를 발휘하기도 한다. 여기서 丈夫다운 면모란 남성의 象徴이라고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소유한 그러한 남성의 外面的인 모습의 의미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大膽하고도 排布 있는 행동을 보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남성의 內面에서나 우리나라에 있는 膽力과 度量의 一面을 보여 준 여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면모를 보이는 여성의 신분 또한 士大夫家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있다. 미천한 신분임에도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규범과 가치의 틀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自意에 의한 의사 표현 또한 자유로웠음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라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는 여성이란 현실과는 상관없이 丈夫다운 義氣를 발휘하며 미천한 신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훌륭하게 해내 보인 여성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행위는 前代에는 찾을 수 없었던 양상으로 이념의 실천을 위한 행동이 아닌 자신의 의사에 의해 선택적으로 발휘된 非凡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작품을 통해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非凡한 행위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非凡한 행위의 주체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非凡한 행위의 영향에 대한 살펴본다. 이는 非凡한 행위를 낳은 興件과 狀況이 어떠하며 여성으로서 丈夫다운 면모는 어떠한가에 대한 고찰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이 같은 행위가 미친 영향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음 두 작품을 살펴본다.

① 蔡濟恭 (1720~1799) <萬德傳>

② 金養根 (1734~1799) <杜今嫗傳>

우선 각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蔡濟恭의 <萬德傳>의 金萬德은 耽羅 良家の 딸이었는데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妓生業에 從事하다가 20여 살쯤에 다시 신분을 회복하고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것을 耽羅에 큰 饑饉

이 들었을 때 快擲하여 救恤한 것으로 임금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명하여 서울 구경과 금강산 유람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蔡相國과 이별할 때 그가 <萬德傳>을 지어 주었다는 내용이다.¹⁹⁷⁾ 金養根의 <杜今嫗傳>의 杜今嫗는 한 평생을 產業에 힘써 모은 재산을 죽을 때 鄉校에 寄附하여 그 향교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다.¹⁹⁸⁾ 먼저 非凡한 행위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행위를 보일 수 있었던 개인적인 여건과 놓여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 ① ㉠ 돈을 버는 재주를 가졌다. 특히 그녀는 物價의 변동을 잘 알아 적절한 시기에 물품을 賣買하여 數十年 후에 이름이 날 정도로 돈을 모았다.¹⁹⁹⁾
- ㉡ 聖上 19년 乙卯年에 耽羅에 크게 饑饉이 들어 백성이 계속 굶어 죽었다. 正祖가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백성을 救濟하라는 命을 내렸다. 아득한 남해 바다 800리를 돛단배가 벼들의 북처럼 자주 왕래하였으나, 제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²⁰⁰⁾

197) 萬德者。姓金。耽羅良家女也。幼失母無所歸依。托妓女爲生。稍長。官府籍萬德名妓案。萬德雖屈首妓於役。其自待不以妓也。年二十餘。以其情泣訴於官。官矜之除妓案。復歸之良。萬德雖家居乎庸奴。耽羅丈夫不迎夫。其才長於殖貨。能時物之貴賤。以廢以居。至數十年。頗以積著名。聖上十九年乙卯。耽羅大饑。民相枕死。上命船粟往哺。鯨海八百里。風檣來往如梭。猶有未及時者。於是萬德捐千金質米。陸地諸郡縣棹夫以時至。萬德取十之一。以活親族。其餘盡輸之官。浮黃者聞之。集官庭如雲。官劑其緩急。分與之有差。男若女出而頌萬德之恩。咸以爲活我者萬德。賑訖。牧臣上其事于朝。上大奇之。回諭曰。萬德如有願。無問難與易。特施之。牧臣招萬德以上諭諭之曰。若有何願。萬德對曰。無所願。願一入京都。瞻望聖人在處。仍入金剛山。觀萬二千峯。死無恨矣。蓋耽羅女人之禁不得越海而陸。國法也。牧臣又以其願上。上命如其願。官給舖馬遞供饋。萬德一帆雲海萬頃。以丙辰秋入京師。一再見蔡相國。相國以其狀白。上命宣惠廳月給糧。居數日。命爲內醫院醫女。俾居諸醫女班首。萬德依例詣內閣門。問安殿宮。各以女侍。傳教曰。爾以一女子。出義氣救饑餓千百名。奇哉。賞賜甚厚。居半載。用丁巳暮春。入金剛山。歷探萬瀑。衆香奇勝。遇金佛輒頂禮。供養盡其誠。蓋佛法不入耽羅國。萬德時年五十八。始見有梵宇佛像也。卒乃踰鴈門嶺。由楡岾下高城。泛舟三日浦。登通川之叢石亭。以盡天下瑰觀。然後還入京。留若干日。將歸故國。詣內院告以歸。殿宮皆賞賜如前。當是時。萬德名滿王城。公卿大夫士無不願一見萬德面。萬德臨行。辭蔡相國哽咽曰。此生不可復瞻相公顏貌。仍潸然泣下。相國曰。秦皇漢武皆稱海外有三神山。世言我國之漢挈。卽所謂瀛洲。金剛卽所謂蓬萊。若生長耽羅登漢挈。輒白鹿潭水。今又踏遍金剛。三神之中。其二皆爲若所包攬。天下之億兆男子。有能是者否。今臨別。乃反有兒女子刺刺態何也。於是敘其事。爲萬德傳。笑而與之。(『樊巖先生集』卷55, <萬德傳>)

198) 有數間屋於大成殿。東廡稍北處。釋奠必校僕。駿奔以將事者。杜今廟也。杜今何神。卽府中一老嫗也。嫗一生治產業致饒厚。及老將死忽喟然曰。君子以財發身。而吾女人無以爲。我死必以田簿盡屬本校。使有憐我者。歲於大享後饋我。以一盂黍稻足矣。(『東塾集』<杜今嫗傳>)

199) 其才長於殖貨。能時物之貴賤。以廢以居。至數十年。頗以積著名。(『樊巖先生集』卷55, <萬德傳>)

200) 聖上十九年乙卯。耽羅大饑。民相枕死。上命船粟往哺。鯨海八百里。風檣來往如梭。猶有未及時者。(『樊巖先生集』卷55, <萬德傳>)

② ㉠ 할미는 한 평생을 産業에 힘써 큰 부자가 되었다.²⁰¹⁾

㉡ 노인이 장차 죽음에 임박하여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²⁰²⁾

위의 인용문 ㉠은 蔡濟恭의 <萬德傳>이고 ㉡는 金養根의 <杜今嫗傳>으로 각 인용문의 ㉠을 살펴보면 이들이 非凡한 행위를 보일 수 있었던 개인적인 여건을 알 수 있다. 즉, 金萬德이나 杜今嫗는 모두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治産業을 통해 많은 재산을 축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처음부터 義로운 일에 쓰리라고 생각하거나 다짐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의도가 작품 어느 부분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의 축적과 義氣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음 살펴볼 놓여진 상황으로 인해 義氣를 보일 수 있었던 개인적인 여건으로 작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각 인용문의 ㉡를 살펴보면 이 두 여성에게 각각 饑饉이라는 상황과 죽음이라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 여기서 이 두 여성이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많은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萬德은 모자를 것 없이 饑饉을 넘길 수 있었을 것이며 杜今嫗는 그대로 죽더라도 厚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천한 신분이었을지라도 많은 재산을 축적했던 자신의 상황과 결부지어 義氣를 발휘하여 다음과 같은 非凡한 행위를 보인다.

① 그러자 萬德은 많은 돈을 내어 육지의 쌀을 사와서, 여러 고을의 뱃사공에게 제때에 운반해 오도록 하였다. 萬德은 사 가지고 온 쌀, 1/10로 자신의 친척을 구휼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청에 실어다 바쳤다. 굶주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관청의 뜰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관청에서 굶주린 정도에 따라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²⁰³⁾

201) 嫗一生治産業致饒厚。(『東莖集』<杜今嫗傳>)

202) 及老將死忽喟然曰。(『東莖集』<杜今嫗傳>)

203) 於是萬德捐千金買米。陸地諸郡縣棹夫以時至。萬德取十之一。以活親族。其餘盡輸之官。浮黃者聞之。集官庭如雲。官劑其緩急。分與之有差。(『樊巖先生集』卷55, <萬德傳>)

② “(…) 죽거든 반드시 밭의 장부를 다 本校에 부탁하니 (…).” 204)

인용문 ①의 萬德은 자신이 모은 많은 재산을 육지의 쌀과 바꾸어 때에 맞춰 이르게 한 후 굶주린 친족들과 백성들을 살리는 非凡함을 보였다. 인용문 ②의 杜今嫗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鄕校에 기부하여 오늘날의 개념으로 본다면 發展基金이나 獎學基金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非凡함을 보였다. 이렇게 두 여성은 평생 또는 오랜 세월 간 자신의 노력으로 축적한 많은 재산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饑饉이라는 현실과 죽음이라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한 순간에 義氣를 발휘하여 내놓은 것이다. 이는 丈夫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 排布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非凡한 행위의 주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이러한 非凡함을 보였던 여성의 평소 행동과 말들 또는 他人의 평가나 말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여성을 입전한 작가의 評을 제외하고 보이는 것들에서만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 萬德은 비록 머리를 굽혀 기생에 종사하였으나, 스스로 기생으로 처신하지는 않았다. 205)
- ㉡ 萬德이 양민의 신분으로 살았으나, 그녀는 耽羅의 남정네를 존스럽게 여겨 맞이하지 않았다. 206)
- ㉢ “별다른 소원은 없습디만, 서울에 한 번 들어가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어 金剛山에 들어가 一萬二千 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죽어도 餘恨이 없겠습디다.” 207)
- ㉣ “네가 여자의 몸으로 의롭게 굶주린 수많은 백성을 구하였으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208)

204) (….) 我死必以田簿盡屬本校。(…) (『東塾集』 <杜今嫗傳>)

205) 萬德雖屈首妓於役。其自待不以妓也。(『樊巖先生集』 卷55, <萬德傳>)

206) 萬德雖家居乎庸奴。耽羅丈夫不迎夫。(『樊巖先生集』 卷55, <萬德傳>)

207) 萬德對曰。無所願。願一入京都。瞻望聖人在處。仍入金剛山。觀萬二千峯。死無恨矣。 (『樊巖先生集』 卷55, <萬德傳>)

208) 爾以一女子。出義氣救饑餓千百名。奇哉。(『樊巖先生集』 卷55, <萬德傳>)

- ② “君子는 재물로써 發身하는데 나는 女人으로 나를 위할 수가 없구나. (…) 나를 붙잡히 여기는 자로 하여금 해마다 大享한 후에 나를 한 바리의 기장과 쌀로 대접해 준다면 충분할 것이다.” 209)

인용문 ①을 살펴보면 ㉠, ㉡을 통해 萬德의 태도를, ㉢을 통해 萬德의 마음가짐을, ㉣을 통해 萬德에 대한 他人의 평을 알 수 있다. 즉 ㉠과 ㉡을 통해 萬德의 강인한 생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기생에 종사했을지라도 스스로 기생으로 處身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그 생활에 安住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신분을 회복할 것을 믿고 인내하였던 강인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결국 신분을 회복하고서도 耽羅의 丈夫를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남자에게 의지하는 順從的이고 懦弱한 존재의 여성이 아닌 獨立的이고 進取的인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 救恤한 행위에 대해 임금이 褒賞의 하나로써 내린 소원 성취의 기회가 왔을 때 萬德이 한 말이다. 聖人을 云云하는 것은 사대부 남성에게는 흔한 일이나 미천한 여성의 萬德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에서 丈夫다운 면모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구휼이라는 非凡한 행위를 보이기도 그에 대한 어떠한 代價를 바라지도 않고, 단지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아 그 排布가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다. 代價도 없이 한 순간의 義氣를 발휘하여 非凡함을 보였고 聖人이 계신 곳을 보고 싶다는 말에서 이를 알 수 있으며 ㉣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인용문 ②를 살펴보면 杜今嫗의 말을 통해 여성으로서 사대부 남성들이나 받는 祭祀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만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不滿과 制約에 따른 被害意識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여성은 하층의 미천한 신분으로 여성이었지만 여성이기에 받는 그러한 현실적 제약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층이기에 규범과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었다.

209) 君子以財發身。而吾女人無以爲。(…) 我使有憐我者。歲於大享後饋我。以一盂黍稻足矣。(『東塾集』 <杜今嫗傳>)

따라서 이것은 이 여성의 丈夫다운 면모와 연결될 수 있다. 자신은 평생 모은 재산이 넉넉하게 있는데도 君子로 대표되는 남성들이 發身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 이를 女人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非凡한 행위로 보았던 鄉校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통해 그 이면에는 남성들의 發身 못지않은 排布와 義氣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남성들이나 받는 제사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현실적 제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丈夫다운 면모에서 자연스럽게 發露되어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義로운 일을 베푼 곳이 향교였고, 향교가 先人을 모시는 곳임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큰 代價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함께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즉 先人의 제사가 끝난 뒤 밥 한 그릇 올려놓고 자신을 記憶해 주기를 바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죽음에 임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義氣를 발휘하여 좋은 곳에 有用하게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 또한 자신이 義로운 일을 베푼 곳과 맞게 小少한 것으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본 두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非凡한 행위의 영향을 말한다면 두 여성 모두 개인적인 재산 기부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고 수많은 人材들의 養成에 援助가 되기도 했으니 개인적 차원의 義로운 행위가 사회에 貢獻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서 그 행위의 獨特함과 非凡함으로 입전된 여성을 살펴봄으로서 이 같이 소재와 주제를 하나의 단어로 形言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산출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이 시기 여성들은 이념의 실천자로서만 의미를 부여받지 않으며 獨特하고 非凡한 다양한 행위까지도 형상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IV. 女性人物傳의 立傳意識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作品世界에서 忠·孝·烈 이념과 관련하여 烈女傳과 香娘傳, 그리고 忠孝傳을 살펴보고, 이념의 실천 與否와 관련하여 朝鮮後期的 面貌를 보이는 獨特하고 非凡한 여성인물을 작품화한 女性人物傳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前代의 전통을 잇는 여성인물은 물론이고 새롭고 다양한 여성인물의 형상까지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인물들을 포착하고 文學적으로 受容하여 작품화하는 것은 作家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여전히 理念이 絶對視되는 사회였고 이러한 이념은 여성의 현실과 不可分の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념의 강조는 여성의 사고와 행위를 歪曲하는 현실을 낳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이념 그리고 현실과는 別個로 주체적 自我로 발돋움 하는 여성이 出現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에 따라 여성인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視角 또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작가의 성향이나 그의 배경이 하나의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력을 看過할 수는 없으나 傳이 작가보다 立傳 人物의 삶의 原理나 行蹟에 비중을 둔다는 양식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가의 主觀的 論評이라고 할 수 있는 論贊部²¹⁰⁾를 분석하면서 여성인물의 立傳意識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傳統理念의 鼓吹

조선왕조를 건국한 주체세력인 新興士大夫들은 性理學 理念에 입각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회를 이룩하고자 전반적인 개혁을 하였다. 그 가운데서

210) 論贊部の 虛頭語는 작품에 따라 史臣曰, 外史氏曰, 野史曰, 君子歎曰, 贊曰, 嗚呼, 噫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제3자의 시각을 빌려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인물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삼기 위한 것이다. 비록 입전인물이 正史에는 들어갈 수는 없어도 外史나 野史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식이 작용했다. 인물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는 것은 경험적 진실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信憑性을 확보하고, 敎訓性을 보다 높이려는 것이다.(李起炫, 『石北 申光洙 文學 研究』, 寶庫社, 1996, 414쪽)

도 새 왕조의 사회체제를 家父長制의 儒教的²¹¹⁾인 윤리관을 확립해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에 엄격한 신분제도²¹²⁾가 확립되었고 이러한 계층 구조 속에서 구체적인 윤리덕목으로 三綱과 五倫²¹³⁾을 들어 인간마다 자기의 本分을 지키게 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질서가 17세기 이후 해체되기 시작하는 큰 변화²¹⁴⁾를 맞이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大激變이었던 壬辰·丁酉再亂(1592~1598년)과 丁卯·丙子胡亂(1627~1637년)이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야기된 것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戰後의 蹂躪된 국토를 복구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무너져 가는 윤리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가의 根幹이자 윤리의 실천 주체인 국민을 의식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전통 이념의 재정립을 위해 많은 敎化書²¹⁵⁾를 편찬하고 보

211) 고려시대 儒敎는 통치의 원리와 방침을 제공해주는 차원에서만 역할 하였던 데 반해, 조선시대에 儒敎는 통치 원리나 관료체제 형성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사회내의 인간관계, 지적·도덕적 활동을 비롯한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儒敎가 조선조 창업을 정당화하고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 계층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어서 儒敎的 가치의 사회적, 개인적 내면화가 왕조 및 지배계층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었다. (김혜숙,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 : '禮治'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9』, 한국여성학회, 1993. 30~31쪽)

212) 性理學의 身分階層이란 上下, 尊卑, 貴賤의 峻別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韓永愚, 『朝鮮前期社會思想研究』, 지식산업사, 1983, 62~63쪽)

213) 三綱과 五倫은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倫理德目으로, 三綱은 君爲臣綱·父爲子綱·夫爲婦綱을 말하며 五倫은 君臣有義·父子有親·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을 말한다. 三綱은 君臣·父子·夫婦 관계를 규제하는 신분윤리이며, 五倫은 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의 관계를 규제하는 신분윤리로 上下의 名分과 階層을 설정하여 臣보다 君을 上位로 하여 국가질서를, 子보다 父를 婦보다 夫를 上位로 하여 가정질서를, 幼보다 長을 上位로 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궁적으로는 家庭·社會·國家의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91~99쪽)

214) 이해준은 중세사회의 붕괴기로 지적되는 17~18세기의 사회적 성격을, 첫째 兩亂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반의 동요, 둘째 중앙집권층의 閹閹化와 지배층의 분열, 셋째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이에 따른 화폐경제의 발달, 넷째 구질서 자체의 변질, 다섯째 신분체제 동요라고 하였다. (이해준, 「조선후기 향촌사회구조의 변동」, 『한국사』 9, 한길사, 1994, 259쪽)

215) 김언순은 조선사회에서는 敎化가 지배층의 일방적인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덕규범의 전과가 아니라, 敎化를 시행하는 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儒敎 이념을 중심으로 禮治를 하고자 하였던 조선사회에서는 지배 이념의 내면화라는 차원에서 신분과 性을 초월해 모두가 일차적으로 敎化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배이념이었던 유교의 내면화 차원에서 전개된 敎化는 넓은 의미의 '敎育'과 동의어이며, 그 결과가 바로 '儒敎化'라고 하였다.

급²¹⁶⁾하였으며 국가를 위해 戰功을 세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상²¹⁷⁾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官撰書의 보급과 旌表 政策은 국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전통 이념화시키는데 훌륭한 物質策과 誘引策의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平時에는 孝이념을 內面化한 많은 孝子와 孝婦들이 있었고 戰時에는 忠이념으로 武裝한 남성들이 나라를 위해 殉死하기도 하여 忠臣으로 기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충신으로 기림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看過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당시가 家父長制 사회였다는 것이다. 이념을 위한 不可避한 죽음이었을지라도 이 남성의 죽음은 家父長의 喪失이자 空白을 의미한다. 戰時의 혼란한 社會와 절대적 존재였던 家父長이 不在된 家庭에서 여성은 二重苦를 겪을 수밖에 없다. 사회 속에서는 賊들에게 性的으로 쉽게 蹂躪당할 수 있는 위치였으며 가정 안에서는 家長의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자와 아이를 동일시하여 兒女子로 並稱하여 불렀던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은 분명 弱者이고 보호 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家父長制에 길들여진 나약하기만 한 여성에게는 威脅的인 상황의 對面과 莫重한 책임의 要求는 피해 갈 수도 말길 수도 없는 일들이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孝이념을 준수하는 孝婦에서 더 나아가 烈이념을 실천하는 烈女를 더욱 表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에서는 忠·孝의 이념만으로도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 질서까지 충분히 유지되었으나 兩亂이후의 혼란해진 사회에서는 무조건적인 順이 아닌 결단력까지 갖춘 烈이 더욱 理想的으로 여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남성들은 忠이념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를 위해 烈士가

(김연순, 「조선시대 女訓書에 나타난 여성의 正體性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8~27쪽)

216) 대표적으로 『三綱行實圖』, 『五倫行實圖』 등이 있다.

217) 이들에게 門閥를 세워주고, 賞職 또는 賞物을 내리고 경제적으로는 復戶 등으로 무거운 戶役을 면제해 주는 혜택과 그 자손에게 부역을 견감하여 주었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士族의 경우 家門의 명예였으며, 公私賤의 경우는 免賤하게 하여 신분상승을 가능케 하는 등 실제 생활에 이익을 주어 권장하였다.(朴珠, 『朝鮮時代의 旌表政策』, 일조각, 1990, 220~221쪽)

되었다면 여성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貞節과 가정 안에서의 義理를 지키는 것으로 烈女가 되었다. 이러한 烈女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의 意志가 중요하지만 내면의 의지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變數를 맞이하는 가운데 弱化 또는 挫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여성 개인은 물론한 가정의 질서는 崩壞되고 마는 것이다. 賊으로부터 여성 자신의 貞節을 守護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家父長이 없는 가정 안에서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존재 자체의 喪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의 烈은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되던 敎化書가 男女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中國의 많은 女訓書²¹⁸⁾를 輸入하고 諺解하여 여성만을 대상으로 배포하기에 이르렀고 개인 文士들에 의해서도 많은 女訓書²¹⁹⁾가 편찬·보급되었다. 이러한 여성교육의 활성화는 이념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이념과 질서의 확립은 여성에게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 敎育熱에 비례해서 여성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고 이념은 내면화되어 외부의 상황에 흔들림 없이 烈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여성에게는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訓戒의인 목소리와 規範條의 나열에서 벗어나 친숙하고 다양한 방식²²⁰⁾을 동원하여 敎育熱을 이어 나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烈女傳으로 실제로 烈行을 보인 烈女를 立傳하여 讚美함으로써 같은 여성들에게 龜鑑이 되게 하였고 전통이념을 고취하였다. 본래 傳이 모범적인 인물을 기리는 문학 양식이라는 특성

218) 中國의 女訓書로는 班昭의 『女誡』, 宋若昭의 『女論語』, 許熙載의 『女教』, 仁孝文皇后의 『內訓』 등이 있었으며, 조선에서는 『女誡』, 『女論語』, 『內訓』을 부가하여 『女四書』로 편찬하였다.(최진아, 「견고한 원전과 그 계보들 : 동아시아 여성쓰기의 역사」,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 '列女傳'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219) 女訓書란 유교적 여성관을 담은 여성교육용 교재로서, 조선시대의 女訓書로는 宋時烈(1607~1689)의 『尤庵先生誡女書』, 權渠(1672~1749)의 『內政篇』, 韓元震(1682~1751)의 『韓氏婦訓』, 趙觀彬(1691~1757)의 『戒子婦文』, 金鍾秀(1728~1799)의 『女子初學』, 李德懋(1741~1793)의 『士小節』 「婦儀」 등이 있다.(김언순, 「조선후기 사대부 女訓書에 나타난 여성상 형성에 대한 연구」, 『韓國敎育史學』 제28권 제1호, 韓國敎育史學會, 2006. 29쪽, 40쪽)

220) 圖, 閨房歌詞, 小說 등 다양한 방법과 문학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으로 인해 作者는 名分을 갖고 作傳할 수 있고 讀者는 信賴感을 가질 수 있으며 여성독자는 立傳者와 同性이라는 사실만으로도 同一視하여 感化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남성독자에게 烈女傳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女訓書들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편찬·보급되었을지라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家長인 남성이 그 내용을 認知하고 있는가의 與否에 따라 그들이 行使하는 權威는 질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곧 認知하고 있는 것이 他人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일이며 家父長된 남성으로서의 권위도 세울 수 있고 나아가 가정의 질서까지도 확립하는 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烈女傳을 포함한 女性人物傳이 여성들을 의식하고 다분히 목적성을 갖고 창작되었을지라도 여성만의 專有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女性人物傳은 개인적 趣向에 따라 取捨選擇이 가능한 하나의 文學으로 女訓書와 같은 規範書가 아니다. 여기에서 남성독자에게 女性人物傳이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성을 입전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남성독자를 배제하지 않는 작가의 의식이 작품에 반영된다면 直說的 표현을 하지 않고도 間接的 전달 방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독자가 同性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感化받는다 할 때 남성독자는 異性을 통해 간접적으로 感化되어 자신에 대한 省察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하다. 이 또한 이념의 실천자로서 자신의 未盡한 부분을 점검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女性人物傳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讚美와 褒貶을 드러내어 훌륭하게 전통이념을 고취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性的인 구별을 떠나 입전인물의 훌륭한 行蹟이 그렇지 못한 他人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 女性人物傳의 論贊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의식이 어떠한 표현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烈의 內面化

앞서 III장 烈女傳의 持續과 變貌의 從死의 典型化에서 여성인물들의 전형적인 烈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夫死를 중심으로 그 以前에는 육체적인 勞苦의 시간을 보내며 以後에는 정신적인 忍耐의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從死라는 烈行을 보였다. 家父長制 사회에서 한 가정 질서의 책임을 맡고 권위를 행사하던 절대적 존재인 家長의 죽음은 그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던 여성에게는 삶의 의지까지도 잃게 만드는 喪心이자 국가에게는 나라의 기반인 가정이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危機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고 의지를 다잡아 결국 理念까지 성취하는 여성을 가정과 국가가 원하였기 때문에 烈女傳 속에는 전형화 된 표현과 방법으로 이들을 讚美하면서 이념을 고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① 鄭氏는 어찌 그렇게 從容히 죽었는가. (...) 편안히 죽을 수 있었다.²²¹⁾
- ② 무릇 婦女로써 능히 힘써서 從容히 죽었다.²²²⁾
- ③ 한 때의 慷慨한 자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 李氏는 여기서 그가 편안한 데로 나아가 몹시 슬피하는 仁을 성취한 자인가.²²³⁾
- ④ 從容하게 때를 기다렸다.²²⁴⁾
- 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義를 취하여 從容히 죽음으로 나아가 큰 節義를 결단하기에 이른 것이 틀림없다.²²⁵⁾
- ⑥ 그제야 죽는 일을 돌아가는 것처럼 편히 여기고 남편이 죽은지 17년 뒤에 從容히 큰 의리를 결단했다. (...) 그날로 목숨을 결정하기는 오히려 쉽지만 17년이나 지난 뒤 從容히 죽기는 어렵다.²²⁶⁾

221) 而鄭氏何其從容也。(...) 居然乃死。(『石北先生文集』卷15, <鄭烈婦傳>)

222) 夫以婦女而能辦得此從容而死。(『性潭先生集』卷30, <烈婦恭人尹氏傳>)

223) 與一時慷慨。不翅相遠。(...) 李氏於此。其亦自就所安而成夫惻怛之仁者歟。(『頤齋遺藁』卷22, <烈婦李氏傳>)

224) 待時從容。(『近齋集』卷22, <劉烈婦傳>)

225) 遂舍魚取熊。從容就死。至判大節而不疑。(『舊堂先生文集』<烈婦孫孺人傳>)

226) 則於是乎視死如歸。從容判大義於夫死十七年之後。(...) 判命於即日猶易。而從容於十年之後爲尤難。(『舊堂先生文集』<孝烈李孺人傳>)

위의 論贊을 살펴보면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여성들의 죽음, 즉 從死가 한결같이 從容히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從容이란 夫死 이후 激情에 사로잡힌 感情的 상태에서 卽興的으로 自行되는 죽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夫死 이후 그러한 激情과 喪心에 있었을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理性을 되찾고 세월을 보낸 후 편안한 상태에서 조용히 自行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從死는 한 家長의 喪失에 따른 一時的·卽時的 感情을 이기지 못하여 표출된 행동이 아니라 持續的·計劃的 理性하에 이루어진 행동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겼다. 즉 지속적이란 從死의 의지를 오랜 세월동안 품고 살아간 것을 말하며 계획적이란 從死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점점의 시간을 갖고 가정 안에서는 從死의 遲延요소들을 해결해 나간 것을 말한다. 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희석되어가는 從死의 의지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계획이며 家父長의 空白과 그에 따른 二重의 역할과 문제들을 수행·처리하여 하루빨리 從死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從容이란 당시 從死로 전형화 된 烈이념을 실천한 여성에 대해 그 어떠한 敷衍 설명도 필요 없는 集約的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從容히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여성의 삶은 어떠했으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① 鄭氏는 남편이 죽었을 때 즉시 따라 죽으려 했으나 오빠의 말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장례를 기다려야 했고, 또 추뵐을 기다린 후에 능히 날을 미루지 않고 (...) 이것은 지극히 군세어 굽히지 않는 자가 본래대로 계획을 세운 후 처음과 끝을 하루 일처럼 여겨, 태어난 바탕과 품성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침 아침저녁의 간단한 일처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²²⁷⁾
- ② 지금 恭人이 장례를 치른 후에 自決한 것은 (...) 그리고 그 遺書가 각각 구분하여 처리함이 있어 어지럽지 않았다.²²⁸⁾
- ③ 이미 은연중에 禮法의 큰 강령에 통했고, 이미 극진히 孝誠과 恭敬을 다했으며, 이미

227) 鄭氏欲死於夫喪。以兄之言而不死。必待葬。又卒哭而能不後其日。(…) 此匪至剛不撓。定計有素。終始如一日。有能以性命從心早晚。若是其無難耶。(『石北先生文集』卷15, <鄭烈婦傳>)

228) 今恭人之自決於襄事後者。(…) 而其遺書之各有區處。畧無錯亂者。(『性潭先生集』卷30, <烈婦恭人尹氏傳>)

죽기를 맹세하여 죽을 때를 기다렸고, 이미 죽기에 임해 글로 아뢰었다. 그의 素養은 앞서 정하여 깊이 생각하고 深思熟考하여 처신한 것이었다.²²⁹⁾

- ④ 劉氏 같은 사람은 실로 높은 識見이 있어 3년간 隱忍自重하면서 (...) 또 스스로 그 몸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 烈孝이 모두 온전한 것으로 가히 이루기 어려운 일을 했다고 일컬을 만하다.²³⁰⁾
- ⑤ 그러나 孺人の 烈行만은 그렇지 않다. 아들이 태어나자 죽은 남편의 한 핏줄을 보전 하기 위해 죽는 것이 義가 아님을 깊이 헤아렸고, 아들이 죽은 뒤에는 자신의 薄命함을 돌아보니 시덕에도 이로운 것이 없고, 세상에 구차하게 사는 것이 義理에도 맞지 않음을 깊이 헤아렸던 것이다.²³¹⁾
- ⑥ 李氏는 처음 남편이 죽던 날 이미 죽기로 결심했지만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죽지 않았고, 중간에 아들이 요절했던 날에도 죽기로 결심했지만 年老한 시어머니를 봉양 하기 위해 죽지 않았다.²³²⁾

위의 論贊을 통해 家父長制 사회의 一面을 엿볼 수 있으니 바로 여성의 역할이 대체적으로 음식준비, 의복장만 등과 같은 지극히 家事에 국한된 가사노동이었으며 여성의 의무는 남편을 섬기면서 시부모 봉양과 자식 양육을 훌륭하게 해내는 전형적인 賢母良妻²³³⁾였다는 것이다. 論贊 ①, ②, ③을 통해 夫死 이후의 喪·葬禮를 주관해야 하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과 祭需 용품들로 이 모두가 여성이 준비하고 갖추어야 하는 번거롭고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는 論贊 ①에서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 것을 이유로 죽음을 挽留하는 것에서도 이를 위한 음식 준비와 그에 따른 절차적 문제들이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論贊 ②에서 遺書를 통해 가정의 多般事를 알려주며 부탁하는 것에서도 全

229) 既默契經禮矣。既克盡孝敬矣。既矢死有待矣。既臨死乃告矣。其素養前定。熟思而審處者。(『頤齋遺藁』卷22, <烈婦李氏傳>)

230) 如劉氏者。實有高識。隱忍三年。(…) 又能不自殘其形。烈孝俱全。可謂難矣。(『近齋集』卷22, <劉烈婦傳>)

231) 惟孺人之烈則不然。方其遺孩之生也。爲保亡夫一脉。而審量其棄死之非義。及其遺孩之不保。則自願薄命。於夫家無益矣。義不可苟寄於世。(『舊堂先生文集』<烈婦孫孺人傳>)

232) 蓋李氏之心。初已矢死於夫死之日。而爲育遺孩而不死。中而決死於兒夭之日。而爲養老姑而不死。(『舊堂先生文集』<孝烈李孺人傳>)

233) 여자의 구실은 割烹, 裁縫, 灑掃, 井臼의 일로 男夫舅姑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南恩暻, 「18, 19세기 漢詩·文에 나타난 女性形象: 女性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11, 東洋古典學會, 1998, 60쪽)

的으로 가사 일은 여성의 몫이었음 알 수 있다. 이는 論贊 ⑤, ⑥에서도 시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는데 있어 맛있는 음식과 따듯한 의복은 必須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당시의 여성은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로서 가정 안에서 制限적이나 莫重한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야 했던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家長은 단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었다. 곧 당시 사회에서 남성의 가사노동은 全無하거나 弱小했을지라도 한 가정의 버팀목이자 정신적 支柱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남성이자 家長의 죽음은 그들이 맡았던 역할까지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맡겨진다. 이에 여성은 아내의 자리를 家長의 역할로 代置할 수밖에 없었다. 위의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주어진 역할은 물론이고 새로운 家長의 역할까지도 훌륭히 수행하며 論贊 ③과 같이 직접적인 요구나 강요가 없어도 識見이 있어 自發的으로 역할과 의무를 다 하는 가정과 사회가 원하는 理想的인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한 가정의 질서를 위해 獻身하고 奉事했던 여성을 다음과 같이 讚美함으로써 여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龜鑑이 되게 하였다.

- ① **아! 슬프다. 그 熱烈함이여.** (…)
閭巷의 婦女들이 그의 烈女됨을 일컫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마땅히 驪江의 山水와 더불어 그 물의 흐름과 그 산의 높음을 나란히 세워야 할 것이다.²³⁴⁾
- ② 진실로 또한 옛날 君子의 올바른 죽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 어찌 단지 남편을 따라 自決한 **뛰어난 烈만을 행했을 뿐이겠는가?**²³⁵⁾
- ③ 여기에 더하여 **烈女로 목숨을 끊은 李氏** 같은 자를 보는 것은 더욱 드물지 않은가.²³⁶⁾
- ④ 그런데 이와 같으니 **기이하도다!** 어찌 이른바 부드러움이 강함으로 소용을 삼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²³⁷⁾

234) 嗚呼。其烈矣。(…) 閭巷婦孺莫不稱其爲烈女。當與驪江山水。竝其流峙。(『石北先生文集』卷15, <鄭烈婦傳>)

235) 實亦不愧於古君子之正終矣。奚但下從之爲卓烈哉。(『性潭先生集』卷30, <烈婦恭人尹氏傳>)

236) 重以死烈如李氏者。不益鮮觀哉。(『頤齋遺藁』卷22, <烈婦李氏傳>)

⑤ 오호라! 그 얼마나 壯烈하고 어려운 일인가. (…)오호라! 그 얼마나 壯烈하고 어려운 일인가!²³⁸⁾

⑥ 아! 李氏의 죽음은 어찌 그리 孝誠스럽고 또 壯烈한가. (…)오호라, 어찌 그리 壯烈하고 또 孝誠스럽고 또 慈愛로운가?²³⁹⁾

위의 論贊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讚美는 論贊 부분의 처음과 끝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처음에서 한번의 感歎을 보이는 讚美로 끝날 수도 있고 처음과 끝에서 類似한 표현으로 感歎을 내보이며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러한 讚美의 중심에는 여성의 從容한 죽음이 놓였다. 이를 烈로써 칭송하는 가운데서 그간의 여성의 행실과 성품까지 孝·慈·愛로 美化되었다. 이들의 從容한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실과 성품은 드러날 수 없었을 것이며 달리 말하면 從容한 죽음이 이루어진 원인에 그러한 행실과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옛말이나 聖人君子의 말을 빌려와 ‘慷慨殺身易 從容就死難’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慷慨는 從容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前者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현실의 의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남편에 대한 烈行만을 보인 것이라면 後者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현실적 상황을 인식하며 그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다한 뒤에야 남편에 대한 烈이념까지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앞의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고, 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고 한 것에서 時間이 藥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이 治癒되고 完治되어 가는 것은 세월에 比例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家長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이념까지도 훌륭히 실현한 여성은 대단하고 위대하게 讚美받는다. 이러한 찬미는 그대로 여성들의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외부의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도

237) 乃能然異矣哉。豈所謂柔以剛爲用者非耶。(『近齋集』卷22, <劉烈婦傳>)

238) 嗚呼。何其烈且難哉。(…)嗚呼。何其烈且難也。(『舊堂先生文集』<烈婦孫孺人傳>)

239) 噫。李氏之死。何其孝且烈哉。(…)嗚呼。何其烈且孝。而孝且慈也。(『舊堂先生文集』<孝烈李孺人傳>)

흔들리지 않는 이념 실천의 意志를 키워주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論贊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從容한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전형적인 표현과 방식으로 여성의 烈을 讚美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이념을 內面化하여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었던 것을 알았다. 다음에서 이러한 讚美가 그대로 나타나면서 이념의 실천 주체자인 여성만이 아니라 他人도 거론되며 여성이 실천할 수 있는 이념이 烈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論贊을 살펴보기로 한다.

2) 理念의 日常化

앞서 Ⅲ장 烈女傳의 持續과 變貌에서 香娘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았다. 많은 문사들에 의해 향랑의 죽음은 烈行과 節行으로 기려지며 국가 烈女로 거듭났었다. 그러나 향랑은 당시의 훌륭한 烈行, 즉 家長의 빈자리를 채우며 육체적 勞苦·정신적 忍耐의 삶을 살다가 從容히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더불어 향랑이 미천한 신분의 여성이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文士들이 烈女傳에 향랑을 입전하면서 그녀가 보인 烈·節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평민이면서도 改嫁 요구를 거부하고 不更二夫까지 이를 수 있었던 향랑의 죽음을 烈과 節이라 볼 때 그 內的 根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러한 의문과 물음은 향랑을 입전한 문사들의 論贊 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 ① 동쪽으로 돌다가 앞대에서 강물을 굽어보니, 摩挲 돌 碑 높이가 여러 장 되었고, 새겨 놓은 ‘砥柱中流’ 네 글자는 크기가 손만 했다. 바야흐로 ㉠ 吉先生이 烏山에 은거하고 있을 때, ㉡ 金澗先生 또한 一善 사람으로, (...) 烏山과 洛東江 사이에는 예로부터 ㉢ 節義를 지킨 남자가 많았다. (...) 그렇지 않다면 ㉣ 그 여러 先生의 후세에 끼친 風道와 남기신 熱烈함이 진동하여 옛날과 지금에 서로 감응하여 떨쳐 그러함이 있게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林烈婦가 砥柱碑 아래에서 죽은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²⁴⁰⁾

240) 東循前臺。下俯江流。摩挲石碑。高數丈。所刻砥柱中流四字畫大如手。方吉子之隱烏山。金先生澗亦一

② 우리나라의 州郡誌를 보았더니 왕왕 먼 시골구석에서도 언덕에서 몸을 던지고 강물에 빠져 죽은 높고 빼어난 행실을 한 여인들이 이어 있는데 비해, ㉠ 貴人 巨族 중에는 도리어 드물어서 내가 그것을 홀로 기이하게 생각했다. 아! 尙娘은 가난한 閭閻의 천한 아낙네일 뿐인데, 능히 몸을 닦고 행실을 청결히 하여 從容히 죽음에 나아감을 이처럼 했으니 尙娘 같은 사람은 어찌 ㉡ 天性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리오. 아! 슬프다. 어찌 모두 ㉢ 師傅의 詩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²⁴¹⁾

③ 오늘 香娘의 끝음은 改嫁하지 않으려고 강물에 빠져 죽기까지 했으니, 아마도 ㉣ 冶隱의 遺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 장래 남의 ㉤ 신하 된 자와 남의 ㉥ 지어미 된 자를 激發시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 관 쓰고 佩玉 울리는 ㉦ 사대부들은 이로운 일을 만나면 그 마땅히 지킬 것을 버렸으니, 그들이 香娘의 風道를 들으면 또한 조금이라도 부끄러울 것이다.²⁴²⁾

위의 論贊을 살펴보면, ㉠에서는 林烈婦, ㉡에서는 尙娘, ㉢에서는 香娘으로 각각 달리 부르고 있지만 모두 同一 인물이다. 이 향량의 烈行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앞서 살펴본 論贊들과 크게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향량이 죽음에 이르기 전의 행실이나 품성에 대한 要約的·具體的 표현이 없거나 아주 간략하며 讚美의 양상도 감탄조로 일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된 초점은 여성의 죽음이지만 이 여성들의 신분과 현실적 차이로 인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부분도 차이를 보인다. 앞서의 경우가 家長을 잃은 宗婦를 대표하는 상층의 여성이라면 향량은 家長에게 버림받은 匹婦를 대표하는 평민층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각자의 현실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역할과 의무가 중시되는 쪽과 改嫁를 하여 새로운 삶을 사느냐, 改嫁를 거부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느냐의 판단과 결단이 중시되는 쪽에 위치하

善人。(….) 烏山洛江之間。自古多節義男子。(….) 抑其諸先生之遺風餘烈。振動今古相感奮。有以也。不然。林烈婦之死於砥柱碑下。何其奇也。(『訥隱先生文集』 卷20 <林烈婦薨娘傳>)

241) 及觀東國州群誌。往往遐裔僻壤。投崖赴河。奇巍卓絕之行接跡也。貴人鉅族。反鮮觀焉。余竊異之。嗚呼。娘亦窮閭賤婦耳。能修身潔行。從容就死如此。若娘者。豈非得於天者耶。噫。豈盡由師傅詩書之教也哉。(『竹軒集』, <烈婦尙娘傳>)

242) 今娘之貞。以至於入江而不化。蓋猶有冶翁之遺風焉。(….) 有以激將來爲人臣爲人婦者耳。彼冠裳鳴佩之夫。臨利而喪其守者。聞娘之風。亦可以少愧云。(『素谷先生遺稿』 卷4, <烈女香娘傳>)

게 된다. 이에 평민층 여성으로 삶이 아닌 죽음을 택한 향랑에게 모아지는 관심은 당연 죽음 자체에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일들을 간략화하고 향랑의 죽음을 부각시키는 방향이 향랑의 선택을 烈과 節로 讚美하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제 처음의 논의로 돌아가 향랑이 보인 烈行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論贊 ①, ③의 ㉠에 공통적으로 遺風이라는 말이 보인다. 이는 忠節의 대명사였던 吉再의 遺風을 말한 것으로 미친한 여성이 보여준 烈行의 근원을 先賢에게서 찾은 것이다. 즉, 吉再와 같은 先賢들의 教化가 이어진 곳에 살았던 인물이 향랑이었으며 그녀의 烈行은 결국 教化의 所産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점을 論贊 ①에서는 ㉠, ㉡, ㉢의 사람들을 거론함으로써 더욱 확실히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은 論贊 ②의 ㉣라고 할 수 있다. 教化를 無言 또는 無形 教育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論贊 ②의 ㉤는 이러한 관점과 달리 미친한 신분과 教育의 非受患者였던 현실을 들며 烈行의 근원을 향랑 個人에게서 찾고 있다. 즉, 後天的 教化나 教育의 결과가 아닌 先天的 資質과 稟性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향랑이라는 인물의 天性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 ①, ③보다 표현이 구체적이며 烈行을 보인 여성들에게 最上の 표현이라 할 수 있는 從容이라는 修飾語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로 보면 ㉠, ㉡와 ㉤는 상반된 관점이고 ㉤의 관점이 여성의 烈行을 훌륭하게 讚美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관점 모두 결과적으로 향랑을 이념의 실천자로 보았다는 점에서 같다. 단지 이념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빚어진 관점인 것이다. ㉠, ㉡는 이념의 실천이 教化 또는 教育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에 微賤하고 無知한 여성을 이념의 실천자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教化·教育의 필요성을 示唆한다. 이와 달리 ㉤는 이념의 실천이 그러한 人爲的인 노력 없이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에 微賤하고 無知한 여성일지라도 이념의 실천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념이란 실현되어야만 하는 當爲的인 성격이 짙어진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天性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념을 실현한 여성을 讚美하는 前後로 論贊 ②의 ㉠과 論贊 ③의 ㉠, ㉡, ㉢과 같이 사람들을 거론하여 비교하고 龜鑑으로 삼을 것을 제시하며 省察의 과정을 거쳐 天性에서 발현되는 이념의 실천자가 될 것을 言表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미친한 여성의 행적이 훌륭하여 입전한 작품에서 이와 같은 論贊이 많이 보이며 한결같이 天性의 발현으로 자연스럽게 이념을 실천한 것으로 讚美되고 있다. 이를 통해 同계층의 사람들에게 天性이 발현되어 이념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班常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며 上계층의 사람들에게는 敎化和 敎育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만 못해서야 되겠는가라는 警覺心을 일으켰다. 이에 이념이란 계층을 莫論하고 실현되어질 때 그 가치를 발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Ⅲ장 忠孝傳의 變貌와 女性에서 살펴보았던 작품의 論贊 부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① 아버지와 자식, 임금과 신하, 노비와 주인은 하나이다. 있는 곳에서 각자의 그 분수를 다할 뿐이다. (...) 어찌 그 처한 바가 ㉠ 미친하다고 하여서 그것을 함이 적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세상의 아버지와 자식, 임금과 신하, 노비와 주인 된 자가 ㉡ 분수를 다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²⁴³⁾
- ② 斗蓮의 ㉢ 孝는 저절로 왔을 것이다. 이에 조상의 부름이었고 이에 조상의 뜻을 따라 부름을 공경하였다. (...) 세상의 部類가 이와 같다면 斗蓮은 어찌 할 수 있었는데 ㉣ 그렇게 못하겠는가?²⁴⁴⁾
- ③ ㉤ “사대부의 독서하는 남자여! 능히 이와 같은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 또 하물며 ㉦ 천하게 태어난 여자에게 있어서라. 그런데도 그 嫡兄弟에게 주었으니 은혜와 사랑이 相接한 것은 陸氏婦와 같은 자가 아니겠는가. 陸氏婦는 그 ㉧ 天性이 倫理에 독실하였다. 뛰어난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²⁴⁵⁾

243) 父子君臣奴主。一也。所在而各盡其分焉。(…) 豈可以其所處之賤而少之也哉。(…) 以愧世之爲父子君臣奴主而不盡分者。(『樊巖先生集』卷55 <七分傳>)

244) 斗蓮之孝。有自來矣。乃祖命徵，乃從祖敬徵。(…) 世類如此。斗蓮豈得不然乎。(『直菴集』卷27, <孝妓斗蓮傳>)

245) (...) 士大夫讀書男子。能如此者有幾乎。(…) 又況以賤出女子。而與其嫡兄弟。恩愛不相接。如陸氏婦者乎。陸氏婦者。其天性篤倫理。可謂有絕人者矣。(『海左先生文集』卷39, <陸氏婦傳>)

위의 論贊을 작품세계에서 검토한 내용을 想起하며 살펴보면 ㉠부분을 통해 이 여성들의 신분은 모두 공통적으로 微賤했음을 알 수 있다. 微賤한 신분에 더해진 여성이란 性別은 삶의 무게를 더욱 짓누르던 것이 당시 현실이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간 자신의 處地를 인식하고 있었는가의 與否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여성들은 훌륭히 忠·孝를 구현하여 이념의 실천자로서 기림을 받는다. 이에서 더 나아가 ㉡과 같이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 이념을 하나의 형식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과 같이 이념의 실천은 대단히 어려우며 高遠한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자신을 省察하여 天性에서 발현할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념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준수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一般的이면서도 當爲的인 것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미친한 여성을 입전하여 그들이 보여준 훌륭한 행적을 讚美하고 비교되는 대상을 거론하는 일은 단순히 優劣을 가리고 是非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형식을 빌려와 劣하고 非한 쪽에 놓이는 사람을 興起시켜 自發的으로 優하고 是한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념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볼 때 迂廻的이기는 하지만 效果的인 방법으로 劣·非에 놓이는 사람을 配慮한 細心함이 엿보인다. 原色的인 非難으로 拒否感을 일으키지 않고 가벼운 言志를 통해 他者と 비교되는 自我를 발견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女性人物傳을 통해 전통이념을 고취하고자 했던 의식을 살펴보았다. 이념을 실천한 여성에 대한 讚美는 신분과 현실적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표현과 방식으로 나타났다. 家父長制 사회에서 가정 이외의 생활이 제한된 상층의 여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이루어진 從容한 죽음을 讚美함으로써 이들을 龜鑑으로 삼아 이념을 內面化하는데 주력했음을 알았다. 또한 조선후기 사회의 多變化에 따라 의식의 성장을 보이던

평민층 여성들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었고 이들을 입전한 작가들은 이념에 초점을 맞추어 讚美하기도 하고, 비교 대상을 거론하여 言志하는 뜻을 보이기도 했으며 나아가 天性을 발현하여 이념을 日常化할 것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批判意識의 內在

앞서 Ⅲ장 烈女傳의 持續과 變貌에서 살펴보았듯이 烈女傳은 전형적인 女性像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傳이라는 문학 양식이 그 시대의 이념을 內面化하고 鼓吹하는 데 적합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독립된 人格을 지닌 수많은 인간이 모인 사회 속에서 그들의 個性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지배층 또는 국가에 있어서는 자칫 統制不能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規範과 價値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념의 실천자로 만드는 것이 안정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훌륭한 사회인 것이다. 여기에는 時代的·歷史的 배경이 큰 變數로 작용하였으며 戰後의 혼란해진 상황 속에서 이념의 재정립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살펴본 바 있다. 敎化書 배포라는 施惠的 태도와 旌表 정책이라는 報償的 태도는 표면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훌륭한 형식이었으며 이면적으로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전형화 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에 표면적인 형식에 맞추어 내용이 변질되는 敎條的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忠이라는 명목으로 國喪을 당해 삼년상을 치르는가 하면 國忌日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北向四拜하고 술과 고기를 일절 금하는 일로 일상을 삼는 등²⁴⁶⁾의 행위, 孝라는 명목으로 손가락을 자르고 넓적다리를 베는가 하면 糞을 맛보기도 하는 것, 喪을 지나치게 후하게 하는 것, 반드시 珍貴한 꿩·잉어·노루·자라·눈 속의 竹筍 등을 아버지와 어미에게 찾아 구해 드리

246) 정출현, 앞의 논문, 154쪽

는 것 등²⁴⁷⁾의 행위를 들 수 있다. 이는 禮라고 하기에는 지나치며 분명 형식을 좇아 내용이 변질되어가는 一面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념의 실천이 순수하게 價値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차 利慾에 따라 輕重을 재어본 후 나오는 계산적인 행동이 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지극한 忠心 또는 孝心の 발로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獨特한 행위가 몇 몇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모습으로 類型化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행동의 背後에 국가적 차원의 助長이 있었던 것을 暗示해 준다. 즉, 이러한 忠·孝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일로 쉽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이 때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한 자가 있을 경우 한 개인의 褒賞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家門의 명예를 세워주기도 하고 마을에 旌閭하기도 하는 등 개인·가정·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宣傳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정책은 하나의 관행을 이루었고 이에 부응하여 개인은 물론 가문과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忠臣·孝子·孝婦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旌表者들은 많아져 갔고 점차 旌表할 만한 자들을 놓고 優劣을 가리는 사태까지 빚어졌으니 그들 가운데서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념이라는 명목만을 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이르렀다. 사회와 국가 또한 이들의 행동을 이념의 실현으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것이 教條的인 모습을 굳혀갔던 것이다.

烈이념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烈이념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家父長制 사회에서 여성이 치러야 할 희생은 컸다. 忠·孝

247) 丁若鏞(1762~1836)은 <孝子論>에서 孝行의 虛偽性을 論駁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부모를 憑藉하여 名望을 구하고 徭役을 逃避하며 간사한 말을 꾸며서 임금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보았다. 日帝시대 민족주의 國學者였던 孫晉泰(1900~1950)는 孝는 비록 美德이나 사회를 망각한 개인주의적 孝는 不可하며, 비판을 거부하고 盲從을 강요하는 孝는 사회의 발달을 위하여 심대한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湖岩 文一平(1888~1939)도 역시 孝가 그 성질상 순진한 自然愛의 발로를 要하는 것인데, 이것이 관습화함에 미쳐서는 벌써 본래의 생명을 잃고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丁若鏞, 『茶山論叢』, 을유문화사, 1972, 111~117쪽; 『孫晉泰先生全書』 6, 韓國民俗文化散考, 太學社, 1981, 646~650쪽; 文一平, 『湖岩史論選』, 李基白 編, 탐구신서 99, 140쪽)

의 실천은 살아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었으며 개인의 영광으로 안겨진 포상이 자기만족·기쁨이자 지속적인 忠·孝의 推進體로 작용했다면 烈의 실천은 죽어야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死者에 대한 기림만이 유일한 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보면 烈의 구현에 있어 여성은 독립적 自我가 아니라 종속적 媒介體로 비추어진다. 즉,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夫死 이후의 삶은 烈의 구현을 위한 삶으로 이어진다. 결국 從死함으로써 烈을 실현하고 그 죽음은 가문과 고을의 명예로 이어지는 것이다. 夫死 이후 烈을 실천하기 전까지 즉, 남편을 따라 바로 죽지 않고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從死를 지연시키는 삶 속에서 여성에 대한 주변의 관심은 여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의 從死 與否에 모아진다. 많은 烈女傳 속에서 夫死 이후 여성의 從死를 만류하고 감시하며 從死의 의지를 꺾기 위해 다른 관심거리를 주기도 했던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당시 사회에서 이념을 內面化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從死의 의지가 강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의 관심이 이 여성의 從死 與否에 모아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성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남편은 여성에게 삶의 의미이자 존재 기반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성의 삶은 無意味하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사고였다. 따라서 당연히 관심은 從死 與否,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언제 從死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從死의 만류와 감시는 家父長의 空白을 代置해줄 사람과 가사노동을 담당해줄 人力이 필요했던 당시 여성들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烈女傳에 여성이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야 할 세월의 고통이 어떠한지, 여성의 어깨에 얹어지는 현실의 무게를 덜어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人間的 憐憫이나 現實的 慰安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千篇一律的으로 夫死 후 극도의 슬픔으로 氣絶했다가 甦生한 후 굳센 여성으로 거듭나 현실적 역할과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從容히 죽음을 맞

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이는 烈이 夫를 상위로 한다는 이념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적 연민이나 현실적 위안을 애써 외면하는 입전의식의 반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죽음에 있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감정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대신 당시 여성의 현실에 있어 여성이라면 누구나 갖는 의무적인 역할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린 것이다. 이는 여성을 의무의 수행자이자 이념의 실천자로 만들기 위한 烈女傳의 입전의식이었던 것이다.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從死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守節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여성은 물론 가문과 마을 모두 從死를 그 보다 더 뛰어난 행실로 여겼으며 이러한 사회 현상에 따라 烈女傳에서 從死를 다루지 않은 작가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의 인식에 따른 사회 현상, 그리고 문학 작품에 표현된 의식이라는 三拍자가 갖추어져 한결같이 從死로 치닫는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분명 이러한 사회는 이념을 위해 인간의 생명까지 경시되는 教條화된 모습이다. 많은 여성들이 烈女가 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며 삶을 연장하는 가운데서도 한 남자의 아내로 사랑을 키워왔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從死의 기일을 선택한 그 순간에서도 제 손으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리는 萬無하다. 같은 인간으로서 烈女傳 작가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 여성의 情欲을 감추고 죽음에 대한 恐怖를 從容함으로만 드러냈다. 이에 점차 여성의 性과 生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 의식은 또 다른 烈女傳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以熱治熱이라는 말이 있듯이 烈女傳이 낳아가고 있던 弊害를 烈女傳을 통해 淨化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였던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이 당시 만연된 從死 풍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에는 力不足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폐해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따라서 이들의 비판 의식은 先鋒에 서서 강력하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규범과 질

서를 준수하는 듯한 모습으로 烈女傳의 형식을 빌려와 그들의 의식을 內在하여 조용하게 그렇지만 逆說的으로 말하고 있었다.

1) 從死에 대한 批判

앞서 Ⅲ장 烈女傳의 持續과 變貌에서 전형적인 烈行에서 벗어나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香娘은 평민층으로서 쉽게 할 수 없는 烈行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文士들이 이념 구현의 모습으로서 새로이 주목하고 입전하여 창작 熱風이 불었던 반면에 이러한 烈行의 새로운 모습은 물론이고 비판의 식까지 담은 작품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전반적인 大勢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逆行하기란 쉽지 않으며 逆流에 휘말리는 것도 본인의 몫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勇氣와 挑戰 정신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적 趨勢를 따르는 듯하면서 비판의식을 담은 몇 작품이 보이고 있으니 이 작품들의 論贊부분을 살펴보면 그 비판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표현과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 ① 이 사람이야 말로 烈女라 할 만하다. 아아! 그 어려운 節操와 맑은 행실이 이러한데도 ㉠ 當世에 드러나지 않음은 물론 이름이 묻혀 전하지 않는 것은 왜인가? ㉡ 寡婦가 義를 지키는 것이 온 나라에서 보통 하는 일이어서 ㉢ 한 번 죽지 않으면 寡婦들 가운데서는 특별한 節操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²⁴⁸⁾
- ② 烈女의 마음에는 젊은 나이에 寡婦가 되어 ㉣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 친척들이 가엾게 여기는 바나 되고 ㉥ 이웃사람들의 臆測을 면치 못할 테니 빨리 이 몸이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아아, 상복을 입고 죽지 않았던 것은 장례 치를 일이 있어서였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죽지 않았던 것은 小祥이 남아서였고, 小祥 뒤에 죽지 않았던 것은 大祥이 있어서였다. 大祥을 치른 뒤 喪을 다 끝내고 죽었으니 남편과 한날 한시에 죽은 것이다. ㉦ 결국 그 처음의 뜻을 이룬 것이니 烈女가 아닌가?²⁴⁹⁾

248) 是可謂烈女矣。噫。其苦節清修若此也。無以表見於當世。名埋沒而不傳何也。寡婦之守義。乃通國之常經。故微一死。無以見殊節於寡婦之門。(『燕巖集』卷1, <烈女咸陽朴氏傳 并序>)

249) 其心豈不曰弱齡嫠婦之久留於世。長爲親戚之所嗟憐。未免隣里之所妄付。不如速無此身也。噫。成服而

論贊 ①은 守節한 여성 이야기 뒤에 나오는 論贊이고 ②는 從死한 咸陽朴氏 이야기 뒤에 나오는 論贊이다. 대다수의 烈女傳이 從死한 여성 한 명만을 입전하고 있는데 반해 이 작품에서는 生과 死로 확연히 구분되는 두 여성을 입전하고 있다.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만 앞서 살펴본 論贊들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나 내용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도에서 두 여성을 입전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그 의도를 유추해보고 論贊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본다.

우선 生·死를 기준으로 한다면 두 여성을 對比하여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한 쪽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경우 주관심의 대상은 ②의 여성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입전 의도는 ② 여성의 讚美와 이를 통한 烈이념의 고취가 될 것이다. 이것은 烈女를 咸陽朴氏만으로 標題한 것과는 부합되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렇게 유추한 상태에서 이제 論贊을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難點에 부딪치게 되니 그 첫째가 烈로서 두 여성을 공통적으로 찬미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가 이념고취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論贊들만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전형적인 표현과 방식으로 論贊의 처음과 끝에서 烈을 讚美하고 從死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품성에 대해 요약적·구체적으로 제시하고 從容히 죽음에 나아갔다는 論贊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뚜렷하게 대비되는 生·死의 문제는 再設定된 기준에 따른 결과적 현상을 논할 때 필요한 요소였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차이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공통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점은 烈로서 讚美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작가의 주관적 評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공통점이면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기준이 될

忍死者。爲有窶窵也。旣葬而恐死者。爲有小祥也。小祥而忍死者。爲有大祥也。旣大祥則喪期盡。而同日同時之殉。竟遂其初志。豈非烈也。(『燕巖集』卷1, <烈女咸陽朴氏傳 并序>)

만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는 두 여성이 공통적으로 처해있던 각 인용문의 ㉠부분인 當世가 되는 것이다. 이 당시의 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의 여성은 從死만 못한 守節을 택한 여성이고 ㉡의 여성은 從死하여 이념을 구현한 여성이 된다. 작가가 이 둘을 입전한 의도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세상이 기준이 되어 내려진 평가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自問, 그 自問에 대한 自答은 결코 아니었다. 이 때문에 두 여성을 입전하여 세상이 기준이 되어 내린 평가와 다르게 모두 烈로서 讚美하고 逆으로 守節과 從死를 택할 수밖에 없게 한 세상을 비판한다. ㉠과 같은 세상, 즉 寡婦된 자들이 改嫁하여 새로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현실, 남편에 대한 義理를 내세워 평생을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감시받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이 죽음만 못한 삶이었다는 것은 論贊 ㉡에 작가의 목소리로 드러나는 여성의 內面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친척들이 보이는 嗟憐은 이 여성이 靑孀 寡婦로 평생을 守節해야 하는 고통을 알아주고 이에서 발로 되었다기보다 寡婦이기 때문에 쉽게 毀節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이웃의 妄忖도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이 속에서 寡婦로 守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결국 그러한 현실에서는 각 論贊의 ㉢과 같이 오히려 從死가 편하고 쉬웠을 수 있다. 이는 당시의 현실이 여성들을 從死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두 여성을 烈로 讚美하고 있지만 從死가 오히려 편한 현실에서 守節을 택한 ㉠의 여성을 대단하게 기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념의 구현에 목표를 두고 그 실현방법을 從死 與否에 두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의 여성이 完成한 자이고 ㉠의 여성이 未完成된 자라고 할 수 있지만, 작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不合理的 현실 속에서의 삶은 ㉠의 여성이 完成한 자이고 ㉡의 여성은 도피해버린 자인 것이다. 불합리한 현실을 도피해버리고 安樂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 ㉡의 여성을 烈로서 讚美

한 것은 이러한 비판의식을 內在하기에 효과적인 표현인 것이었다. 즉, 당시 從死 풍조는 거스를 수 없는 大勢였으며 이 가운데서 직설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거센 反感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에 세상이 理想的으로 보아온 從死한 ②의 여성을 입전하고 다수의 烈女傳 작가들이 전형적으로 표현한 烈로써 ②의 여성을 讚美하기까지 하여 그 내용과 형식을 類似하게 갖추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작가의 의도대로 비판하고자 했던 내용도 담고, 사회적으로 일어날 반감도 無化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論贊을 통해 전형적인 烈女傳의 내용과 형식을 사용하여 그 안에 내재한 것은 많은 여성들을 從死로 몰고 가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과 형식을 사용하여 비판 의식을 담고 있는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한다.

2) 女性 拘束의 批判

작가적 입장에서 볼 때 전개부분에서는 입전인물의 행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된 공간이라면 論贊부분은 입전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앞서 작품의 전개부분에서는 寡婦가 자신의 목소리로 守節한 세월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일반적인 傳의 형식과 원칙에서 벗어났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論贊부분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작가의 의식을 담을 수 있었다. 여기서 살펴볼 작품은 전개부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論贊부분 또한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앞서 작품과의 표현과 방식을 비교·고찰하여 차이점을 밝히면서 작가의 비판의식을 도출해보도록 한다.

- ① 아아, 기이하다. 天命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가! 마을 사람들이 훌륭한 자취를 기록하니 太守가 아름답게 여겨 그 집에 旌閭를 내릴 것을 의논하였다.²⁵⁰⁾

250) 嗚呼異哉。天命之不可易如此夫。鄉人書之善籍。太守嘉之。議旌其閭。(『靑莊館全書』卷4, 「嬰處文

② 君子는 탄식하며 말한다. “사람의 뉘뉘한 행실은 한 마을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한 마을 게다가 한 집안에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아아, ㉠ 烈女가 烈女에게 배워서 끝내 烈女의 이름을 이루었으니 그 또한 기이하다! ㉡ 옛날에 空同子는 눈물을 흘리며 <六烈女傳>을 지었는데 세상에 한스러움이 있었다. 나도 두 烈女에 대해서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外黨叔 朴汝秀씨는 松禾縣 사람이다. 조카 烈女가 그의 妻兄이라서 나에게 그 일을 대강 이야기해 주었다. 감탄하며 그 일을 쓰고 <兩烈女傳>이라 한다. 또 贊하여 말한다. 여자의 행실이 어찌하여 나에게 존경심을 일으키며, 松禾縣의 땅은 어찌하여 두 烈女를 나란히 냈는가?251)

論贊 ㉠은 남편의 現夢 후守節한 여성에 대한 論贊이고 이 여성의 조카였던 李氏가 從死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論贊이 ㉡이다. 이 작품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두 여성을 입전하였으며 生과 死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이 작품 또한 守節과 從死로 상반되는 두 여성을 입전하여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 의도가 內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論贊을 살펴보게 되면 앞서와 달리 당시의 현실이 어떠한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앞서의 작품에서도 작가가 직접적으로 당시 현실을 비판했다고 하지는 않았다. 여성을 입전하여 그들이 처한 현실과 내면을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담은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독자만이 그와 함께 세상을 비판하는데 同調해 준다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그간의 전형적인 烈女傳으로 읽는 독자와 사회를 의식하여 안전장치까지 마련하여 훌륭하게 비판의식을 내재한 것이다. 이 작품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論贊 ㉠을 살펴보면 앞서의 작가와 마찬가지로 守節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보인다. 당시가 守節은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從死하지 않으면

稿」2, <兩烈女傳>)

251) 君子歎曰。人之有懿行。一鄉不易。況一鄉。又一門也哉。嗚呼。烈女學於烈女。終成烈女之名。其亦異哉。昔空同子涕泣。作六烈女傳。蓋有憾於世也。余於兩烈女。亦如之也。外黨朴叔汝秀氏松人。小烈女。又其妻兄。爲我言其槩。遂感嘆以書。爲兩烈女傳。又贊曰。女之行。胡使我起敬。松之士。胡兩烈女之位。(『靑莊館全書』卷4, 「嬰處文稿」2, <兩烈女傳>)

烈女傳의 입전은 물론 국가의 旌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두 작가 모두 守節한 여성을 입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守節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趨勢를 따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작가가 같은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 보인다. 즉, 앞서의 작가는 작품 속에서 守節한 여성이 오랜 세월 苦惱와 情欲을 忍死符(동전)로써 견뎌낸 것을 말하고 論贊에서는 이것이 烈일진대 국가에서는 旌闔하지 않았음을 말했다. 이를 통해 守節한 여성을 고뇌하기도 하고 정욕을 느끼는 보편적인 인간으로 이해하고 從死만을 조장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것이다.

반면에 이 작가는 작품 속에서 守節한 여성이 50년간 살아온 것은 남편의 現夢 이후 지시를 따랐던 것이었음을 말하고 論贊에서는 이것이 天命이었으며 旌闔할만한 것임을 말했다. 이러한 내용과 論贊만으로는 守節한 여성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없거나 微弱해 보인다. 즉, 守節한 여성을 生의 의지도 없고 존재 가치도 느끼지 않으며 단지 남편의 지시를 따라 살아왔던 受動的인 인간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이는 남편의 現夢 이후 술지게미를 먹고 짬자리에서 잠자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데서도 드러난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從死한 여성들이 전형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며 이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보다 非人間的인 모습으로 형상화하는데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守節한 여성이지만 입전할 수 있었고 旌闔할만하다고 여기는 것은 從死한 여성들이 그 전까지 보이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50평생을 자신의 安樂을 즐긴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지시를 따른다는 명목으로 생명만 扶持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듯 하다. 결국 전형적인 從死 烈女에 가까운 守節 烈女이기에 새로이 주목하고 입전했으며 국가에서도 旌闔함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굳이 ②의 여성을 입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②의 여성을 입전함으로 인해 ①의 여성의 守節은 그보다 못

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므로 ②의 여성을 입전하면서 ①의 여성의 입전을 再考해 보고 削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②의 여성에 대한 論贊을 살펴봄으로써 ①의 여성의 입전의도와 비판의식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論贊 ②를 살펴보면 ㉠과 같이 두 여성을 모두 烈女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보편적인 인식으로 從死보다 못한 守節을 했던 ①의 여성에게 烈行을 배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는 ①의 여성이 보여준 守節을 의미 있는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從死한 여성만을 훌륭하다고 하지 않고 從死와 같은 烈行을 보일 수 있게 한 원동력을 ①의 여성으로 보면서 모두 烈女라고 말한 것이다. 앞서의 작가와 마찬가지로 두 여성을 對立的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並列的인 위치에 놓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 평가할 때 정반대의 烈行을 보인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앞서의 작가가 세상의 평가는 정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從死를 조장한다고 비판한다면 이 작가는 세상의 평가가 二分法的 사고로 나뉘는 것에 有感을 보이며 오히려 여성의 현실에 시선을 돌린다. 여성의 현실이 家父長에 의해 종속되는 것을 작가의 목소리나 여성의 내면을 통해서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객관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할 줄도 모르고 감정도 없는 非人間的인 모습인 것이다. 철저히 남편에게 종속되어 夫死 이후 자신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며 살고 있는 것이 마치 罪人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 살고 죽는 것도 오직 家父長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①의 여성이 守節하며 살았던 삶은 여성의 의지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삶에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여성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면 인정받지 못했을 삶을 家父長인 남편의 지시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여성의 현실, 즉 家父長에 의해 종속되고 非人間的으로 살아야만 했던 사회현

실을 여성의 입장이 되어 한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실에 대한 한스러움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과 같이 空同子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그의 생각과 작품을 模倣하여 새로이 創造해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는 標題부터가 거의 恰似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앞서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從死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해서도 否定的이지만 그보다 從死해야만 하는 여성을 가련하게 여긴다. 이에 오히려 守節한 것을 더 대단하게 기리며 이 또한 天命이라고 말한다. 여성의 守節한 삶이 남편의 지시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同等하게 부여받는 것으로 여성도 한 인간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앞서의 작가처럼 작품을 통해 여성의 인간적 苦惱와 情欲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天命이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여성을 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家父長에 의해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從死를 조장하는 사회현실을 비판하기 이전에 從死가 사회의 한 추세가 되어가게끔 만든 家父長制 사회를 먼저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작품 또한 앞서의 작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사회 비판이 가져올 반감을 無化시키는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형적인 烈女傳의 내용과 형식을 빌려온 것에서 더 나아가 창작 목적까지도 他人의 것을 모방한 듯이 하였다. 이에 무엇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작가의 의식을 찾기란 쉽지 않았지만 이 또한 작가의 의도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게 비판 의식을 내재할 수 있었던 것이라 본다.

이상으로 비판의식을 내재한 論贊을 살펴보았다. 전형적인 烈女傳의 내용과 형식을 사용하여 그 안에 내재한 것은 인간이기 전에 家父長에 의해 구속받는 여성의 현실, 그러한 家父長制에 의해 빚어지고 전형화 되어 가는 從死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작가가 비판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념을 盲從하여 생명이 輕視되는 사회에의 비판이었기 때문에

결국 같다고 볼 수 있다. 모두가 烈女傳을 통해 이념의 고취에 주력하는 가운데 이념의 내용이 형식을 쫓아 변질되어 가는 것을 또 다른 烈女傳을 통해 비판한 것이다. 이들의 비판 의식은 하나의 움직임이었지만 19세기 이후 적극적인 비판과 사회개혁에 대한 촉구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그 批判群의 先端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⁵²⁾

3. 새로운 人物形象과 意味賦與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烈女傳을 비롯해서 女性人物傳에 입진된 대상은 당대 사회가 지키고자 했던 忠·孝·烈 이념을 위해서 자신을 犧牲하거나 이를 적극 실천하여 역사적으로 기릴 만한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이념은 傳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고정화된 관념과 인식의 틀을 갖추면서 그 안에 담겨져 왔다. 그러나 조선후기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굳건하던 이념체계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념의 재정립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였고 이에 부응하는 작가들은 그들의 문학작품을 통해 이념의 고취에 힘썼다. 이 같은 이념 고취의 力說이 높아지면 질수록 형식에 맞추느라 내용들이 왜곡되는 教條적인 모습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몇몇 작가들은 그들의 문학작품에 逆說을 담아 비판의식을 내재하였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렇게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는 봉건체제가 서서히 해체되어가던 시대

252) 19세기 초의 丁若鏞(1762~1836)은 <烈婦論>에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며 當代 위정자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요 근래에는 남편이 편하게 제 命대로 正寢에서 죽었는데도, 그 아내가 따라서 죽는다. 이는 제 몸을 죽였을 뿐으로, 제 몸을 죽인 것은 義理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로 말한다. 제 몸을 죽이는 것은 天下의 凶한 것이다. 이미 제 몸이 義理에 합당하도록 죽지 못했은 즉, 이것은 한갓 天下에 凶한 것일 뿐이다. 한갓 天下에 凶한 것을 한 것이건마는 백성의 위사람 된 자가 그를 위하여 그 집 문설주를 빗나게 하고 牌木을 붉게 하며 戶稅를 면제하고 그 자손의 賦役을 절감하니, 이것은 그 백성에게 서로 본받아서 天下의 凶한 것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어찌 옳겠는가?”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1집, 卷11) 丁若鏞은 당대 성행한 烈女 旌表가 한편으로는 여성들을 盲目的인 죽음과 신체손상으로 引導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再考를 요청했다.

로 기존의 이념과 질서를 守舊하려는 쪽과 그러한 노력이 부작용을 낳은 현실을 批判하는 쪽으로 兩分되었다. 그렇더라도 이 둘의 방향은 공통적으로 이념을 중심에 놓고 일어난 현상이었다. 즉, 이념 고취와 현실 비판의 목소리는 달리웠지만 고정화된 관념인 이념을 傳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이는 봉건체제의 붕괴와 함께 전통이념까지 상실될 위기에서 사회가 力點을 두고 강조한 결과 빚어진 二重的인 모습과 그에 따른 당연한 批判이었다. 아무리 개인적·사회적으로 노력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理想的인 모습들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그에 따른 비판의 움직임도 막을 수 없었다. 이는 무엇보다 전반적인 시대의 변화를 默過한 채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식이 개입되어 多數가 완강하게 守舊의 목소리를 내었고 이에 힘입어 사회적인 大勢로 몰고 간 것에 문제점이 露呈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이념을 드높임으로서 이전의 안정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았던 데서 기존의 가치체계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음을 否認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사회는 변화하였고 이에 맞추어 새로운 가치체계를 도입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不備하였다는 점과 더 이상 기존의 一律的인 가치로 規格化할 수 있었던 平面的 모습·斷片的 사고의 중세적 인간형이 아니라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立體的 모습·個性的 사고의 새로운 인간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을 認知하지 못했거나 外面하였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多數에 의한 사회적인 大勢가 반드시 正道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小數에 의한 비판의 목소리가 현실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았다는 데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념과의 관계 與否를 떠나 조선후기의 변화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 再現的 모습이며 이념의 실천자만이 입전 대상으로 한정되었던 이전과 비교할 때 새로운 인간형을 입전한다는 것은 변화를 수용하는 新思考의 모습이다. 결국 이 또한 현실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았다는 데서 발전적 모습이다. 그동안 전통적 가치관에 강요

되어 意識的·無意識的으로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작가들이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그 사회의 인간들을 순수하게 바라본 것이다. 이는 사회가 기존의 가치관이라는 틀 안에 맞추려고 해도 규격화되지 않는 인간을 排除할 때 이들을 이념의 잣대로 재지 않고 다양한 인간유형 중의 하나로서 注目한 것이다. 그동안 남다르고 훌륭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이념과 신분 때문에 즉, 이념의 실천에서 벗어나며 신분의 高下에서 하층이기 때문에 立傳될 수 없었던 인물들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의 多變化만큼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인간 유형도 多樣化되었음을 입증하며 당시를 共有하고 이들과 더불어 살던 작가들의 의식 또한 覺醒되고 現實化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서의 작가들이 이념 고취에 힘썼던 데에는 理想에의 의식이, 현실 비판에 힘썼던 데에는 改善에의 의식이 바탕이 되었다. 前者가 이념을 실천하여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안정되는 理想的인 사회에의 지향이라면 後者는 이념의 盲從을 낳는 현실을 비판하여 本理念으로 돌아갈 것과 개인의 가치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을 인식시켜 정상적으로 本理念이 驅動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改善에의 意志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방향이 물론 목소리는 달리 하고 있지만 당시의 현실을 보고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추구한 점은 공통적이다. 즉 완전한 현실 그 자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이 반영되어 발전적 미래를 희망한 것이다. 따라서 이념과 신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식의 개입 없이 당시의 삶을 자신의 主觀과 意志를 갖고 살았던 인간에 대한 주목은 조선후기 社會象, 조선후기 새로운 人間形, 그리고 조선후기 변화된 傳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指標가 된다.

예컨대 조선후기 새로운 인간형으로 오직 자신의 信念에 따라 국가를 위해 獻身하다가 쓸쓸하게 生을 마친 安龍福,²⁵³⁾ 당대 사회가 賤待하고 無視

253) <安龍福傳>의 안용복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하려 한 음모를 혼자 힘으로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공로를 세운 민간 외교가였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보답은커녕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며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하층의 無名小卒에서 일어나 국가적

하였지만 기술자와 과학자의 길을 굳게 걸었던 인물 金泳,²⁵⁴) 예술적 自我를 지키기 위해 세속적 삶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걸어간 藝人 崔北,²⁵⁵) 출세와 경제적 富를 버리고 오직 民衆에게 참된 仁術을 베푼 民衆醫 趙光一,²⁵⁶) 獨特한 인생관을 추구하며 규범 밖에서 豪快한 인간기질로 거침없는 삶을 살았던 遊俠 白東修,²⁵⁷) 張五福²⁵⁸)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그 유형과 분야 또한 다양한 인간형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가 더 이상 忠·孝·烈 이념만으로 규격화되는 사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傳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즉 입전대상과 그 인물의 규범적 행실로서 교훈을 삼으려는 창작목적까지 변했다는 사실을 통해 문학작품이

難題를 푼 그의 삶을 작자는 역사의 이면에 묻혀 버린 한 애국 인물의 영웅적인 삶으로 인정하고 그의 행동에 참다운 가치를 부여하여 역사의 공간에 부활시켰다.(진재교 편역, 『알아주지 않은 삶: 조선조 후기 傳과 記事 모음집』, 태학사, 2005, 15~16쪽)

- 254) <金引儀泳家傳>의 김영은 과학의 효용성과 학문적 의미를 알아주지 않았던 시대를 정면으로 맞서 나갔다. 작자는 세상에서 아첨하고 시세에 따라 오르내리는 세태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개성적인 삶의 자세를 소유하였던 그의 인간적 면모를 주목하고, 개성적 인간 기질 위에 수학 과 천문학으로 일가를 이룬 삶을 강조하고 있다.(진재교, 앞의 책, 16~17쪽)
- 255) <崔北傳>의 최북은 평생 奇行과 유량으로 일관하며, 그의 사고와 행동은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하루에 대여섯 되씩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화가의 삶을 지탱할 수 없었다. 사회가 그를 진정한 예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저 환쟁이로 대우했기 때문에 강렬한 예술적 자의식을 지닌 최북으로서의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를 世人들은 미친 사람(狂生)으로 지목하였다. 그의 일화가 보여주는 기행적 삶과 예술활동은 화가로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 당시 예인의 슬픈 자화상이다.(진재교, 앞의 책, 20~21쪽)
- 256) <針隱趙生光一傳>의 조광일은 오직 침 하나로 민중의 병을 치료했던 진정한 의원의 모습이자 백성과 빈민에게 인술을 베푸는 민중의로서의 참모습이다. 그는 인술을 베풀지 않은 당시 의원들의 행태를 여지없이 꼬집는 한편, 자신은 만여 명의 사람을 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한 사실을 피력한다. 그는 民을 위해 참다운 삶을 산, 민중의 영웅이었다. 작가는 始終 조광일의 삶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선입관 없이 그려낸다.(진재교, 앞의 책, 21~22쪽)
- 257) <書白永叔東修事>의 백동수는 호협하고 무예만 능한 것이 아니라, 문무를 겸하고 예술세계에도 조예가 있었던 조선의 쾌남아로서, 권력도 돈도 개인적 불운도 그의 호협한 자세와 진정한 기상을 꺾지 못했다. 작자가 작품의 말미에서 ‘그의 남다른 기상이 여전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고 기술하고, ‘애석하다! 奇男子를 다시 볼 수 없음이어!’ 라고 안타까워한 것은 진정으로 그를 이해한 발언이다.(진재교, 앞의 책, 22~23쪽)
- 258) <張五福傳>의 장오복은 당대 규범을 뛰어넘는 호방한 모습과 담대한 협객의 모습이 躍如하다. 이러한 면모는 그가 李朝의 아전으로 근무하면서 李朝 낭관에게 봉분을 준 기상천외한 행동, 포도대장의 침을 칼로 찔러 위협에 처하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변호하는 대담함, 기생을 짝사랑하는 바치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기지 등의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작자 역시 始終 市井 뒷골목의 해결사이자 영웅으로 서술하였다.(진재교, 앞의 책, 23~24쪽)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시대의 所產物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펴본 대상은 모두 남성으로서 새로운 인간 유형과 분야가 다양한데도 한결같이 자신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으로서 새로운 인간형은 어떠한가. 사회가 아무리 변했어도 인간은 그전까지 性別化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대로 살았던 사실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의식이 한순간에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性別을 기준으로 볼 때 家父長制 사회에서 家長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살았던 남성이 순종과 인내를 懲罰받으며 洗腦되다시피 살았던 여성보다 변화의 물결을 잘 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물고기가 물을 만났을 때 자유롭게 헤엄 칠 수 있듯이 독립적 개인으로 살아온 남성이었기에 변화된 사회를 만나 家父長制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主體的·積極的으로 살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종속적 媒體로서 살아온 여성은 변화된 사회를 맞이했어도 그 사회에 자유롭게 나아갈 정신적·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家父長에 종속되어 수동적인 삶에 적응하고 안주하던 여성이라면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불안감과 두려움이 앞서는 정신적 恐慌상태를 맞이한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새로운 인간형으로 거듭날 때조차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이념의 고취에 힘쓰면서 性別化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강요하던 현실이었다. 결국 변화된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表出되지 않더라도 대다수 여성의 의식 속에는 性別化된 관념과 인식의 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이 여성으로서 새로운 인간형의 數가 남성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자 대다수의 여성들이 지닌 의식을 깨고 변화된 사회에 맞추어 주체적인 삶에 도전하고 성취해냈기에 대단하게 기려질 수 있는 이유이다. 더불어 남성보다 몇 배의 意志와 勇氣가 필요했기에 그 의미가 부각된다. 일반 여성들이 갖는 고정화된 의식에서 깨어나려는 自身에의 극복,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 여성상에서 벗어나려는 他者에의 도전은 강인한 의지와 남성

못지않은 용기를 보여준다. 따라서 남성만큼 다양하고 유형화할 수는 없을 지라도 그전부터 당시까지 여성의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量的으로 남성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質的으로 여성 자체의 발전으로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을 포착하여 입전한 작가들이 앞서 현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작가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 자체의 가치를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인간형으로서 여성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 유형을 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勇氣있고 積極的인 俠女像²⁵⁹⁾

Ⅲ장 理念에 따른 獨特한 行爲에서 살펴본 작품에 입전된 여성들의 행동 원인은 이념적 사고에서 나왔지만 결과는 非規範的 모습이었다. 이념을 좇아 규범적 사고를 한 여성들이 극단적 행위인 殺人이라는 비규범적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정화된 관념과 인식의 틀을 갖추어 여성들의 의식을 이념의 盲目的 追從者이게끔 한 사회가 빚어낸 현상이었다. 결과적 행동이 어떠한지 그 원인이 이념을 위해서였다면 殺人이라는 행동도 受容하고 褒賞하기까지 하여 이념의 가치를 절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분명 사회가 빚어낸 歪曲된 斷想임에도 이 여성을 입전하고 있는 작가는 이념의 盲從을 낳고 있는 사회 현실이나 개인의 가치가 희생되고 이념의 실천만이 부각되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으로서 殺人까지 할 수 있었던 주체적인

259) 강혜규는 원수를 갚는 여성을 俠女로 지칭하였다. 唐代에 이르러 다수의 豪俠傳가 창작되었으며, 이 중 대표적 작품으로 <謝小娥傳>, <紅線傳>, <聶隱娘傳>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작품들의 주인공은 여성이다. 謝小娥는 아버지와 남편의 원수를 갚고, 紅線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무예를 연마하며, 聶隱娘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혼인의 자유를 추구하며 사회를 개혁하거나 不義한 개인을 정벌한다(강혜규, 「삼교 안석경의 산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23~28쪽).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 등장하는 몇몇의 여성들 역시 復讐나 殺人을 통해 의롭지 않은 개인을 정벌하고 목적을 이루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俠女는 바로 이러한 성향을 지닌 여성으로 규정한다.

決斷力과 남성 못지않은 勇氣에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작가의 입전 의식은 이들 작품의 論贊부분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① 군자는 말한다. 두 여인의 일은 ㉠ 烈行이며 孝行이고 ㉡ 또한 勇氣 있는 일로 비록 男子라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詩經』에 ‘저 집 아이 목숨을 버려도 바꾸지 않네!’²⁶⁰⁾라 했는데 이 두 여인을 일컬은 것이리라!²⁶¹⁾

② 季娘은 시집가지 않고 일찍 죽었다고 하는데 어느 해인지 알 수 없다. 戊申年에 鄭希亮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부인더러 桐溪 선생의 사당에 古曲하기 위해 祭需를 장만 하라고 했다. ㉢ 希亮의 부인은 거부하고 希亮을 꾸짖은 뒤 ㉣ 자살하였다. 그는 젊어서 영남에서 명성이 자자했는데, 喪妻하여 어진 後妻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 자살한 부인은 ㉤ 스스로 希亮을 찾아와 후처가 되었다고 한다. 羅斗冬은 湖南의 유명한 협객인데, 希亮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斗冬의 처가 그를 꾸짖기를 “㉥ 나는 당신이 奇士인 줄 알고 찾아와 아내가 되었는데, ㉦ 逆徒의 우두머리가 되는 꼴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 고 하면서 ㉧ 자살하였다. ㉨ 이 두 여인 중 하나가 朴季娘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 또한 烈이 아니겠는가.²⁶²⁾

위의 論贊을 살펴보면 모두 ㉠과 같이 烈과 孝이념을 실천한 여성으로 본점에서 이념 고취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현실 비판 의식이 반영된 論贊에서도 烈로서 찬미했음을 떠올린다면 그러한 의식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을 念頭에 두고 論贊을 살펴보면 前者의 論贊에서 흔히 보였던 전형적인 표현과 방식에서 벗어나며 後者의 論贊에서 節·烈이념을 다루며 거론하였던 守節 烈女와 從死 烈女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두 論贊과 위 論

260) 『詩經』 「鄭風」 <羔裘> “염소 깃옷은 윤기가 나니 정말 부드럽고 아름답네. 우리 님은 명을 받음에 변함이 없네(羔裘如濡。洵直且侯。彼其之子。舍命不渝。).” (이혜순·김경미 공저, 앞의 책, 156쪽, 註 24번 참조)

261) 君子謂。二女之事。烈而孝。且有勇焉。雖男子。不能及矣。詩云。彼其之子。舍命不渝。二女之謂歟。(『允塾堂遺稿』 <崔洪二女傳>)

262) 季娘未嫁而亦早卒。卒未知在何歲。歲戊申鄭希亮之作亂也。其妻苦諫之。希亮不聽。聚兵之日。自稱大將軍。使人促其妻設饌。將以祭告桐溪先生之墓。其妻不肯設。希亮大怒。盛其將服儀衛入。責其妻曰。告墓登壇。日將晚矣。祭饌何不及時。其妻曰。不聞有君命矣。大將誰所拜也。桐溪先生必不歆賊孫之祀。吾不忍見卿之所爲。遂自經而死。或曰。希亮少有盛名。嶺以南盡趨下風。其喪前妻求賢婦。自經之婦人。蓋亦自擇所歸而歸於希亮云。(…)羅斗冬湖南名俠。并希亮作亂。其妻大罵斗冬曰。君臣之義。何可犯也。始以君爲奇士。願執箕箒而事之。不意君作逆魁。吾不忍見之。遂自經而死。或曰。兩女士之自經者。其一乃朴季娘也。然廣問於可知者。皆不能明言。竊恐其非然也。(『書橋集』卷6 <朴季娘傳>; 류준경, 「朴季娘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5집, 韓國古典文學會, 2004년. 272~273쪽 論贊部 내용 요약 참조)

贊의 형태적 차이를 통해 입전의식 또한 다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論贊 ①을 살펴보면 여성 작가의 論贊으로 여성의 현실을 인식하고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을 입전하여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오히려 짧고 간단한 論贊을 덧붙이고 있을 뿐이다. 이념의 盲目的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는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여성의 시각으로 동정하고 비판하기 위해 여성을 입전하여 작가 의식을 표출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때문에 왜곡된 사회에서 희생되는 여성의 모습을 인식했다면 당연히 이념의 고취는 할 수 없으며 현실 비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아 보인다. 그러나 어디에도 비판의식은 보이지 않아 이 간단한 論贊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새로운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부분을 통해 그 端緒를 찾을 수 있으니 바로 勇氣와 男子라는 표현이다. 勇氣의 표상은 남성이며 順從이야말로 여성을 극찬하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 論贊에서는 일반 작가와 마찬가지로 烈과 孝로서 讚美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작가만의 의식을 담아 남성 못지않은 勇氣를 보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勇氣 있다고 한 행동은 殺人으로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생명까지 輕視되는 非人間的 면모이다. 이를 사회가 이념 고취의 명목아래 讚美했는지라도 당연히 指彈받아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작가는 이들의 행위를 용기 있다고 讚美하는데 사회와 같은 입장에서 찬미는 아니며 당시 順從과 受動的인 삶을 살아가던 여성상에서 벗어나 복수할 것을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결행하기까지 한 이들의 용기를 讚美했다고 할 수 있다.²⁶³⁾ 결국 이 전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인물로서 주목하여 용기 있는 여성으로 형상화하고 그들을 적극적인 삶의 소유자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263) 允摯堂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해 인식하기보다는 보편적 인간의 고귀성에 주된 관심과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인격 완성과 심성 수련의 차원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남자와 여자의 존재를 陰陽의 우주질서와 같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綱常과 義理 그리고 勇氣를 여성의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였다. 이를 보면 그녀가 추구했던 여성의 덕목이 단순히 예절과 품행을 닦는 데만 있지 않고, 학문과 문장의 재능을 발휘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允摯堂遺稿』, 원주시, 2001, 24~26쪽)

앞서 Ⅲ장의 같은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銀愛傳>의 銀愛 또한 이들 여성처럼 이념적 사고에서 비규범적 행동을 보인 인물이지만 입전의식은 同軌에 놓이지 않는다. 즉, 작가의 순수한 의도에서 입전한 인물이 아니라 임금의 이념 고취의 목적으로 作傳할 것을 명해서 이루어진 작품²⁶⁴⁾이기에 내용에서는 충분히 새로운 여성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음에도 論贊부분에서는 賢主에 대한 찬양²⁶⁵⁾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論贊 ②는 Ⅲ장 忠孝傳의 變貌와 女性에서 <孝子朴氏傳>을 언급하면서 함께 살펴본 작품이다. <孝子朴氏傳> 또한 <崔洪二女傳> 및 <銀愛傳>과 마찬가지로 내용에서는 충분히 새로운 여성인물로 형상화되었지만 論贊부분에서는 현실적인 대립·갈등을 無化시키고 孝이념을 顯彰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어²⁶⁶⁾ 이념 고취라는 입전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²⁶⁷⁾

264) 이종주는 임금의 명에 의하여 作傳하여 內閣日曆에 실렸던 작품으로 銀愛를 용서한 임금의 德을 드러내고 임금의 敎化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며, 이동근 또한 御命에 의하여 지어졌고 內閣의 日曆에 실리는 글이기에 殺害 사건의 교훈성보다는 밝은 임금의 敎化를 찬양하는 논지를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李鐘珠, 「北學派 散文 연구: 燕巖 朴趾源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1, 219~220쪽 ; 李東根, 「朝鮮後期 實存人物의 「私傳」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59~60쪽)

265) “지금 임금님의 聖德이 넓고도 너그러우셔서 중한 죄인을 審理하실 때는 생각하시기를 마치 몸에 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신다. 해가 늦어서야 수라를 드시고 밤이면 반드시 촛불을 여러 번 이어 켜면서 사정을 캐고, 의심난 곳이 있으면 조사하시어 義에 근본을 둔 것이면 바로 용서하신 것이 거의 2백 명이나 된다. 임금님의 말씀이 한 번 떨어지자 온 나라가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銀愛나 申汝倜 같은 사람은 모두 義理로 殺人을 하였으므로 살아날 수 있었던 자들이다. 아아, 만약 銀愛나 汝倜으로 하여금 밝으신 임금을 만나 다시 판결을 받게 하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문득 죽임을 당하게 했다면, (...) 그리하여 銀愛를 풀어주자 신하들은 忠을 권하였고, 汝倜을 풀어주자 자식된 자들은 孝에 힘쓰게 되었다. 이는 어찌서인가? 오로지 忠臣만이 그 몸을 깨끗이 하고, 효자만이 그 형제와 우애가 있으니, 忠孝가 일어나면 밝으신 임금의 敎化가 넓어지기 때문이다(今上聖德寬仁. 審理重囚. 念若痾癘. 日盪進御膳. 夜必燭屢跋. 究情而卽于疑. 考跡而原于義. 則輒宥之幾二百人. 德音一下. 國中大驩. 至有感激涕霑者. 如銀愛申汝倜. 皆能義殺而傳生者也. 嗟夫. 倘使銀愛申汝倜不遇明主. 爲之平反. 一朝居然就戮. (...) 故銀愛釋而人臣勸忠. 汝倜放而人子勉孝. 何哉. 惟忠臣潔其身. 惟孝子友其弟. 忠孝興而明主之化溥矣. 『靑莊館全書』 卷20 「雅亭遺稿」 12, <銀愛傳>.)”

266) 류준경, 「朴季娘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5집, 韓國古典文學會, 2004년. 254쪽

267) “두 朴氏의 獄事에서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함부로 묘를 파헤치고, 함부로 殺人한 일은 번갈아 가며 국헌을 능멸한 것이니, 모두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무릇 文娘의 뜻이 원수를 갚는데 있어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은 것을 슬피 여긴다. 凜凜하게 옛 烈士의 風道가 있었다. 두 아우 또한 서로 차례대로 그 일을 이어 뜻을 세움이 뚜렷하였다. 또한 무릇 세상이 義

이에 반해 이 작품은 동일 인물을 입전하였어도 구체적으로 인물을 형상화하였으며 論贊 또한 여성인물의 새로운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論贊 ①과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論贊 ②를 살펴보면 ㉠과 ㉡을 통해 남편에게 順從하기만 하는 여성이 아니라 是非를 분별할 줄 알고 남편을 꾸짖기까지 하는 勇氣 있는 여성임을, ㉢과 ㉣을 통해 夫死 이후 그를 위한 守節과 從死하던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主觀과 意志를 실현하기 위해 죽음으로서 이를 것을 다짐하고 결행한 여성임을, ㉤과 ㉥을 통해 父母나 他人에 의해 夫婦의 因緣을 맺고 受動的으로 받드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부부의 인연을 찾아 나서고 맺기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여성은 鄭希亮²⁶⁸과 羅斗冬²⁶⁹이라는 두 남자의 妻로 言行이 거의 일치하며 당시의 여성상과 달리 새롭게 自我를 인식하고 積極的 行동을 보였다. 이 두 여성 중 한명이 ㉦과 같이 朴孝娘일 수도 있다고 하여 새로운 여성으로 同軌에 놓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論贊을 통해 당시의 삶에서 순종과 인내를 美德으로 삼았던 여성상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여성상을 주목하고 입전하여 勇氣 있고 積極的인 인물로 형상화하였으며 家父長制 사회에 종속된 존재로서 여성의 면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여성 자체의 眞面貌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이념의 실천 여부를 떠나 主體的으로 자신의 삶을 찾은 새로운 여성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의

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是非의 구설로 빼앗음이 두려워 立傳하여서 후세의 君子에게 남긴다(二朴之獄。余不知孰爲直也。擅夷墓擅殺人。交相賊蔑國憲。皆可惡也。然余悲夫文娘志存報仇。殺身不顧。凜凜有古烈士風。二弟亦相次踵其事。立意傲然。又懼夫世無重義者。而恒奪於是非之口。爲立傳以遺後之君子。『雷淵集』卷27 <孝子朴氏傳>.)”

268) 鄭希亮은 1728년 李麟佐·朴弼顯등과 공모하고, 영조 즉위 후 벼슬에서 밀려난 소론의 호응을 얻어 密豐君 珉을 추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청주를 습격하고 한 때 여러 고을을 제압하였으나, 관군에 패배하여 참수되었다.(강혜규, 앞의 논문, 36쪽)

269) 羅斗冬은 호남의 이름난 협객으로 景宗 때 寢郎으로 任命되었으나 은거했다. 정희량의 亂에 동조하여 참수되었다.(강혜규, 앞의 논문, 36쪽)

미를 부여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能力있고 主體的인 義女像

조선후기 사회는 黨爭으로 인해 官職의 占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권력에서 소외된 貧困 양반층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빈곤한 사대부 남성의 입장에서 집안 살림을 맡고 있는 여성의 治産 능력은 가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家門을 일으키는 일로서 요구되었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政治·經濟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의 生業경영(女工)과 재산관리 능력(治産)이 강조되었으며²⁷⁰⁾ 이는 權槩의 『內政篇』²⁷¹⁾과 李德懋의 『士小節』²⁷²⁾에서도 보인다. 사회가 이러한 여성을 能婦²⁷³⁾, 즉 능력 있는 부인으로 부르기도 하여 기능적 여성상을 추구하며 중시한 이유는 여성에게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사회

270) 김연순, 앞의 논문, 44~51쪽

271) ‘사람의 집이 일어나고 패하기는 거의 家産 成敗에 있고, 家産 成敗는 거의 婦人에게 있으니, 世業을 보전치 못하여 飢寒困窮하여 死亡에 이르는 자가 달리 그런 이도 있거니와 대강 부인의 治産 잘 못하기로 이뤄짐이 많고, 赤手로 起家하여 양반의 물골을 잃지 아니하는 자는 달리 그런 이도 있거니와 대강 부인의 治産 잘하기로 이룬 이가 많으니, 이런 고로 옛사람이 이르되 집이 가난하매 어진 아내를 생각한다 하니, 어찌 조심치 아니하리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권구는 家産을 늘리고 줄이는 治産을 부인의 역할로 규정하고 治産을 잘하는 아내를 어진 아내라고 규정하였다.(權槩의 『內政篇』 「治産」; 김연순, 앞의 논문, 47쪽)

272) ‘선비의 아내가 생활이 곤궁하면 생업을 약간 경영하는 것도 不可한 일이 아니다. 길쌈하고 누에치는 일이 원래 부인의 본업이거니와, 닭과 오리를 치는 일이며, 장·초·술·기름 등을 판매하는 일이며, 대추·밤·감·귤·석류 등을 잘 저장했다가 적기에 내다 파는 일이며, 홍화·자초·단목·황벽·검금·남정 등을 사서 쌓아두는 일은 부업으로 무방하다. 그리고 도홍색·분홍색·송화황색·유록색·초록색·하늘색·작두자색·은색·옥색 등 모든 염색법을 알아 두는 것도 생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女工의 일단인 것이다. 그러나 利慾에 빠져 너무 각박하게 하여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을 한다면, 어찌 賢淑한 행실이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덕무는 治産에서 더 나아가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생활의 곤궁을 면하기 위해 女工 외에 가축을 기르거나, 과일을 잘 저장했다가 적기에 내다 팔고, 염색을 하는 등 부인이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무방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李德懋는 『士小節』 「婦儀」 <事物>; 김연순, 앞의 논문, 48~50쪽)

273) 能婦는 고려말기 新興士大夫들을 일컬었던 能文能吏에서 따온 개념이다. 能婦로서의 여성상은 그동안 조선 여성 연구에서 간과되거나 강한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쳤으며, 孝婦, 烈女 혹은 賢婦와 慈母처럼 독립된 명칭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能婦는 규범적인 개념의 그물로는 쉽게 걸리지 않는 현실 속의 기능적 여성상으로서 조선 여성의 실제적 삶을 드러내주는 개념이다.(김연순, 앞의 논문, 50쪽, 註 43번 참조.)

기반을 확고히 하여 가정 질서는 물론 사회 질서까지 유지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즉, 당시 家父長制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성의 현실을 수용하고 이상적인 여성상인 順從의 미덕을 보여주면서도 기능적인 여성상인 能力의 탁월함까지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들의 신분은 대부분 士大夫의 妻이며 이들의 능력은 자신의 가정에서 발휘될 뿐으로 다분히 義務的인 모습²⁷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能力을 소유하고 현실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주체적으로 능력 발휘의 결과를 활용할 수는 없는가. 이는 전형적인 士大夫家의 상층 여성이라면 결코 이를 수 없지만 規範과 現實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微賤한 身分의 여성, 나아가 의무와 역할에 구애받지 않는 未婚의 여성이라면 충분히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입전 작품을 Ⅲ장 脫理念의 非凡한 行爲에서 살펴보았는데, 論贊을 통해 입전의식은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① 자네는 耽羅에서 성장하여 漢拏山에 올라 白鹿潭 물을 마시고, 이번에 또 金剛山을 두루 답사하였으니, ㉠ 三神山 가운데 두 곳을 직접 유람한 셈이네. ㉡ 천하의 수많은 男子조차도 이렇게 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작별하는 마당에 어찌서 ㉢ 마음 약한 兒女子와 같은 태도를 하는가.²⁷⁵⁾

② 오직 이 할미는 기부하게 하여 좋은 인연을 맺게 해 준다는 자들에게 속아 미혹되지 않고 마을 창고의 재물을 사사롭게 쓰지 않았다. ㉠ 창고를 열어 나누어 사용할 곳에 능히 힘써서 사용할 수 있었다. ㉡ 이는 큰 男兒라도 쉽지 않은 것이다. (...) ㉢ 아! 세상의 재물에 인색하고 의리를 잊은 자들을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돈 냄새를 싫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한 杜淸 할미를 모범으로 삼을 것이다.²⁷⁶⁾

274) 여성의 능력 발휘는 가정에서만 발휘되며 이를 통해 가정의 안정과 질서가 확립되면,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친다. 즉 사회의 기반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다져지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는 당연히 굳건해짐을 말한다. 그리고 당시 여성이 한 가정을 이루면 出嫁外人이 된다는 고정화된 관념 때문에 媼家를 위한 헌신적 삶이 당연시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기능적 여성상에 부응할지라도 다분히 의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75) 若生長耽羅登漢拏。斟白鹿潭水。今又踏遍金剛。三神之中。其二皆爲若所包攬。天下之億兆男子。有能是者否。今臨別。乃反有兒女子刺刺態何也。(『樊巖先生集』卷55 <萬德傳>)

276) 獨此媼不爲募緣者。誑惑不以。府庫財爲私。脫然灑然。用於用處能辦。得此大男兒所不易者。(…)噫世之吝財忘義。只令人嫌於銅臭者。尙亦以杜淸媼爲鑑。(『東塾集』<杜淸媼傳>)

위의 論贊을 살펴보기 전에 작품의 내용을 想起하며 ①, ②의 두 여성에게서 공통점을 찾아보자. 이에 뚜렷하게 드러난 모습을 통해 우선 微賤 身分을, 다음으로 治産 能力의 發揮를, 마지막으로 能力의 結果인 財産의 活用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러한 財産을 公的으로 有益하게 活用했음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①의 여성은 자신의 意志에 의해 結婚하지 않은 여성이었으며 ②의 여성은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죽음에 임해 그 많은 재산을 子孫이나 親族에게 遺産으로 물려주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데서 平生을 未婚 여성으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⁷⁷⁾ 이에 未婚이라는 사실 또한 공통점이다. 이렇게 찾은 공통점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다면 바로 能力의 소유자로서 주체적으로 義行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미천하고 미혼이라는 사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제약 요소에 부딪치지 않고도 자율적 의사표현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論贊 ①부터 살펴보면 ㉠을 통해 平凡한 여성상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다. 당시 士大夫家 여성의 영역이 가정이라는 閨房에 국한되었다면 미천한 여성의 영역은 가정을 포함해서 마을이라는 그 周邊까지 확대될 뿐이다. 신분의 高下와 無關하게 가정과 그 주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家父長制 사회가 빚어낸 여성의 현실이다.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 구속된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자유에의 희망과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여성들. 이 또한 家父長制 사회가 빚어낸 고정화된 관념적 사고의 所産이다. 이러한 여성 현실 속에서 관념적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여성상이었다. 그런데 이 여성은 耽羅라는 섬에 살면서 ‘육지로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國法까지 깨뜨리고 여성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이를 통해 분명 非凡한 여성상이자 自律的인 사고를 하는 여성임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새로운 여성상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현실에 가해지는 제약요소와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여성의

277) 미천한 신분의 여성이기 때문에 守節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결혼한 후 남편을 잃고 守節한 여성으로 보기 어려우며, 평생을 治産業에 힘쓰느라 결혼 시기를 놓치고 홀로 쓸쓸히 살았던 여성으로 보인다.

영역에 대한 제한선을 無化시킬 수 있었다. 여성 스스로가 能力·努力·活力을 다한 삶이 ㉠과 같이 소원 성취의 기회까지 안겨다 준 것이다.

그러나 소원 성취는 附隨的인 것으로 이 여성의 眞面貌는 ㉡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도 ㉠과 같은 기회를 잡기 어려운데 이 여성은 기회를 잡고 성취할 수 있었으며 이에 이르기까지 全般을 스스로 일구어냈다. 풍요로운 자신의 여건²⁷⁸⁾에서 어려운 당시의 현실²⁷⁹⁾을 看過하지 않고 義行을 베풀었기에 이 여성의 행위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남성도 이루기 어려운 기회의 성취자가 된 여성, 그의 내면에는 治産 능력과 貧民에 대한 憐憫 그리고 男子 못지않은 排布가 있었기에 義行을 베풀 수 있었으며 절로 소원성취의 기회까지 찾아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작가의 입전의 식과 바로 연결되며 ㉢과 같이 말함으로서 지금까지 보인 모습들과 對峙되기에 어울리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의 면모로 되돌아가 維持·保存할 것을 촉구한다. 결국 治産의 탁월함, 남성 못지않은 非凡함, 義行의 훌륭함까지 보인 여성으로 형상화하여 주체적 삶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²⁸⁰⁾

다음 論贊 ㉡를 살펴보면 ㉠을 통해 이 여성의 주체적 판단과 결단력을 엿볼 수 있다. 누구의 強要나 壓迫, 아니면 勸誘나 提案 없이도 삶의 주체로

278) 당시 상층의 忠·孝·烈이념이 하층에까지 전해졌듯이, 治産 능력 또한 하층의 여성이라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었다. 이 능력이 상층의 여성에게는 婦德의 하나로 家産의 관리에 국한되었다면, 하층의 여성에게는 才能 그 자체로 經濟적 商業 활동까지 확대되었기에 진정한 富의 축적이 가능했다.

279) 제주도는 단순히 正祖19년(1795년)에만 凶年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1792년부터 심각할 정도의 흉년을 겪고 있었다. 1793년 8월에는 큰 태풍이 있어 제주도 전역은 심각한 재해를 입었으며, 관리들은 친족들에게까지 세금을 징수하여 받는 徵族을 심히 하여 백성들은 二重苦를 당해야 했다. 이에 제주 도민 중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高漢祿, 洪三弼, 梁聖範 등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곡식이나 돈을 내어 도민을 구휼했다.(金竣亨, 「<萬德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제17집, 제주학회, 2000, 4~7쪽) 萬德 역시 이들과처럼 私財를 털어 제주 도민을 구휼했던 인물들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미천한 기생 출신의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80) 萬德은 많은 文人의 관심을 끌어 傳을 비롯하여 漢詩, 辨, 題, 筆記 등 다양한 敍事로 포착되었다. 李家煥(1742~1801), 洪義俊(1761~1841), 丁若鏞(1762~1836), 沈魯崇(1762~1837), 趙秀三(1762~1849), 李義發(1768~1849), 金熙洛(純祖年間), 黃裳(1788~?), 劉在建(1793~1880), 李載采(1806~1833) 등이 만덕의 아름다운 삶을 추송하였다.(진재교, 앞의 책, 222쪽)

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실행에 옮긴다. 이 당시의 여성들은 관념적으로 사고하였기 때문에 이념과 가정을 배제한 판단이란 全無하였다. 또한 이 여성들의 판단은 家父長制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추는 것에 不過했기 때문에 진정한 판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受動的이고 非主體的인 여성상이었으며 이들이 바로 당시의 보편적이고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이를 통해 論贊 ②의 여성이 ①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平凡을 떠난 非凡한 여성이었음을 알게 된다. 평범한 여성들과 같은 공간에서 그들처럼 살아가고 사고하기를 요구할지라도 同化될 수 없는 여성들. 外面의 차이는 없지만 內面은 남다른 여성들로 내면이 발로되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간 것이다. 순종과 인내를 보인 靜的인 여성상에서는 당시의 현실과 他人의 시선을 의식하여 아무리 남다른 내면을 가졌더라도 당당히 표출하기 어렵다. 이로써 주체적 사고와 판단을 보인 動的인 여성상이자 남다른 내면을 당당히 표출하기까지 하는 排布를 가진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남다른 내면이란 주체적인 삶의 방식과 자율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能力과 排布를 소유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내면에서 표출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平凡한 여성들과 확연히 구분되어 非凡하게 보이며 작가는 ㉠과 같이 男兒 못지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앞서처럼 이 여성의 眞面貌를 ㉠의 표현을 통해 드러내었다. 미천한 신분예다가 여성이기까지 하여 二重의 굴레를 씌우는 당시의 현실 속에서 平凡한 여성이라면 비관적으로 자신과 현실을 바라보며 受動的인 삶으로서 生을 마감할 수 있다. 또한 平凡과 非凡의 중간적 여성이라면 盲目的으로 이념의 추종자가 되어 적극적인 삶에서 보람을 찾다가 終身할 수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시의 현실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굴레를 안고 살아간 것이다. 그러나 非凡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성은 그들을 거부하면서 굴레를 벗어던진다. 즉 미천한 신분이기에 賤視되는 그러한 현실을 의식하기보다 평생을 治産에 힘쓰는 것으로 他人의 시선에서 벗

어난다. 또한 여성이기에 家父長에게 삶을 종속시키고 강요하던 이념을 떠나가서 미혼 여성이자 독립된 개인으로 治産하여 일구어낸 결실을 주체적인 판단 하에 사회에 還元한다. 家父長制 사회에서 家父長인 남성의 모습과 흡사해 보이는 이 여성의 삶은 결국 자신이 개척해 낸 것이다.

여기서 작가의 입전의식을 알 수 있으니 많은 제약 사항들을 등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했으며 마지막까지 의로움을 보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더 나아가 ㉔과 같이 世俗에 물들기만 할 뿐 克己를 모르고 義氣조차 없는 사람들을 꾸짖는다. 杜今이라는 여성을 통해 목소리를 낮추어 간접적으로 꾸짖음은 이들에 대한 비판보다 杜今이라는 새로운 여성 인물에의 의미 부여가 입전의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非凡한 여성으로서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게 모범이 될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世俗에 물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것으로 讚美하며 끝을 맺는 것이 주목된다. 당시 현실에서 杜今과 같은 여성상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類似像이 나올 확률은 극히 낮아 보인다. 관념적 사고로 살아가는 대다수 여성들의 전반적인 의식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며 만약 여성들의 의식이 개혁되고 類似像이 등장한다면 사회적으로 일으킬 波長은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한 작가였기에 단지 非凡한 여성상에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약간의 世教的 효과까지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論贊을 통해 사회가 理想的으로 여긴 여성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성인물에 주목하고 입전하여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념적 사고에서 나온 행동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목된 여성에게는 용기와 적극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념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입전되지 못했던 여성을 주목하고 능력과 주체성에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았다. 이렇듯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보았지만 모두 家父長制 사회에서 종속된 존재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삶의 주체가 家父長이 아닌 자신임을 보여준 점에서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V. 朝鮮後期 女性人物傳의 文學史的 意義

1. 女性人物傳의 傳史的 意義

烈女傳은 女性人物傳의 母胎가 된다. 역사 속에서 浮上하는 新興사대부의 형상을 그리는데 寄着했던 高麗後기 人物傳과 지배층이 된 사대부를 주로 入典시킨 朝鮮前期 人物傳 사이에서 唯一하게 女性으로서 入典되어 작품화될 수 있었던 烈女傳은 창작 순간부터 女性人物傳을 孕胎하고 있었던 것이다. 烈女傳이 시대에 따라 持續과 變貌를 거쳐 오는 동안 전통적 視角에 의해 여성을 바라보고 이념의 잣대로 여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도 變化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그동안 烈女의 背後에 가려져 浮刻될 수 없었던 少數이면서 다양한 여성인물들이 작가의 批判的·人間的 시각에 의해 捕捉되기에 이른다. 때마침 朝鮮後기라는 激變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작가에 의해 烈女 以外の 새롭고 다양한 여성인물 유형이 포착되어 비로소 入典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烈女傳이 孕胎하고 있었던 女性人物傳은 朝鮮後기에 이르러서야 產生된 시대와 작가의 所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朝鮮後기 女性人物傳은 從前까지 이념적 시각권 밖에 있던 다양한 여성인물 유형을 끌어들여 公認한 意義가 인정된다. 이는 이념의 테두리 내에 있었던 高麗後기·朝鮮前期 人物傳의 限界를 벗어나 朝鮮後기 人物傳과 그 영역을 함께 하면서 人間 자체로서의 여성인물에까지 확장시켰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朝鮮後기 女性人物傳이 현실에 대한 總體的 認識의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看過되거나 放置되어 왔던 部面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① 朝鮮後기 女性人物傳의 入典인물은 家父長制가 빚어내고 있던 女性 現實,281) 階層的 制約,282) 悲劇性283)에서 남다른 면모로서 對處하고 克復하

281) 여성의 현실이란 신분의 高下와 무관하게 한정된 공간에서 不合理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朝鮮後기 대다수의 여성들은 가정과 그 주변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회는 그러한 공간에서 이념적 사고와 性別化된 역할의 수행을 요구하였다.

며 主體性까지 선보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 즉 지배층이 규정하고 요구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에서 벗어나거나 主體化한 삶을 추구한 여성인물들의 傳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烈女傳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獨特하고 非凡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人物傳에 구체적으로 命名할 수 있었던 神仙·藝人·遊俠과 같은 인간유형이 입전된 사실과 同軌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特異함은 前代의 人物傳이나 同時代의 다른 傳²⁸⁴⁾들과 비교할 때 신선한 전환으로서의 新鮮味와 현실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現實味까지 갖는다. 이렇게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 입전된 인간유형은 대다수가 微賤한 자로서 여성의 현실 속의 구속과 제약을 인정하고 자신의 현실 속으로 수용·변용하면서 주체적 삶을 추구한 여성들이었다.

다만 여전히 조선후기 여성의 현실에서 이념은 지배적 관념이자 행동 방식의 기준이었고 더욱이 여성의 입전은 烈이념의 고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여성들이 보여준 사고와 행동은 이를 어느 정도의식하면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表出되었다. 이러한 이념과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난 여성인물 유형의 등장은 이후의 시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만 했다. 그렇더라도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입전여성들이 추구한 삶

282) 계층적 제약이란 상·하층 여성이 당시를 살아가는 데 무엇이 제약요소가 되는가를 말한다. 상층 여성은 理念에 의해, 하층 여성은 身分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즉, 상층 여성은 이념적 사고에 따른 - 특히 烈이념 - 이념의 실현이 개인에게 절대적인 굴레로서 작용하였다. 烈女傳의 많은 여성들이 從死로 치달았던 것을 통해, 烈이념의 실현이 개인적 차원에서 죽음으로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家門과 社會의 공인을 받고 旌闈를 받은 뒤에라야 구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하층 여성은 이념보다는 身分이 미천하다는 것이 살아가는 데 제약요소였지만, 상층처럼 개인에게 절대적인 굴레로서 작용한다기보다는 他人의 賤視와 薄待에 따른 自尊心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283) 비극성이란 家父長制 사회가 빚어내고 있던 여성의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 둘은 조선후기를 살아가던 여성만의 것으로서 여성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비극성은 물론, 他者の 시각에 의해 객관적으로 볼 때도 느껴지는 비극성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烈女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비극의 표상이었으며, 烈女の 背後에 가려져 의도적인 外面을 받았던 많은 여성인물 유형들도 傳문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작품화되지 못하고 湮滅되었다는 사실에서 비극이라면 비극일 수 있을 것이다.

284) 예컨대, 人物傳 외의 史傳·假傳·托傳 등을 들 수 있다.

이란 평범한 여성상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家父長制 사회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의 認識與否와 상관없이 삶의 자세와 특정 공간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은 적극적·주체적 삶을 여성의 현실 속에서 추구한 여성인물의 傳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비단 이러한 여성인물들이 이 시기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나 유독 이 시기에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女性人物傳의 역사적 기반이 조선후기 문학의 역사적 기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야 새롭고 다양한 여성인물 유형이 女性人物傳이라는 독자적인 人物傳에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작가의 식에 의해 의미부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女性人物傳 작가 가운데에는 비판의식을 갖고 여성인물의 사회적 현실을 주시하기도 했고, 여성인물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여성인물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文士나 學者들의 個人文集 속에 女性人物傳이 한두 편 실려 있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점에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작가들은 그들 자신이 당시의 이념체계를 준수하던 인물인가의 與否와는 無關하게 새롭고 다양한 여성인물 유형에 대해 관심을 보임으로써 중세 해체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性理學의 해체에 있어서 先頭 走者가 되었다. 이 女性人物傳의 작가들은 입전된 여성인물을 대부분 긍정하는 방향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념에 따른 삶이 절대적인 삶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女性人物傳의 여성들은 삶의 기준이 이념이 아니라 여성 자신 이었고 삶의 주체로서 나아가도 개인과 사회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물론 조선후기적 여성인물을 문학적으로 수용했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크게 轉向的이거나 近代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치이념으로

서의 성리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挑戰하고 轉向시켜 새로운 이념을 建設하여 近代를 성립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성리학이 현실대응 능력을 상실하고 이념으로서 이데올로기화의 길을 걸으면서 여성을 제약하고 역사를 지체시키는 機制로 변해간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고 각성을 불러일으켰다는 의의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 이후의 전향적·근대적 성격의 문학운동과 사회운동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은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문학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조선후기 문학의 주요 徵候들까지 잘 드러낼 수 있었으며²⁸⁵⁾ 이 시기 여성에 대한 작가의 關心과 共感 덕분에 형성되고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③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은 傳 → 人物傳 → 女性人物傳으로 파생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授受的 영향은 물론 各個의 傳·人物傳의 특징과 獨自의인 女性人物傳만의 특성까지 아우르고 있다. 흔히 傳에서는 입전인물의 行蹟을 드러낼 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實事 안에서 그려내는 것이 일반적인 서술 태도이나 조선후기 人物傳에 이르러 입전인물의 삶의 眞面目을 生動하게 보여주기 위해 사실을 다소 潤色하기도 하고 虛構를 삽입하기도 하여 새로운 作法을 보여주었다.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서도 이와 같은 새로운 작법이 도입되어 對話를 창조하기도 하고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장면을 再現하기도 하며 인물의 獨白을 삽입하기도 하였다.²⁸⁶⁾ 이는 傳의 公信用을 실추시키고 敍事의 現實性에 손상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 후기·조선전기 人物傳의 常套的 사실의 羅列,²⁸⁷⁾ 無味乾燥하고 平面的인 사

285) 예컨대, 지배층의 인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美德과 異才가 하층민에게 있다는 인식태도를 들 수 있다. 조선후기 사회는 내부 矛盾의 심화와 관련된 諸 현상들, 이를 테면 농민층의 급격한 분해 및 농민의 流民化, 黨爭이나 政變에 따른 廢族의 속출, 광범한 沒落 양반의 형성, 사회적 세력으로 성장하기에 이른 庶孽·中人層의 신분적 제약에 대한 불만, 一切의 현실적 구속이 없는 삶을 동경한 市井人의 擡頭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인간부류가 前代에 비해 보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조선후기 문학에 반영되었다.

286) III장 女性人物傳의 작품세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후기에 산출된 대다수의 烈女傳과 香娘傳·忠孝傳을 비롯한 <崔洪二女傳>·<銀愛傳>·<萬德傳>·<杜今嫗傳>에서 이러한 점들을 볼 수 있었다.

실의 無感動的 서술²⁸⁷⁾ 등으로 인해 기존 人物傳이 惰性에 젖어가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²⁸⁹⁾할 만하다. 이것은 또한 사실보다 興味를 추구하는 性向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본래 傳의 창작 목적이 道德的·敎訓的 의미를 전달하려는 데 있다고 할 때 이에서 벗어나는 흥미 추구의 성향은 입전인물의 獨特한 삶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결과이다. 입전 인물의 獨特한 삶과 행적에 주목하다 보면 그 인물 자체의 個性과 特徵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 이로써 도덕적·교훈적으로 의미 있는 삶보다 인간으로서의 삶 자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인물의 內面 모습과 心理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새로운 작법과 성향에 의해 창작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嚴肅하고 莊重하던 文體 또한 輕快하고 潑刺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感覺的이고 諷刺的인 문체까지 수용하여 입전인물의 개성과 특징뿐만 아니라 작가의 문학적 개성까지도 잘 보여준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적·문학적 諸般 조건의 변화로 성립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은 이념적 시각권에서 사실의 객관적 서술이라는 원칙 위에 구축되어 온 前代의 이론적 틀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각가지 색채를 얼마든지 가미하여 創出된 새롭고 자유로운 문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傳史的 意義를 갖는 조선후기 女性人物傳과 類似한 視線으로 朝鮮後期的 面貌를 보이는 여성인물을 형상화한 餘他의 漢文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조선후기적 여성인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餘他 漢文學에서의 女性人物傳이 어떠한 位相을 갖는지 考究할 수 있을 것

287) 壬丙兩亂期인 16세기 말~17세기에 量産된 忠孝傳과 烈女傳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朴熙秉, 앞의 책, 275쪽, 註 170 참조.)

288) 사대부, 특히 仕宦한 사대부의 人物傳에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朴熙秉, 앞의 책, 275쪽, 註 171 참조.)

289) 당시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종류의 人物傳에 新鮮感과 魅力을 느꼈음은 『農巖集』 卷 21의 <送系舅羅公頌佐之安東卜地太白山序> 중 近者. 權試作安汝式傳. 行於世. 余得而讀之. 其事頗奇. 에서도 확인된다.(朴熙秉, 앞의 책, 275쪽, 註 172 참조.)

이다.

2. 女性 漢文學²⁹⁰⁾에서의 位相

조선후기라는 역사적 기반 위에서 다양한 人間像이 창출되었던 만큼 이들에 대한 文學的 形象化는 다양한 樣式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들어서 出現한 판소리, 辭說時調, 小說 등이 庶民層 중심의 文學이었다면 前代부터의 傳統을 이어오면서 거듭났던 傳, 漢詩 등은 兩班層 중심의 漢文學이며 이들의 部分的 성격을 갖는 漢文短篇이 있다.²⁹¹⁾ 이 시기의 서민문학이 民衆 자신들의 健康하고도 生動感 있는 情緒를 담아 표출했다면, 한문학은 이 민중들을 기존의 이념적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문학적으로 수용하여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선후기 各樣各色의 인간상과 다양한 문학양식 가운데에서도 여성인물을 주목한 한문학인 漢詩와 漢文短篇을 살펴본다.²⁹²⁾

① 漢詩 가운데서도 敘事漢詩에는 사대부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인간이해가 잘 드러난다.²⁹³⁾ 敘事漢詩에서 여성이 조선전기와 그 이전에는 微微하거나 주변적인 소재에 不過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眞摯하고도 중요한

290) 조선후기 女性人物傳과 類似한 視線으로 朝鮮後期的 面貌를 보이는 여성인물을 형상화한 漢文學을 ‘女性 漢文學’으로 지칭하였다.

291) 조선후기 문학창작은 兩班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래 傳과 漢詩의 창작은 양반층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양반문학이자 귀족문학이라고 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서 다양한 계층에서 傳과 漢詩를 창작했지만 여전히 양반층에서 多數의 창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看過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漢文으로 표기된 문학으로 漢文學이라 부를 수 있는 傳, 漢詩, 漢文短篇 가운데, 傳과 漢詩는 前代의 전통을 이어 조선후기에도 産出된 문학으로 보았으며, 漢文短篇은 한문학 양식이면서 새로운 역사적 기반 위에서 창출된 민중적 성격을 내포하는 문학으로 보았다.

292) 한문학 가운데 傳을 제외한 이유는 傳으로서 여성을 주목한 人物傳을 女性人物傳이라 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傳을 제외하고 조선후기적 면모를 보이는 여성인물을 주목하고 작품화한 한문학 양식인 漢詩와 漢文短篇을 점검해 봄으로써, 이들 가운데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이 어떠한 위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93) 敘事漢詩란 漢詩 중에서도 객관적 사건이나 인물이 주요 제재가 됨으로써 서사적 요소가 두드러진 것을 지칭한다.(박혜숙, 앞의 논문, 31쪽)

소재가 되었다. 이에 여성인물과 不可分의 관계에 놓였던 이념과 현실을 관념적 사고와 이념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위치에서 진지하게 조망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을 소재로 하여 다룬 것은 여전히 여성의 이념으로서 중시된 烈과 節이었지만 단순히 이념고취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前代에서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後代에 이르러서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이념을 再考하기 시작했다고 할 것이다.

女性人物傳을 통해 평민여성을 대표했던 香娘과 妓女였던 斗蓮, 萬德이라는 여성인물 형상을 살펴보았는데, 敘事漢詩에서는 이러한 평민여성과 기생,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던 여성현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형상화하였는지 간단히 점검해 본다.

향랑을 소재로 한 敘事漢詩²⁹⁴⁾ 중에서 崔成大의 <山有花女歌>²⁹⁵⁾는 情을 중시하여 세계로부터 소외된 여성인물을 통해 悲劇의 美學을 창조하는데 치중하였다. 18세기 漢詩史에서 崔成大를 비롯하여 李安中(1752~1791), 李鈺(1760~1812), 金鑣(1766~1821), 李友信(?~1822) 등은 理나 性보다는 情을 중시하여 論理的·理想的인 방식보다는 感性的·詩的인 방식으로 여성적 소재에 주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前代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教化나 教育에 의해 理念化되고 性別化 되어가던 여성에 대한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感情을 중시했다는 데서 의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脈絡에서 妓生을 바라보고 詩化한 敘事漢詩가 있다. 우선 기생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주목하고 창작한 敘事漢詩로 金鑣의 『思臆樂府』²⁹⁶⁾

294) 註 112번 참조

295) <山有花女歌>는 110행으로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경과에 대한 묘사나 서술이 간략하고 직접적 논평은 매우 적다. 최성대는 매우 감성적인 태도로 향랑의 죽음을 수용하여, 버림받은 여성의 비극이라는 관점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최성대의 시세계의 특질은 여성적 情恨을 詩化한 점에서 독보적인데, <山有花女歌>도 이러한 특질과 부합하는 작품으로서 소외된 주체의 상실감, 隔絶感을 여성적 정조로 표현하고 있다.(박혜숙, 앞의 논문, 36~39쪽)

가 있다. 대체적으로 남성 文人들이 기생을 한갓 노리개쯤으로 여기고 그들의 존재나 운명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기생들을 不幸 運命 속에 괴로워하는 동등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며 동정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기생의 사랑과 절개에 주목하고 창작한 敍事漢詩로 金萬重(1637~1692)의 <端川節婦詩>²⁹⁷⁾와 成海應(1760~1839)의 <田不關行>²⁹⁸⁾이 있다. <端川節婦詩>에서는 靑樓의 깨끗한 여성, 세상에서 드문 節概라는 관점에서 형상화하고 있어 미천한 신분인 여성에게 의미부여를 하는 작가의 진전된 인간이해를 엿볼 수 있다. 반면에 <田不關行>은 관리의 腐敗와 官妓制度의 矛盾에 초점을 맞추어 형상화하고 있어 한 여성의 不幸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생이라는 인물 자체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敍事漢詩²⁹⁹⁾로 李家煥(1742~1801)의 <送萬德還耽羅>³⁰⁰⁾가 있다. 만덕의 넉넉한 품성 자체를 특징적으로 부각시켜 포착하며 건강한 민중 여성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그동안 만덕의 救恤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敎化論的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敍事漢詩에서는 여성이란 소재를 이념의 실천자인 여성이기 이전에 보편적 감정을 느끼는 인간으로 이해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

296) <思廳樂府>에서 妓生 蓮姬를 중심으로 과거의 귀양지 부령에서의 일들을 추억하고 있다. 金鑪는 蓮姬를 상당히 존중하고 사랑했으며, 이별시 상당히 괴로웠음을 詩 속에 생생히 그려냈다. 또한 <哀李酒姬>10수에서 한 평생 동안 수많은 남성을 상대하다 지금은 늙어 불품없어진 老妓의 모습과 쓸쓸한 회상을 묘사하기도 하였다.(南恩燾, 앞의 논문, 54~55쪽)

297) <端川節婦詩>의 주인공은 17세기 중반에 살았던 함경도 端川의 기생 일선으로, 그녀가 사랑하던 남자가 떠나간 후 자살을 기도하면서까지 守廳을 거부하였다. 나중에 남자의 死亡 소식을 접하고 서울까지 奔喪하였는데, 처음에는 본집에서 일선을 薄待했지만 나중에는 그 정성에 감동하였다는 내용이다.(박혜숙, 앞의 논문, 42~44쪽)

298) <田不關行>의 주인공 田不關은 평안도 만포의 기생으로 아버지는 관리였고 어머니는 기생이었던 바, 열여섯에 기적에 올랐다. 구씨라는 양반이 不關을 사랑하여 장차 贖良해 데려 가겠다 약속해 놓고는 終無소식이었다. 새로 온 사또가 不關에게 守廳 들기를 강요하며 매를 치기에 이르지만 不關은 이를 거부하고 마침내 자살하였다는 내용이다.(박혜숙, 앞의 논문, 44~46쪽)

299) 註 280번 참조.

300) 진재교,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2001, 291~292쪽.

제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녀들이 살아가고 있던 현실에 주목하여 출현한 敘事漢詩로는 李鈺(1760~1812)의 『俚諺』 중에 <悱調>³⁰¹⁾와 丁若鏞(1762~1836)의 <采蒿>³⁰²⁾, <孤兒行>³⁰³⁾, <道康瞽家婦詞>³⁰⁴⁾, 그리고 金鑣(1766~1821)의 <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³⁰⁵⁾이 있다. 李鈺의 작품에서는 당대 못 남성들이 기생, 창녀, 남사당패 등에 빠져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음을 목도하고 그러한 남편과의 不和로 인해 고통 받고 虐待 당하던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여성의 무력함과 불행한 삶의 현실을 엿 볼 수 있다. 丁若鏞의 작품에서는 당대의 庶民여성을 가장 極大化된 사회모순의 희생양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여성억압의 문제를 잘 드러냈다. 金鑣의 작품에서는 白丁 딸의 內·外面을 애정 어린 필치로 형상화하고 하층 여성의 인간적 가치를 적극 평가하고 있어 여성에게 가해지는 身分制의 억압을 표출하였다. 이로 보아 이들의 작품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家父長制의 억압을 偏見이나 先入見 없이 심도 있게 형상화하고 인간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을 이해한 점이 돋보인다 하겠다.

② 그렇다면 漢文短篇에서는 어떠한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성이라는 소재가 敘事漢詩에서 眞摯하고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듯이 漢文短篇에서도 이러

301) <悱調>에서 아내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남자의 신분을 가난한 집 奴婢·吏胥·軍士·譯官·장사꾼 순으로 나열하며, 그들의 아내가 되지 말라고 하던 詩의 여성화자는 최종적으로 蕩子의 아내 됄이 가장 불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어 매일 술 마시고 虐待하는 蕩子 남편의 모습을 여성화자의 입을 빌어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南恩暎, 앞의 논문, 55~58쪽)

302) <采蒿>는 당대 사회구조 속에서 가장 無力하게 貧窮의 那落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굶주린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南恩暎, 앞의 논문, 51쪽)

303) <孤兒行>에서는 남편 없이 떠돌다 결국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南恩暎, 앞의 논문, 51쪽)

304) <道康瞽家婦詞>는 家父長制 사회에서 딸로 태어났다는 사실로 인해 絶望의 那落으로 빠진 여성을 형상화한 360행의 비극적인 장편서사시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가난한 집의 딸로서 늙은 소경의 後娶로 시집을 갔다. 남편과 前妻 所生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거둬 집을 나와 중이 되었으나, 여자는 그때마다 관가에 붙들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에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작품화하였다.(南恩暎, 앞의 논문, 51~53쪽 ; 박혜숙, 48~51쪽)

305) <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는 未完의 서사시로서 심방주라는 백정의 딸을 주인공으로 하여, 양반집안과 백정집안의 혼인을 주요 줄거리로 삼고 있다. 심방주는 비록 백정의 딸로 태어났으나 더없이 아름답고 똑똑하며 빼어난 인품을 갖춘 여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박혜숙, 앞의 논문, 51~52쪽)

한 관점을 견지하며 다각적인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본다. 그러나 이 두 양식이 조선후기라는 같은 역사적 기반 위에서 산출되었을지라도 漢文短篇은 이 시기에 새로이 창출된 문학이라는 점에서 민중의耳目을 빌려와 형상화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중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듯 하고 민중의 현실이 그대로 보이는 듯 하다.

女性人物傳을 통해 용기 있고 적극적인 여성이었던 崔·洪, 銀愛, 孝娘과 능력 있고 주체적인 여성이었던 萬德, 杜今이라는 여성인물 형상을 살펴보았는데, 漢文短篇에서는 이러한 對決과 治産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형상화하였는지 간단히 점검해 본다.

우선 <劔女>³⁰⁶⁾와 <吉女>³⁰⁷⁾에서는 행동력이 강한 여성상을 부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劔女>의 이야기는 영조 때 學識과 文章으로 三南 지방에 이름을 떨친 春庵 蘇凝天(1704~1760)과 결부되어 黨派 싸움과 中傷謀略이 심했던 당시의 상황 속에 지방 선비로서 지나친 名聲을 가진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를 劔女라는 여성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한 남자에게 隸屬되기를 거부하고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한 여성을 볼 수 있다. <吉女>의 이야기에서는 胎生부터 不遇하였으나 이로 인해 현실과 맞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 할 수 있었으며 이후 억압자에게 전투적으로 맞섬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貫徹시키는 脫中世의인 여성이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원수에게 복수하고 부당한 현실과 대결하는 용기 있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甘草>³⁰⁸⁾와 <澤瀉>³⁰⁹⁾에서는 문제해결력이 강한 여성상을 부

306) <劔女>는 한 女婢가 그녀의 주인댁 처녀와 함께 劔術을 익혀 원수를 갚은 다음, 著名한 人士의 小室이 되었으나 그가 名聲에 부합되지 못하는 인물임을 알고는 따끔한 충고를 남기고 훌쩍 떠나 버린다는 내용이다.(李佑成·林榮澤 共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中, 一潮閣, 1973, 20~24쪽 ; 『雪橋別集』卷5「雪橋漫錄」6)

307) <吉女>는 鄉官의 庶女로 태어난 吉女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로, 양반인 申生의 小室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에게 소식이 없는 가운데 雲山 員이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하자 칼을 휘둘러 항거하고 운산 원을 무릎 꿇려 항복까지 받았다는 내용이다.(李佑成·林榮澤 共譯編, 앞의 책 上, 312~318쪽 ; 『破睡篇』에 <拒強暴閨中貞烈> ; 『東野彙集』卷2 ; 『青野談藪』卷1 <揮力罵倅退勒婚>)

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甘草>와 <澤瀉>의 이야기에서는 어느 특정 물품을 買占해서 가격을 올린 후 賣惜하여 많은 利潤을 취하는 여성들이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는 朴趾遠의 <許生傳>에서도 보이지만 이들은 일개의 婦女子로서 그리 많지 않은 자금으로도 이러한 手法을 구사하여 성공한 것이 주목된다. 초기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計策을 마련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성공이기에 의미가 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는 富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富를 축적하여 궁핍한 현실을 타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고 실천적인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후기적 면모를 보이는 여성인물을 주목하고 형상화한 敘事漢詩와 漢文短篇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여성인물을 여성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며 同情하기도 하고 肯定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구속의 機制들을 비판하며 여성의 현실을 切感하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알았다. 이처럼 敘事漢詩와 漢文短篇이 여성인물을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한 의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漢詩는 작가의 情緒나 感情, 개인적 體驗, 그리고 세계 인식을 표출하는 수단³¹⁰⁾으로서 主觀的·抒情的인 특징이 강한 양식이며, 漢文短篇은 口演 傳統을 거쳐 記錄化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세계관을 담아내어 開放的·虛構的·浪漫的인 특징이 강한 양식이다.³¹¹⁾ 이러한 양식상의 특징으로 인해 敘事漢詩에서는 작가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바탕이 되어야

308) <甘草>는 서울 한구석에서 接長 노릇으로 살아가는 한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 온 新婦가 武弁인 시당숙에게 돈 천 냙을 빌어 자금을 삼고, 學童들을 잘 구슬려서 문안 문밖의 약국을 두루 다니면서 甘草를 계속 사들였다가 값이 올랐을 때 방매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다.(李佑成·林榮澤 共譯編, 앞의 책 上, 37~39쪽; 『海東野書』 <得賢婦貧士成家業>)

309) <澤瀉>도 <甘草>와 같이 한 부인이 특정된 藥材를 매매하여 큰 돈을 번 이야기다.(李佑成·林榮澤 共譯編, 앞의 책 上, 40~42; 『紀聞拾遺』)

310) 박혜숙, 앞의 논문, 31쪽

311) 진재교, 앞의 책, 203쪽

하며, 漢文短篇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로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작가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敘事漢詩의 감상과 다양한 내용과 주제에 대해 深度 있게 접근하는 漢文短篇의 감상은 誤讀과 誤認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傳은 現實的·客觀的인 시선으로 인물을 具體的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徐事漢詩, 漢文短篇과 다른 차원에서의 문학사적 位相을 지니는 것이다. 公認된 전통적 이념과 규범적 인물을 담아 公的으로는 사회 질서의 확립을 꾀하며 私的으로는 개인 삶의 원리를 解釋하고 顯彰하는 성격을 갖는 양식이 傳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선후기에 들어 새롭고 다양한 인간상을 입전한 傳들을 통해서 이러한 전통적 성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傳 자체가 변화했다기보다 시대와 작가의식의 변화에서 기인한 諸樣相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여성인물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한문학 양식 중에서 女性人物傳은 여성인물에 대해 眞正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行蹟을 후세에까지 傳受하고자 한 歷史의 所產物이라고 하겠다. 女性人物傳을 통해 형상화된 여성인물은 바로 생생한 실제의 모습이었으며 傳 작가들에 의해 포착되고 의미를 부여받음으로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³¹²⁾ 이에 당시의 女性 漢文學과 비교할 때 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의의가 인정된다.

이상으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의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은 전통적인 傳과 조선후기 人物傳의 영향과 특징을 受容 또는 變容한 바탕 위에서 烈女傳을 母胎로 하여 조선후기에 이르러 產生된 독자적인 傳이라는 傳史的 의의를 갖는다. 또한 漢文學의 正統 양식이라고 할

312) 이처럼 傳 작가들에 의한 여성인물에 대한 의미부여는, 이후 조선후기의 社會·思想·文學的 諸動向과 관련하여 制限的이나 여성작가의 문학창작을 創出하고 그녀들의 문학활동을 認定하는 土臺를 마련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여성으로서 傳 작가는 唯一無二하나, 여성으로서 漢詩 작가는 量産되기 시작하여 작품집까지 出現하였으니 예컨대 한강변 三湖亭에서 본격적으로 詩會를 가지면서 시작활동을 전개하였던 妓女 출신으로 淵泉 金履陽의 小室이었던 金雲楚의 『雲楚詩集』, 奎堂學士 金德熙의 小室로서 14세때 男裝을 한 채 금강산 유람을 하고 그 紀行을 詩文으로 남긴 金錦園의 『湖東西洛記』, 그리고 朴宗彦의 庶女로 松湖 徐箕輔의 副室이 되어 짧은 생애 동안 詩作에 전념하였던 朴竹西의 『竹西集』(김여주,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4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수 있는 傳에 조선후기라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그 당시를 살아가던 새롭고 다양한 여성인물을 형상화하여 작품화한 女性人物傳은 당시 餘他の 女性 漢文學과는 또 다른 차원에 位置하고 그만의 意義를 갖는 문학이라고 할 것이다.

VI. 結 論

本稿는 朝鮮後期 女性人物傳을 考察하여 여성인물의 形象化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인물을 立傳한 작가의 意識이 무엇인지를 밝혀 女性人物傳이 갖는 文學史的 意義를 究明하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이란 조선후기의 새롭고 다양한 여성인물을 입전하여 작품화한 女性人物의 傳記로 女性作家的 女性人物傳을 포함하여 男性作家的 女性人物傳을 主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선후기 戰亂의 後遺症에서 벗어나 改革의 바람이 불기 이전까지인 17세기 후반(1650년대 이후)~18세기 전반(1750년)까지를 연구대상의 시대범위로 한정하였다.

지금까지 傳에 대해서는 傳의 양식적 특성, 조선후기에 산출된 傳문학, 조선후기에 傳을 창작한 작가 및 작품, 조선후기의 다양한 인간형을 입전한 人物傳에 관한 연구가 主流를 이루었다. 그 가운데 여성인물을 입전한 人物傳에 대한 관심은 烈女에 모아졌으며 說話, 傳說, 烈女圖, 漢詩, 중국의 列女傳, 우리나라 기록문헌의 烈女傳과 個人文集 所載의 烈女傳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대상을 통해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에 烈女만의 주목에서 進一步하여 다양한 여성인물을 考察하며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未盡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時代相과 女性像을 眺望하였고 당시 여성에 대한 他者の 視線과 認識, 여성인물 자신에 대한 自我의 意識과 覺醒에 대해서도 考究하였다. 이에 조선후기의 思想的·文藝的 特徵의 一面을 파악하는 데에도 一助 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論議의 결과를 要約하고 앞으로의 課題를 밝혀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①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 대한 豫備的 考察로서 女性人物傳의 概念, 形成時期, 展開樣相, 發展過程을 검토하였다. 女性人物傳은 傳 → 人物傳 → 女

性人物傳의 순서로 派生되어 形成되고 展開되면서 發展的 變貌의 과정을 거쳐 誕生한 文學이다. 전통적 傳을 바탕으로 人物傳의 史的 脈絡 안에서 烈女傳을 始初로 하여 形性된 女性人物傳은 烈女傳과 同軌에 놓여 展開되었지만 烈女傳의 背後에 가려져 浮刻 되지 못하고 個人文集 속에 자리하던 것이 조선후기라는 시대를 맞이하여 作家의 批判的·人間的 視角에 의해 捕捉되기에 이르고 發展할 수 있었다.

② 이와 같이 糾明된 女性人物傳의 作品世界를 여성인물의 理念과 現實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당시의 전통이념이었던 忠·孝·烈과 여성의 현실이었던 家父長制 社會를 여성들이 어떻게 認識하고 實踐하며 이에서 離脫하는 여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全般的인 考察이었다. 우선 烈이념과 관련하여 烈女傳을 살펴본 결과, 조선후기 烈女傳의 지속과 변모의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여성인물들의 烈行이 從死로 典型化되어 가면서 남편에게 從屬的인 위치에 놓여 남편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同一視하는 수많은 從死 烈女가 量産되었다.³¹³⁾ 이러한 전형적인 烈行 양상에 대한 批判的 視角이 擡頭하면서 守節이라는 새로운 烈行을 주목하고 남편과 並列的인 위치에 놓여 자신의 삶을 통해 烈을 실천하는 守節 烈女가 肯定되었다.³¹⁴⁾ 이와 더불어 이 시기 典型的인 烈行의 실천배경이었던 夫死가 缺如되고 따라서 從死의 차원이 될 수 없었던 香娘이라는 평민여성의 죽음이 他者의 視角에 의해 不更二夫한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새로운 烈의 실천자로 의미 있게 형상화되기도 한 것을 살펴보았다.³¹⁵⁾

다음으로 忠·孝이념과 관련하여 忠孝傳을 살펴본 결과, 조선후기 忠孝傳

131) Ⅲ章 1節 烈女傳의 持續과 變貌의 從死의 典型化 樣相을 考察하기 위해 ① 申光洙의 <鄭烈婦傳>, ② 丁範祖의 <鄭氏傳>, ③ 宋煥箕의 <烈婦恭人尹氏傳>, ④ 黃胤錫의 <烈婦李氏傳>, ⑤ 朴胤源의 <劉烈婦傳>, ⑥ 趙虎然的 <烈婦孫孺人傳>, ⑦ 趙虎然的 <孝烈李孺人傳>을 살펴보았다.

134) Ⅲ章 1節 烈女傳의 持續과 變貌의 새로운 烈行의 擡頭 중에서도 守節한 生烈女를 考察하기 위해 ① 朴趾源의 <烈女咸陽朴氏傳并序>, ② 李德懋의 <兩烈女傳>을 살펴보았다.

135) Ⅲ章 1節 烈女傳의 持續과 變貌의 새로운 烈行의 擡頭 중에서도 自決한 怨恨女를 考察하기 위해 ① 李光庭의 <林烈婦蕙娘傳>, ② 金民澤의 <烈婦尙娘傳>, ③ 尹光紹의 <烈女香娘傳>, ④ 俞漢雋의 <善山二烈女>을 살펴보았다.

의 變貌와 女性에 대한 주목을 볼 수 있었다. 前代부터 男性의 영역에 머물던 忠이념을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서 여성의 영역으로 끌어와 남성 못지않은 意志와 召命意識으로서 最善을 다하여 실천한 여성에 대한 주목이 보인다.³¹⁶⁾ 또한 그동안 남성의 孝行과 여성의 烈行에의 바탕에 비증을 두었던 孝이념을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에서 여성의 獨立的인 이념으로서 積極的으로 실천한 여성에 대한 주목도 보인다.³¹⁷⁾ 이를 통해 性別化된 理念을 無化시키고 여성의 현실에 맞게 自立的·積極的으로 실천하는 남다른 면모의 여성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념의 실천 與否와 관련하여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을 살펴본 결과, 이념적 사고에서 獨特한 행동을 보인 여성과 이념적 사고와 無關하게 非凡한 행동을 보인 여성을 볼 수 있었다. 이념적 사고에서 나온 행위는 그 행위 자체의 規範性을 떠나 이념만을 더욱 浮刻시키면서 規範과 價値의 宣揚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效果的이었다.³¹⁸⁾ 그리고 이념적 사고와 無關하게 나온 행위는 그 행위 자체의 肯定性으로 인해 여성인물이 身分과 現實의 제약요소를 뛰어넘으면서 主體的 自我로 발돋움하는데 一助하였다.³¹⁹⁾ 이를 통해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이 다양한 여성인물의 各樣各色的 行爲를 문학적으로 受容하고 形象化하고 있어 그 素材와 主題를 뚜렷하게 形言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③ 考察한 여성인물의 形象을 念頭에 두고 作家의 主觀的 論評이라고 할 수 있는 論贊部를 분석하면서 작가가 여성인물을 어떠한 觀點에서 捕捉하고

316) Ⅲ章 2節 忠孝傳의 變貌와 女性의 召命意識으로서 忠의 實現을 考察하기 위해 ① 任敬周의 <屈氏傳>, ② 蔡濟恭의 <七分傳>, ③ 金養根의 <太文母傳>을 살펴보았다.

317) Ⅲ章 2節 忠孝傳의 變貌와 女性의 孝行의 注目과 積極的 女性像을 考察하기 위해 ① 鄭來僑의 <翠梅傳>, ② 申暲의 <孝妓斗蓮傳>, ③ 南有容의 <孝子朴氏傳>, ④ 安錫傲의 <朴孝娘傳>, ⑤ 丁範祖의 <睦氏婦傳>을 살펴보았다.

318) Ⅲ章 3節 새로운 女性 形象에의 注目의 이념에 따른 獨特한 行爲를 考察하기 위해 ① 任允摯堂의 <崔洪二女傳>, ② 李德懋의 <銀愛傳>을 살펴보았다.

319) Ⅲ章 3節 새로운 女性 形象에의 注目의 脫理念의 非凡한 行爲를 考察하기 위해 ① 蔡濟恭의 <萬德傳>, ② 金養根의 <杜今嫗傳>을 살펴보았다.

형상화하였는지 그 立傳意識을 살펴보았다. 우선 여성과 不可分の 관계에 놓이는 이념과 현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傳統理念을 鼓吹한 입전의식을 볼 수 있었다. 여성의 烈을 전형적인 표현과 방식으로 讚美함으로서 外部의 變數에도 흔들림 없이 烈이 發現되도록 이념의 內面化에 주력하였다.³²⁰⁾ 또한 여성을 讚美하는 가운데 比較 對象을 거론함으로서 敎化의 必要性和 天性的 發現性, 그리고 個人의 省察까지 言表하며 일상적인 행위가 規範에 맞도록 이념의 日常化에 주력하였다.³²¹⁾

다음으로 전통이념의 고취에 주력함으로서 빚어지는 사회 현상과 여성 형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批判意識을 內在한 입전의식을 볼 수 있었다. 典型的인 烈女傳의 內容과 形式을 부분적으로 受容하여 그 안에 내재한 의식은 전형적인 烈行이 되어 가던 從死를 오히려 助長하며 이의 선택을 不可避하게 만들었던 不條理한 현실에의 비판과 인간적인 삶이 차단되고 家父長에 의해 拘束되는 여성의 현실이었던 家父長制 사회에의 비판이었다.³²²⁾

마지막으로 이념 그리고 현실과 別個로 여성 자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새로운 人物形象에 意味賦與를 한 입전의식을 볼 수 있었다. 이념적 사고에서 나온 행동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獨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목한 여성에게는 勇氣와 積極性에 의미를 부여하였다.³²³⁾ 또한 이념과 無關하게 나온 행동이 이념적 시각 망에 의해서도 포획되지 않았던 非凡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목한 여성에게는 能力과 主體性에 의미를 부여하였다.³²⁴⁾ 이 여성인물의 形象은 모두 독립적 개인으로서 思考하고 行動하며 삶의 주체가 家父長이 아닌 自身임을 보여주었다.

320) 烈女傳 가운데 從死의 典型化에서 살펴본 작품들의 論贊을 통해 考察하였다.

321) 香娘傳과 忠孝傳 작품들의 論贊을 통해 考察하였다.

322) 烈女傳의 새로운 烈行의 擡頭 중에서 守節한 生烈女를 입전한 작품들의 論贊을 통해 考察하였다.

323) 忠孝傳과 이념에 따른 獨特한 行爲의 女性人物傳에서 여성인물보다 작가의 論贊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 형상을 중심으로 考察하였다.

324) 脫理念의 非凡한 行爲의 女性人物傳 작품들의 論贊을 통해 考察하였다.

④ 지금까지 女性人物傳의 形性 및 展開를 考察하며 傳史의 脈絡을 알 수 있었고, 女性人物傳의 作品世界를 考察하며 여성인물의 형상을 볼 수 있었으며, 女性人物傳의 立傳意識을 考察하며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을 종합하여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이 갖는 文學史的 意義를 導出하였다. 歷史的·文學的 諸般 條件의 變化로 성립된 조선후기 女性人物傳은 전통적인 傳과 조선후기 人物傳의 영향과 특징을 受容 또는 變容한 바탕 위에서 烈女傳을 母胎로 하여 다양한 視角에서 각가지 色彩를 가미하여 創出된 새롭고 獨自的인 문학이라는 傳史的 意義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漢文學의 正統 양식으로서 公認性과 歷史性을 具有하는 傳에 社會상을 반영하고 다양한 여성인물을 형상화하여 작품화한 女性人物傳은 당시 餘他の 女性 漢文學과 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位置에 놓이는 意義를 갖고 있었다.

끝으로 본고의 未備點에 대해 밝히며 다음 기회를 통해 補完하고자 한다. 사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女性人物傳 全般에 대해 簡略하게나마 素材와 主題, 그리고 內容에 대한 紹介가 先行되어 檢討되었어야 했는데 紙面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필자의 主觀的인 分類와 類型化에 치우친 감이 있다. 뿐만 아니라 女性人物傳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형상과 작가의 논란부분의 분석에 주력하여 섬세한 穿鑿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女性人物傳에 입진된 여성과 關聯하여 實存 與否와 關聯 資料의 검토가 뒷받침되지 못했으며 女性人物傳을 창작한 작가와 關聯하여 生涯 及 思想과 政治的·學問的 性向의 고찰 또한 缺如되었다. 이와 함께 더욱 深度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필자가 선정한 시대범위 外에서 産出된 女性人物傳과의 比較·考察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未洽한 點들은 追後의 課題로 남겨 補完토록 한다.

參考文獻

1. 基本資料

- 姜世晉, <三孝娘傳>, 『警弦齋集』(『文集所在傳資料集』5, 啓明文化社)
- 具 庠, <崔氏傳>, 『無名子集』(『文集所在傳資料集』5, 啓明文化社)
- 權 渠, <林孝子>, <清風義婦>, 『屏谷集』7(『韓國文集叢刊』188, 民族文化推進會)
- 權以鎮, <金氏傳>, 『有懷堂集』(『文集所在傳資料集』4, 啓明文化社)
- 金民澤, <烈婦尙娘傳>, 『竹軒集』(『文集所在傳資料集』4, 啓明文化社)
- 金相定, <金氏義烈傳>, 『石堂遺稿』(『文集所在傳資料集』5, 啓明文化社)
- 金相進, <金孝婦傳>, 『濯溪集』(『文集所在傳資料集』6, 啓明文化社)
- 金養根, <安中嫗傳>, <杜今嫗傳>, <太文母傳>, <權孝子庶母傳>, 『東莖集』(『文集所在傳資料集』5, 啓明文化社)
- 金鍾厚, <申氏傳>, 『本庵集』10(『韓國文集叢刊』237, 民族文化推進會)
- 南有容, <孝子朴氏傳>, 『雷淵集』27(『韓國文集叢刊』218, 民族文化推進會)
- 朴胤源, <廉節婦傳>, <劉烈婦傳>, 『近齋集』22(『韓國文集叢刊』250, 民族文化推進會)
- 朴趾源, <烈女咸陽朴氏傳>, 『燕巖集』1(『韓國文集叢刊』252, 民族文化推進會)
- 朴泰茂, <義妓傳>, 『西溪集』(『文集所在傳資料集』4, 啓明文化社)
- 徐宗泰, <環姥紀事>, 『晚靜堂集』13(『韓國文集叢刊』163, 民族文化推進會)
- 徐滢修, <玉英傳>, 『明阜全集』(『韓國文集叢刊』261, 民族文化推進會)
- 釋應允, <朴烈婦傳>, 『鏡巖集』(『文集所在傳資料集』6, 啓明文化社)
- 宋煥箕, <烈婦尹氏傳>, <烈婦恭人尹氏傳>, 『性潭集』30(『韓國文集叢刊』245, 民族文化推進會)
- 申 暉, <孝妓斗蓮傳>, 『直菴集』20(『韓國文集叢刊』216, 民族文化推進會)
- 申 昉, <趙節婦傳>, 『屯菴集』(『文集所在傳資料集』4, 啓明文化社)
- 申景濬, <江華崔氏傳>, 『旅菴遺稿』12(『韓國文集叢刊』231, 民族文化推進會)
- 申光洙, <鄭烈婦傳>, 『石北集』15(『韓國文集叢刊』231, 民族文化推進會)
- 慎守彝, <烈婦孺山鄭氏傳>, 『黃阜集』(『文集所在傳資料集』4, 啓明文化社)
- 安錫傲, <朴孝娘傳>, 『雪橋集』6(『韓國文集叢刊』233, 民族文化推進會)
- 兪肅基, <金孺人傳>, 『兼山集』(『文集所在傳資料集』4, 啓明文化社)

- 俞彥縞, <百歲夫人傳>, <濟州五節女傳>, 『燕石』 13 (『韓國文集叢刊』 247, 民族文化推進會)
- 柳宜健, <烈婦孺人河氏傳>, 『花溪集』 (『文集所在傳資料集』 4, 啓明文化社)
- 俞漢雋, <善山二烈女>, 『自著』 14 (『韓國文集叢刊』 249, 民族文化推進會)
- 尹光紹, <烈女香娘傳>, <烈女李儒人傳>, 『素谷遺稿』 4 (『韓國文集叢刊』 223, 民族文化推進會)
- 李 栽, <洪烈婦傳>, 『密菴集』 16 (『韓國文集叢刊』 173, 民族文化推進會)
- 李匡呂, <林夫人傳>, <記李孺人事>, 『李參奉集』 (『韓國文集叢刊』 237, 民族文化推進會)
- 李光庭, <林烈婦薊娘傳>, <二勝傳>, 『訥隱集』 (『韓國文集叢刊』 187, 民族文化推進會)
- 李德懋, <兩烈女傳>, <慧女傳>, 『靑莊館全書』 4, 「嬰處文稿」 2 (『韓國文集叢刊』 257, 民族文化推進會)
- _____, <銀愛傳>, 『靑莊館全書』 20, 「雅亭遺稿」 12 (『韓國文集叢刊』 257, 民族文化推進會)
- 李萬敷, <孝子烈婦忠奴列傳>, 『息山集』 20 (『韓國文集叢刊』 178, 民族文化推進會)
- 李載亨, <記訓戎鎮婢李娘事>, 『松巖集』 5 (『韓國文集叢刊』 179, 民族文化推進會)
- 李種徽, <李節婦金氏傳>, 『修山集』 8 (『韓國文集叢刊』 247, 民族文化推進會)
- 李獻慶, <孝烈傳>, 『艮翁集』 21 (『韓國文集叢刊』 234, 民族文化推進會)
- 任敬周, <屈氏傳>, <何氏女傳>, <梅竹堂 李氏傳>, 『靑川子稿』 (『文集所在傳資料集』 5, 啓明文化社)
- 林象德, <淡婆姑傳>, 『老村集』 4 (『韓國文集叢刊』 206, 民族文化推進會)
- 任允摯堂, <宋氏(能相)婦傳>, <崔洪二女傳>, 『允摯堂遺稿』 (『文集所在傳資料集』 5, 啓明文化社)
- 鄭來僑, <吳孝婦傳>, <翠梅傳>, 『浣巖集』 4 (『韓國文集叢刊』 197, 民族文化推進會)
- 丁範祖, <鄭氏傳>, <睦氏婦傳>, 『海左集』 39 (『韓國文集叢刊』 240, 民族文化推進會)
- 趙龜命, <賣粉姬玉娘傳>, <外祖母贈貞敬夫人李氏傳>, 『東谿集』 5 (『韓國文集叢刊』 215, 民族文化推進會)
- 趙是光, <金奴石婢傳>, 『柱江文集』 (『文集所在傳資料集』 4, 啓明文化社)
- 趙有善, <烈女朴氏傳>, 『蘿山集』 (『文集所在傳資料集』 5, 啓明文化社)

- 趙載道, <烈女桂月傳>, 『忍庵遺稿』(『文集所在傳資料集』5, 啓明文化社)
- 趙虎然, <烈婦孫孺人傳>, <孝烈李孺人傳>, 『舊堂集』(『文集所在傳資料集』6, 啓明文化社)
- 蔡濟恭, <淸風義婦傳>, <七分傳>, <萬德傳>, 『樊巖集』55(『韓國文集叢刊』236, 民族文化推進會)
- 黃龍漢, <烈婦咸陽朴氏傳>, 『貞窩集』(『文集所在傳資料集』6, 啓明文化社)
- 黃胤錫, <烈婦李氏傳>, 『頤齋遺藁』22(『韓國文集叢刊』246, 民族文化推進會)

2. 單行本

- 金 泳, 「敘事意識의 擴大와 訥隱의 傳」, 『朝鮮後期 漢文學의 社會的 意味』, 집문당, 1993
- 김여주,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 박무영 외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 朴 珠, 『朝鮮時代의 旌表政策』, 일조각, 1990
- _____, 『朝鮮時代의 孝와 女性』, 國學資料院, 2000
- 朴熙秉, 『韓國古典人物傳研究』, 한길사, 1992
- 李起炫, 『石北 申光洙 文學 研究』, 寶庫社, 1996
- 李佑成·林榮澤 共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上~下, 一潮閣, 1973
- 李憲洪, 『韓國訟事小說研究』, 三知院, 1997
- 이혜순 외저,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 정출현 외저,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允摯堂遺稿』, 원주시, 2001
- 진재교,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2001
- _____, 『조선 후기 인물전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고전』, 현암사, 2005
- _____ 편역, 『알아주지 않은 삶 : 조선조 후기 傳과 記事 모음집』, 태학사, 2005
- 崔俊夏, 『韓國 實學派 私傳의 研究』, 이회문화사, 2001

3. 一般論文

- 강성숙, 「訥隱 李光庭 작품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의 양상과 의미」, 『韓國古典研究』 통권13집, 韓國古典研究會, 2006
-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2002
- 고연희, 「조선시대 烈女圖 고찰」,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2002
- 권태乙, 「息山 李萬敷의 傳 研究 : 그 實學思想의 側面에서」, 『淡水』 14, 淡水會, 1985
- 金均泰, 「朝鮮後期 人物傳의 野談趣向性 考察」, 『韓國漢文學研究』 12,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 _____, 「李德懋의 傳 研究 : 패관소품 문체 실상을 중심으로」, 『韓南語文學』 25, 韓南大學校國語國文學會, 2001
- _____, 「李德懋 文集 所載 說話의 理念과 小品文의 性格 研究」, 『고전문학과 교육』 제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金權泰, 「朝鮮後期 人物傳과 敍述方式의 變異樣相 試論」, 『崇實語文』 7, 崇實大學校崇實語文研究會, 1990
- 金竣亨, 「<萬德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제17집, 제주학회, 2000
- 金血祚, 「燕巖의 「烈女咸陽朴氏傳」 再考 : 새로운 자료 소개를 겸하여」, 『大東漢文學』 제24집, 大東漢文學會, 2006
- 김남이, 「임윤지당의 한문 글쓰기 방식과 그 의미 : 조선후기 여성의 학문적·문학적 토양에 대한 고찰로서」, 『東洋古典研究』 제24집, 東洋古典學會, 2006
- 김대숙, 「구비 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2002
- 김미란, 「<女性傳記>의 서술의도 연구 : 16, 17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집, 월인, 2001
- 김선경, 「조선 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역사연구』 8, 역사학연구소, 2000
- 김언순, 「조선후기 사대부 女訓書에 나타난 여성상 형성에 대한 연구」, 『韓國教育史學』 제28권 제1호, 韓國教育史學會, 2006

- 김용남, 「浣巖 鄭來僑의 「傳」 고찰」, 『開新語文研究』 15, 개신어문학회, 1998
- _____, 「中人 作家의 「傳」에 나타난 인물유형」, 『開新語文研究』 17, 개신어문학회, 2000
- 김혜숙,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 : 「禮治」 개념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9, 한국여성학회, 1993
- 南恩暎, 「18, 19세기 漢詩·文에 나타난 女性形象 : 女性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11, 東洋古典學會, 1998
- 류준경, 「朴孝朗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5집, 월인, 2004
- 朴峻遠, 「朝鮮後期 傳의 事實受容樣相 : 燕巖·文無子·潭庭의 경우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12,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 서사한시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9, 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 朴熙秉, 「한국한문학에 있어 <傳>과 <소설>의 관계양상」, 『韓國漢文學研究』 12,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 _____, 「한국고전소설의 발생 및 발전단계를 둘러싼 몇몇 문제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17, 서울대학교國語國文學科, 1992
- _____,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3
- 서인석, 「봉건시대 여성의 이념과 행동 : <박효랑전>과 <김부인열행록>의 경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월인, 2003
- 禹快濟, 「列女傳의 韓·日 傳來와 그 受容樣相 考察」, 『語文研究』 21, 語文研究會, 1991
- _____, 「『列女傳』의 傳統과 女性 文化」, 『우리文學研究』 제16집, 우리文學會, 2003
- 尹在敏, 「中人 「傳」의 계층적 성격」, 『韓國漢文學研究』 12,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 _____, 『朝鮮後期 中人層 漢文學의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1999
- 이대형, 「조선전기 열녀전 연구」, 『연세어문학』 제26집, 연세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94
- 李相鎭, 「閭巷人의 傳에 대하여 : 鄭來僑의 「傳」작품의 分析」, 『漢文教育研究』 제1권 제1호, 博而精, 1986
- 李信馥, 「蔡濟恭의 「萬德傳」 研究」, 『漢文學論集』 12, 단국한문학회, 1994

- 이인경, 「口碑 ‘烈설화’에 나타난 이념과 현실-혜절형 ‘烈설화’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2002
- 李鍾虎, 「병곡 권구의 「천유록」 연구 : 사대부층의 눈에 비친 18세기 안동의 민중형상」, 『誠信漢文學』 제5집, 誠信漢文學會, 1995
- 李泰熙, 「「賣粉姬玉娘傳」의 보여주는烈的 의미와 가치」, 『曉星漢文學研究』 제3집, 曉星漢文學會, 2003
- 이혜순, 「「열녀전」 연구」, 『梨花論文集』 8, 梨花女子大學校韓國語文學研究所, 1986
- _____,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 《삼강행실도》에서 조선 후기 <열녀전>까지」, 『震檀學報』 85, 震檀學會, 1998
- _____, 「열녀전의 立傳意識과 그 사상적 의의」,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2002
- 이혜순 · 김경미 공저,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 任侑旻, 「南有容의 文學觀과 傳 서술방식」, 『大東漢文學』 제7집, 大東漢文學會, 1995
- _____, 「任允摯堂의 傳 서술 방식과 여성의식」, 『泰東古典研究』 제16집, 翰林大學校附設泰東古典研究所, 1999
- _____, 「任敬周의 여성전에 나타난 작가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2000
- _____, 「조선후기 전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 『어문학』 제75호, 한국어문학회, 2002
- _____, 「李鈺의 烈女傳 서술방식과 烈 관념」,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2002
- _____, 「『이향건문록』 소재 여성전의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월인, 2003
- 정출현,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善山地方의 香娘이 ‘국가 열녀’로 還生하기까지의 보고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집, 월인, 2001
- 鄭煥局, 「조선후기 人物記事의 전개와 그 성격」, 『韓國漢文學研究』 제29집, 韓國漢文學會, 2002
- 조태영, 「조선후기 「傳」에서 보는 사회와 자아의 형상 : 18세기 孝 · 列傳에 투영된 양상」, 『韓國文化』 15,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94
- 조혜란, 「조선의 女俠, 劍女」,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집, 월인, 2006

- 진재교, 「李朝後期 漢詩에 나타난 ‘烈의 時代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2002
- 崔俊夏, 「樊巖 蔡濟恭의 「傳」文學 研究」, 『語文研究』 24, 語文研究會, 1993
- 최진아, 「견고한 원전과 그 계보들-동아시아 여성 쓰기의 역사-」,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 『列女傳』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홍인숙, 「17세기 烈女傳 연구」, 『韓國古典研究』 통권7집, 韓國古典研究學會, 2001
- _____, 「봉건 가부장제의 여성 재현 : 조선 후기 열녀전」, 『여성문학연구』 통권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 홍혜정, 「李德懋의 傳에 나타난 서사방식 고찰」, 『문창어문논집』 제41집, 문창어문학회, 2004

4. 學位論文

- 강혜규, 「삼교 안석경의 산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 郭正植, 「韓國 傳文學의 展開樣相과 特性 研究」, 부산대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權泰乙, 「息山 李萬敷의 文學研究」, 효성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 金容男, 「朝鮮後期 中人 作家의 「傳」 研究」,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1999
- _____, 「朝鮮後期 「傳」 研究」,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1991
- 김미정, 「조선후기 자혜 인물전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정일, 「조선후기 여향인물전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03
- 文盛培, 「浣巖 鄭來僑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박성연, 「조선후기 ‘여성전’의 내용과 찬자분석」,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성태, 「조선후기 송사소설의 유형과 전개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 박수진, 「향량 고사의 변용양상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朴暎美, 「李德懋의 傳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94
- 朴英敏, 「士大夫 漢詩에 나타난 女性情感의 史的展開와 美的特質」,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8

- 朴喆榮, 「嶺東地方 孝烈傳說의 研究 : 문헌전설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安仁旭, 「烈女傳 研究」,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오히정, 「朝鮮後期 醫人傳 研究」,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대형, 「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4
- 李東根, 「朝鮮後期 實存人物의 「私傳」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 李乘福, 「樊巖 蔡濟恭의 「傳」 研究」,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李廷珍, 「『傳』의 敍述樣式과 소설로의 變容에 관한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1993
- 李鐘珠, 「北學派 散文 연구 : 燕巖 朴趾源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1
- 李炯周, 「浣巖 鄭來僑의 문학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정미숙, 「蔡濟恭과 李鈺의 女性傳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조태영, 「『傳』樣式的 展開樣相에 관한 研究 : 烈女傳 유형과 發展된 逸士傳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
- 朱明姬, 「『傳』의 樣式的 特徵과 小說로의 受容 樣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6
- 崔娟僖, 「鄭來僑 문학 연구」, 한국 교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최윤석, 「조선후기 기인전의 양상과 특성」,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崔俊夏, 「韓國 實學派 私傳의 研究」,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1992
- 韓鉉洙, 「『傳』樣式的 展開樣相 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홍인숙,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 홍혜정, 「이덕무 전의 서사방식과 작가의식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Biography of Female Figure at the Latter Period of Chosun

By Lee, Ju Mi,
Dept. of Chinese Classics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try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literature history closely through the study of biography of female figure. So, this researcher examined diverse female figures at the latter period of Chosun by making a step forward from the attention of only virtuous women and viewed period image and women image at the latter period of Chosun.

Biography of female figure at the latter period of Chosun is the biography of female figures which was made into work by making the new and diverse female figures at the latter period of Chosun into biography. The work of study subject of this thesis was made into type and studied centering around the form of female figure and centering around making female figure into biography about the artist of study subject.

First, according to what examined about the concept, formation and unfolding and development of biography of female figure, it developed by meeting the latter period of Chosun, while it derives, is formed and unfolded in the order of biography → figure biography → biography of female figure. Next, according to what examined about work world, in

the biography of virtuous woman, virtuous woman of self-immolation on the death of a person, virtuous woman to defend chastity, and female figure to be Hyangrang were seen. In the bio-graphy of loyalty and filial piety, female figure who practised loyalty idea as royal summon consciousness and female figure who practised filial piety idea positively were seen. In addition to this, female figure who showed special action in ideal thinking and female figure who showed extraordinary action regardless of ideal thinking were seen. Lastly, according to what examined the consciousness making into biography, it inspired to internalize virtuous idea by praising the virtuous action of female and to make idea into daily life by commenting on comparison subject. In addition, it included the criticism consciousness for the actuality of self-immolation on the death of a person which became the model of virtuous action and for the actuality of women who were restricted by patriarch. Unlike this, it gave meaning as new figure forms by catching courage and positive nature from the women who did special action and catching ability and subjectivity from the women who did extraordinary action.

Biography of female figure at the latter period of Chosun has the meaning of only the biography of female figure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Chinese writing science which took notice of females who show the aspect of latter period of Chosun by originating in the stylistic feature of biography, with the biographic meaning to be new and independent literature created by adding all sorts of colors from diverse viewpoints.

It is deemed that the meaning of literature history of the biography of female figure at the latter period of Chosun was examined closely with above. But, it is deemed that the originality and meaning of biography of female figure will be revealed definitely for the first time.